

건축사

KIRA 2011 06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www.KIRA.or.kr

칼 럼 난 지금 매우 기분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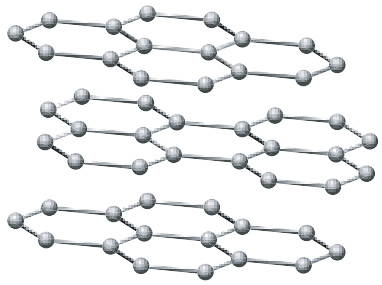
시 론 '백결선생'과 '떡'
건축설계 감정업무에 대하여

KOREAN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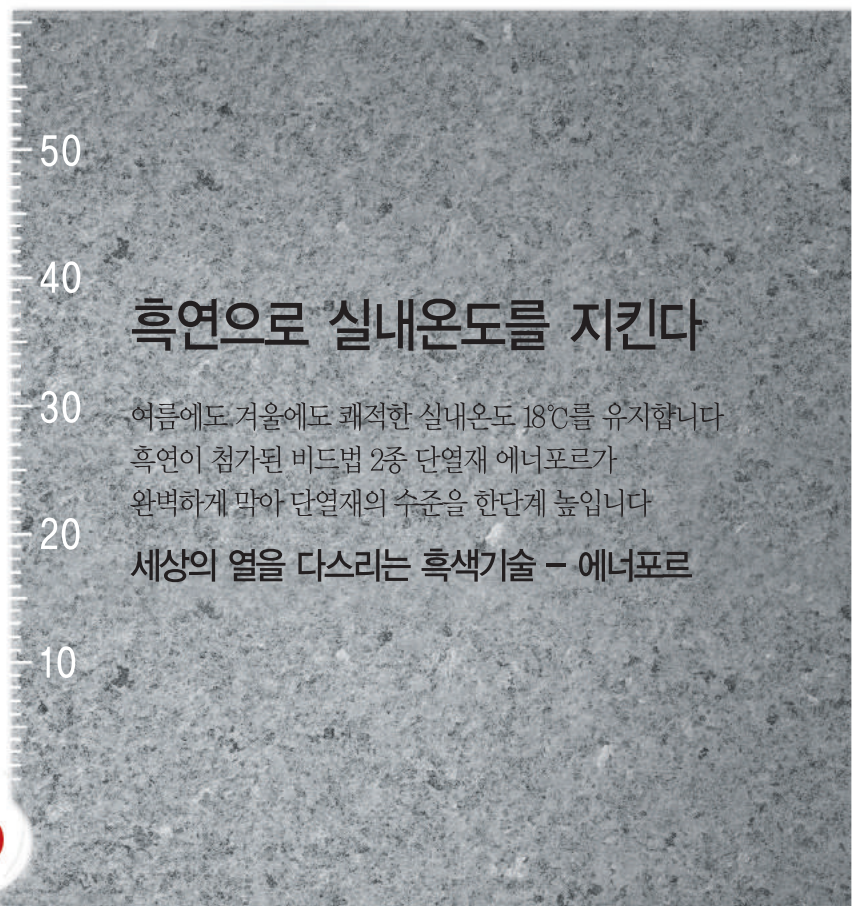
18℃를 지켜라!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 에너포르

흑연의 판상형 구조



* 흑연의 특별한 구조가 외부의 열을 흡수합니다



흑연으로 실내온도를 지킨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쾌적한 실내온도 18℃를 유지합니다
흑연이 첨가된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가
완벽하게 막아 단열재의 수준을 한단계 높입니다

세상의 열을 다스리는 흑색기술 – 에너포르

고효율 단열재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는 흑연을 첨가하여 동일기준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단열 성능이 20% 향상된 고효율의 단열재입니다.

친환경 단열재 에너포르는 높은 단열성능으로 공간적, 경제적 최소화로 보다 향상된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 효과를 주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웰빙 단열재 에너포르는 독립된 미세한 기포구조로 이루어져 습기, 세균, 곰팡이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강한 웰빙단열재입니다.

에너포르

www.kkp 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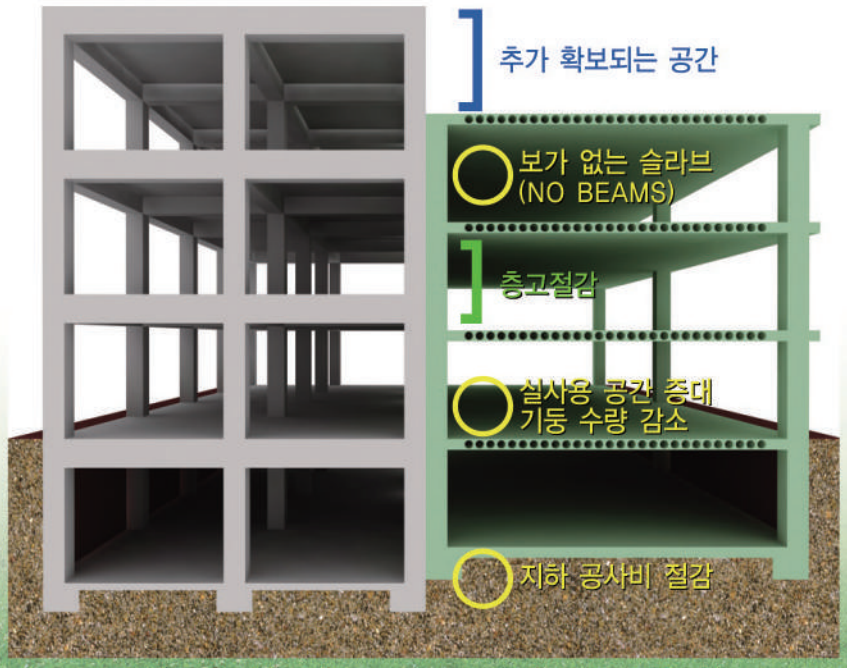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ENERPOR) 는 종래의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하여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개념을 도입, 동일비중의 단열재에 비하여 열전도율이 10~20% 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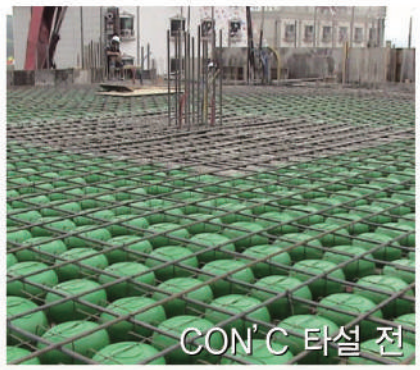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테크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87-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QR코드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A/S : 02)333-4448

■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E-mail : cgp210@kornet.net　■ FAX : 054)973-0067

2011 KAFF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한국건축산업대전 2011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2011. 10. 27 - 30
Coex, Hall A



www.kaff.biz
www.kira.or.kr

Green City Week **친환경건축재료의 발견**

주 최 대한건축사협회

전시품목

친환경 도시·건축프로젝트관/기업홍보관
-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조경회사, 기타협력사
- 공공기관 및 단체
- 부동산 개발, 분양, 유지관리 업체

친환경 건축자재 및 조경
- 국내외 건축자재 생산 및 수입업체
- 조경 및 환경업체

신재생에너지
- 고효율 에너지절약기기 및
-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

그린IT 및 기타
- 전자·정보통신, 홈네트워크사
- 건축관련 교육기관
- 모형, 출판, 소프트웨어 및 기타 관련업체

동시행사 한국건축문화대상, 전국건축사연수교육, 국제친환경건축포럼
공공디자인전시회, 기후변화방재산업전, 스마트그린빌딩엑스포

포 상 한국건축산업대상
정부포상 : 국토해양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선정기준 : 정부포상은 건설기술, 건축문화 발전에 공헌이 있는 건축관련사로 함

우수 건축자재 추천제

건축전문가들에게 우수 건축자재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설계, 시공, 감리업무의 효율증대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관련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건축자재추천제'를 시행합니다.

대 상 KS등 국내.외 관련법령에 의해 인증된 건축자재 중 추천신청 제품

절 차 1차심사 :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 중 전국건축사 참여 심사.
2차심사 : 건축자재추천 위원회 심사
공람15일 후 건축자재추천서 교부

특 전 추천받은 건축자재의 DB화 및 건축사들이 직접 실무에 적용토록 홍보.권장
월간'건축사', '건축문화신문', 인터넷 등을 이용해 건축자재의 소개 및 홍보
협회를 통해 각종 신자재발표회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건축사 및 자재회사가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 수행

문 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Tel 02-3415-6867. Fax 02-3415-6855. Webpage www.kira.or.kr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 better environment inside and out.™

Solar Gard® WINDOW FILMS

솔라가드® 건축용 윈도우 필름

빌딩 냉방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

- 에너지 비용 최대 30% 절약
- 빌딩 에너지 분석 시뮬레이션 제공(CAPSOL)
- 업계 최초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및
  탄소 네거티브 제품(Carbon Negative Products) 인증
- 자외선 차단 및 섬광 제거에 의한 실내 거주 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솔라가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53 창우빌딩 3층 베카르트코리아 Tel 02 539 8761 · Email js.park@bekaert.co.kr

http://www.solargard.com

10
칼럼
난 지금 매우 기분이 좋다
권병조

11
시론
'백결선생'과 '떡'_송호섭
건축설계 감정업무에 대하여 _박종철

13
만평
김진균

17


22


14 **회원작품**
용인 기흥도서관
문호
(주)유진인터내셔날 종합건축사사무소

20 **회원작품**
더 헤리티지
한현호
(주)지엔아이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성한
(주)건축사사무소 아크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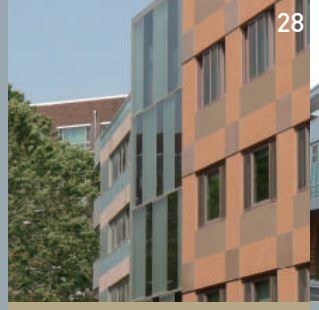
26 **회원작품**
국민대학교 기숙사
정동명
(주)지원파트너스 건축사무소

30 **회원작품**
한국전력공사 154kV 현저변전소
최홍구
(주)도담 건축사사무소

34 **인터뷰**
건축초대석_유승정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박찬정, 김희곤

38 **공고**
2011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39 **중남미문화제 지상중계**
중남미 문화와 문화론 _박병규
라틴아메리카의 라틴건축 _박길룡

28


32


50 **설계경기**
내북초등학교
포항 버스 공영차고지

65 **연재01**
스위스의 건축현상설계와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 규정(SIA102) 분석을 통한 건축사의 역할
임구성

70 **연구 01**
친환경건축설계 아카데미 지상강좌(完)
이해욱

77 **연구 02**
DQI(Design Qualit Indicator)를 통한 사용자 참여 설계 절차의 이해
강태웅

기고
제17차 전국 여성건축사 대회를 마치고_임희선

89 **건축마당**
보고서_2011 미국건축사협회 총회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통계
해외건축 동향 _김은미

발 행 인 강성익
담 당 이 사 정익현
위 원 장 박찬정
위 원 구만열 · 김희곤 · 송호섭 · 이동우 · 정병협 · 최동호
취재 · 편집 최락청 팀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 – 55 건축사회관
우 편 번 호 137–877
전 화 대표 (02)3415–6800
팩 시 밀 리 (02)3415–6898~9
인 터 넷 http://www.kira.or.kr
인 쇄 (주)화신문화사 Tel : (02)2277–0624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3415–6862~4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Vol. 506 June 2011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1년 06월호 통권 5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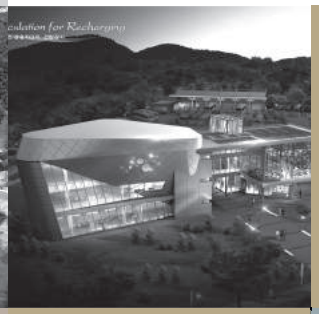
Contents

10
COLUMN
I am very happy now!
Gwon, Byeong-jo

11
FOCUS
Sir Baek Gyol and Rice Cake
Song, Ho-seob
Opinion of Appraisal of Architectural Design
Park, Jong-chull

13
CARTOON
Kim, Jin-kyoon





14
WORK
Yongin Giheung Public Library
Moono, Ho
O, Kun-sok

20
WORK
The Heritage
Han, Hyun-ho
Kim, Jeong-han

26
WORK
Dormitory for Kookmin Univ.
Cheong, Dong-m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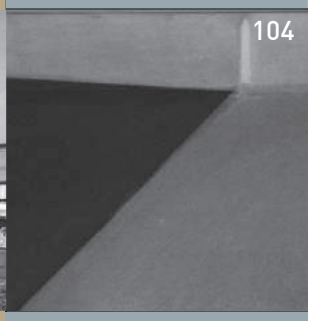
30
WORK
154kV Hyeon-jeo Substation, KEPCO
Choi, Hong-gu

34
INTERVIEW
Invitation to Archtecture_
Yu, Seung-jeong
Seoul Southern District President
Park, Chan-jung
Kim, Hee-gon

39
Latin American Culture Paper Relay
Contours of Latin American cultural theory_ Park,Byong-kyu
Latin Architecture in Latin America_Park, Kil-yong

50
COMPETITION
Naebuk Elementary School
Pohang Public Bus Garange





65
SERIAL 01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and Regulation governing architects' services and fees (sia102) by analyzing the role of architects in Switzerland
Lim, GuSung

70
SERIAL 01
Sustainable Architecture Academy paper lecture
Lee, Hae-wook

77
SERIAL 02
Understanding User Participated Designing PROCESS by means of DQI
Kang, Tae-woong

FEATURE
17st National Convention of Female Architects
_Lim, Hee-sun

89
ARCHITECTS' PLAZA
REPORT_2011 AIA Convention
Kira News
Archi-Net
Statistics
Overseas News Review
_Kim, Eunm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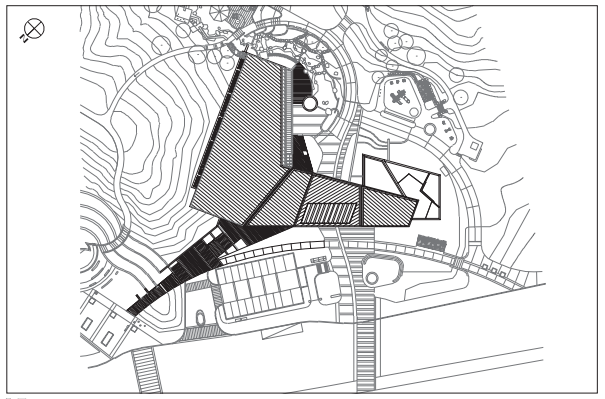
Publisher	Kang, Sung Ik
Director	Jeong, Ik-hyun
Committee Chairman	Park, Chan-jung
Committee	Ku, Man-yeol & Kim, Hee-gon & Song, Ho-seob & Lee, Dong-woo & Chung, Byung-hyup & Choi, Dong-ho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98~9

용인 기흥도서관

Yongin Giheung Public Library

문호 · 오근석 정회원 | (주)유진인터내셔널 종합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Moon, Ho, KIRA · O, Kun-sok, KIRA

Project Team | Kim, Yong-ho/ Yoon, Jong-soek/ Cha, Jong-yeon/ Hwang, Myuong-hee/ Kim, Ji-sun
Client | Yongin City
Location | Yongin city Gihung-gu Shingal-dong #14 & the district
Site Area | 13,200m^2 Building Area | 2,590.45m^2
Gross Floor Area | 6,513.55m^2 Building to Land Ratio | 19.62%
Floor Area Ratio | 28.43% Structure | R.C.+Steel
Structural Engineer | P.E.G Structural Consulting & Research Center
Building Scope | B1- 3F
General Contractor | Sosabul Construction
Electrical Engineer | Cheongsong Engineering & Construction
Finishing Materials | Wall: Alum. sheet+Basalt /Roof: Zinc
Photographer | Park, Jae-young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정면 야경


부분입면



전경

공원 속 공공 도서관

만골공원시설의 일부로서의 기흥도서관은 기존 산책로였던 숲을 배경으로 Green Look을 지향하였다. 만골공원 조경과의 어울림, 숲의 녹음, 다양한 문화적 기능을 더하여 기흥 구민 교류와 문화정보 전달을 하는 복합도서관(Multiful Library)이다. 새가 비상하는 듯한 지붕 형상은 주변 고층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는 랜드마크로 서 지역주민들의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 또한 건물의 전후면 유리 커튼월설치로 공원과 숲을 풍경화의 배경으로 삼아 숲속 도서관을 만들고자 했다.

마당 있는 도서관

지형은 높이 10~25미터 경사가 급한 동 서측으로 두개의 언덕과 일부 낮은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다. 두 언덕 사이에 골짜기 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배치하여 절토량을 줄이고, 도서관 이용도와 관리상의 효율을 위해 크게 두 공간(자료정보이용공간과 지역커뮤니티 및 문화공간)으로 나누었고, 3층 연결브리지는 휴게공간과 이어져있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큰 마당은 길 건너 아파트에서 오는 이용자들이 가깝게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되었다.

공간계획

도서공간과 문화공간의 동 분리로 소음이 도서관 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서고와 관리 동선을 수직적으로 별도 확보하고 원활한 흐름을 되도록 유도하며, 일반이용자 동선체계는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출입이 서비스의 시각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어린이 도서관은 종합자료실 등과 별도의 출입동선을 만들고 문화공간 이용자와 마당에서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 public library in the park_Design concept

Facility of Mangol Park, Giheung Library is surrounded by forest which was trail and aim to be "Green-Look". The library is a mixed-used which is community and culture center and it's harmony of Landscape design in Mangol Park, trees in forest, providing various culture spaces. Flying roof shape came from aerial view of neighbor high-rise apartment and the designed was approach for landmark and ideals. The team designed a glass curtain-wall for façade and rear elevation that it can be a library in forest. Thus the park and forest can be scenery for the library.

A library with yard and forest_Site & Plan Lay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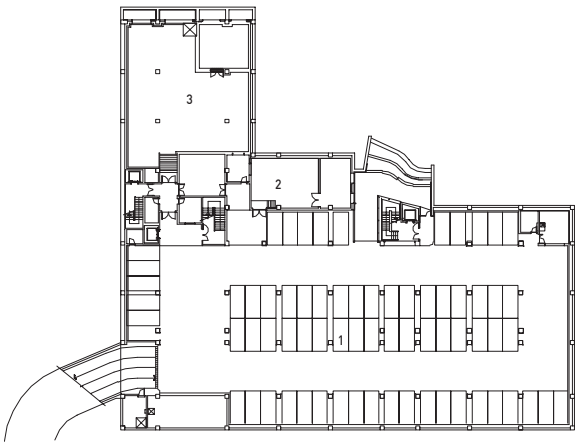
The contour is two 10~25m-steep sloped hills on the east and west side and sloped lot partially. In between the two steep sloped hills, there was valley which is used for the parking lot after construction. Due to site contour, it partially maintains the site slope that result the reduce amount of soil-cutting and the library can provide reading area and culture center as community facility on the hills. These two areas are connected to rest area in third floor through Sky Bridge. The yard is open to public and neighbors through apartments that can enjoy the outdoor nature ambiance of the yard.

Space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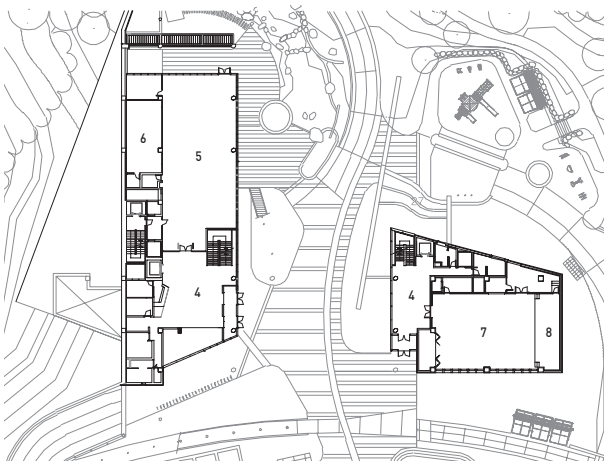
Space for reading area was separated to avoid from noisy areas. Book storage and maintenance space took apart from user spaces to keep and maintain the arrangement of the books. The flows of the users are priorities on accessibility and staff services. Separation of entrance for children library in first floor and the yard has open to public to meet other guest from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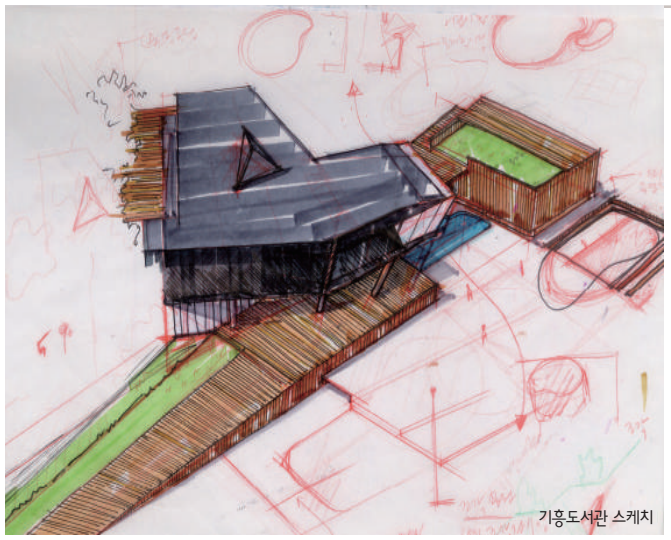
부분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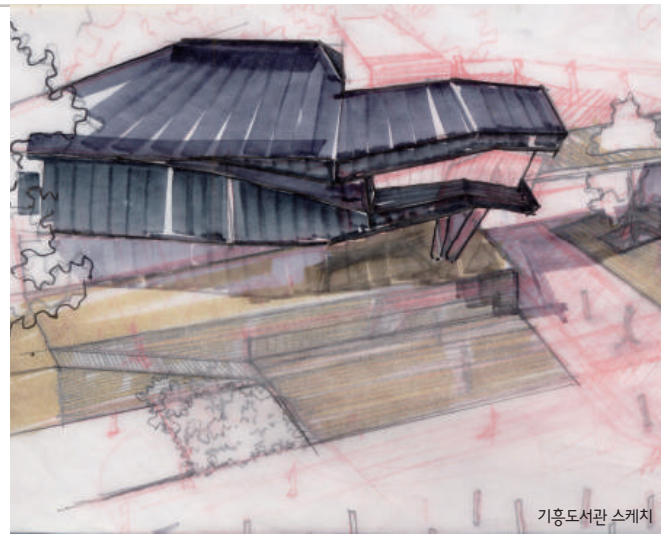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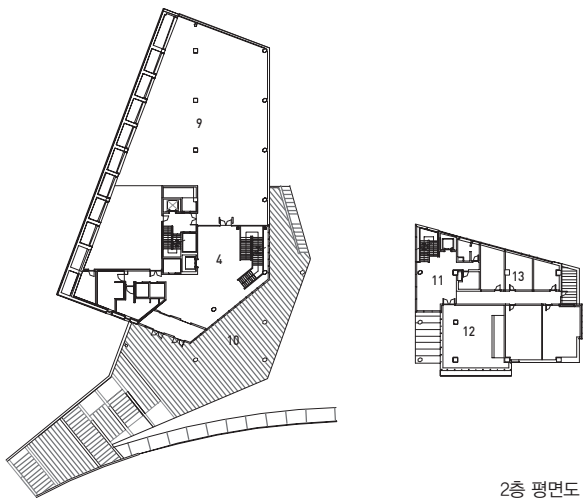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기흥도서관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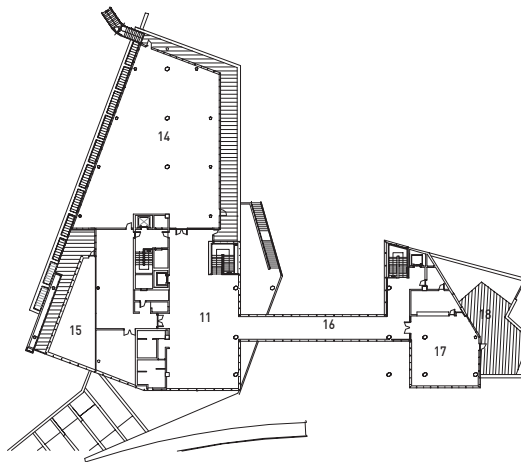

기흥도서관 스케치


부분입면

01_ 주차장
02_ 전기실
03_ 기계실
04_ 로비
05_ 유아열람실
06_ 이야기방
07_ 다목적실
08_ 무대
09_ 종합자료실
10_ 진입데크
11_ 홀
12_ 시청각실
13_ 동아리방
14_ 일반열람실
15_ 사무실
16_ 연결복도
17_ 식당
18_ 옥상정원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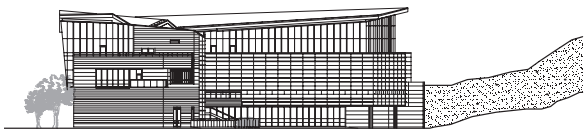
부분배면



2층데크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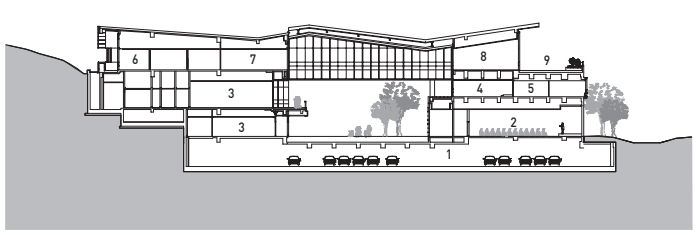

주동 2층 로비


종합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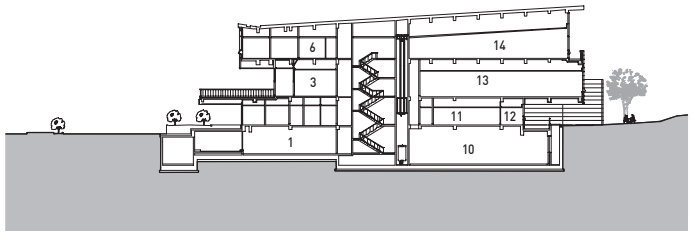

일반열람실


유아열람실

01_ 주차장
02_ 다목적실
03_ 로비
04_ 시청각실
05_ 문화강좌
06_ 사무실
07_ 홀
08_ 식당
09_ 옥상정원
10_ 기계실
11_ 유아열람실
12_ 이야기방
13_ 종합자료실
14_ 일반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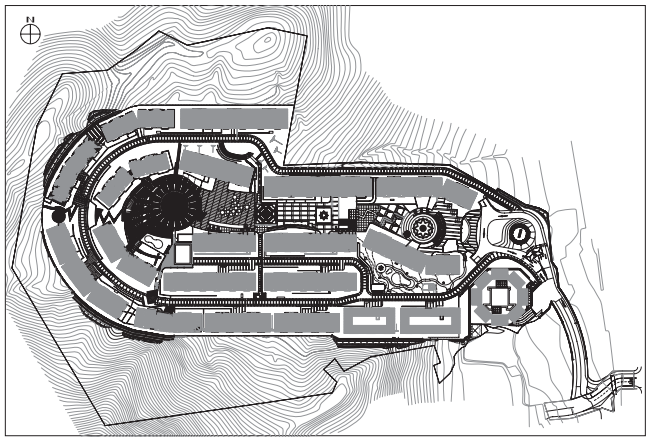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헤리티지
The Heritage

Project Team | Park, Sang-joon / Park, Byung-min / Lee,Jin-young / Jung, Jo-il / Kim, Ki-ho / Kim, ju-sang + Kim, Hyung-yeon / Lee, Joo-ho / Woo, Hyung-min / Nam, Chang-woo / Kim, Seong-wook / Heo, Yu-ri / Jeon, Dae-sub / Hwang, Sun-kyung
Client | Seowoo Roiel
Location | Seongnam-si Bundang-gu Geumgok-dong 305-2
Site Area | 96,738m^2 | Building Area | 19,338m^2
Gross Floor Area | 128,397m^2 | Building to Land Ratio | 19.99%
Building Scope | B2-4F |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Apec Engineering Group
HVAC Engineer | GunYang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Kuksong Munwha Engineering
General Contractor | Samsung Heavy Industries Co. Meister Construction Co.
Finishing Materials | Marble, Clay brick, Spanish roofing tiles
Photographer | Kim, Sung-han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한현호 | 정회원 지엔아이 종합건축사사무소(주) **+ 김성한** | (주)건축사사무소 아크바디
Architects | **Han, Hyun-ho, KIRA + Kim, Sung-han**



전경

단순한 시니어들의 거주만을 위한 주거단지가 아닌 '보다 행복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주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하여 넓은 광장과 테마정원을 구성한 더 헤리티지는 보바스기념병원과 인접한 경사지에 392세대의 건강형 타운하우스 및 Assisted Living, 12,000m^2의 커뮤니티시설, 288베드의 전문요양시설로 구성되어 국내 최초로 연속케어형 의료, 주거복합시설(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의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녹지로 위요된 대지는 진재산을 뒤로하고 광교산을 바라보는 녹지축을 확보하면서 9가지 테마정원이 조성되어 전원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쾌적하게 계획되었다.
광장 및 테마정원 하부에 경사를 따라 7단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시설은 피트니스, 레스토랑, 수치료센터, 생활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되었다. 커뮤니티 각 부분은 지하공간이지만 직접 테마정원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었고 주거동에서도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지 전체는 실내외 전 공간에 걸쳐 고령자와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성을 고려한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노인복지주택은 기존 주택보다 천장고를 높게 계획하고 각 실의 크기를 키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계획되었고 세대의 모든 창호는 로이유리 등을 사용하여 세대에서의 열손실을 최소화 하였다.
단지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하여 난색계열의 대리석을 주조색으로 하고 옐로우톤의 벽돌, 사암을 시용하였고 밝은색 스페니쉬기와를 얹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Proposed senior citizen residences pursue the concept of more happy and valuable life providing huge plaza and theme parks.
'The heritage' is located near Bobas hospital and designed as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which will have 392 unit town houses, assisted livings, 12,000m^2 community center and 288 bed nursing home.

Containing 9 different theme parks, the site is located in the center of green axis of Jinje mountain and Gwanggyo mountain which will allow green life to senior citizens.
Proposed community center which facilitates natural ground contour near plaza and theme park will have 7 levels of fitness center, restaurant, clinic, and life support center. Underground community center will have direct access to each theme parks as well as residences.

The residences are designed and complied with barrier free design for senior citizen. Senior citizen residences have higher ceiling and bigger room size to provide comfort life and each unit has Low-E glass window system to minimize heat lose.

Along with space layout, architectural material selection such as warm color marble, yellow color bricks and bright spanish roofing tiles also will help the concept of happy and valuable green life balancing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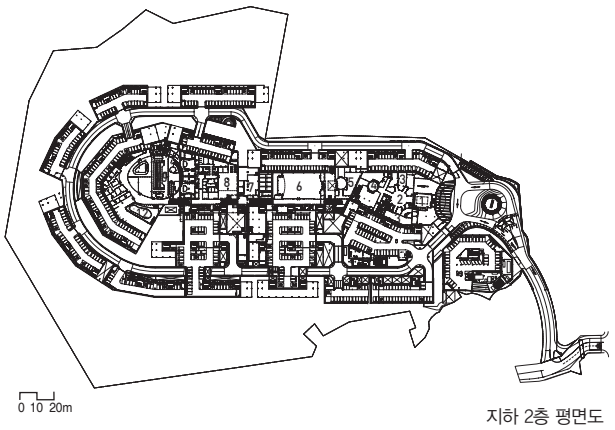


커뮤니티주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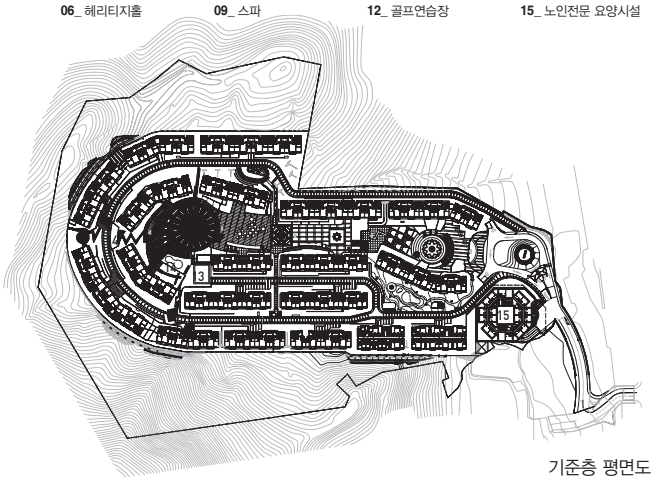


마로광장을 바라봄

01_ 로비
02_ 아트리움
03_ 생활지원센터
04_ 홀
05_ 도서관
06_ 헤리티지홀
07_ 레스토랑
08_ 에스테틱
09_ 스파
10_ 수영장
11_ 휘트니스클럽
12_ 골프연습장
13_ 게이트볼장
14_ 선큰
15_ 노인전문 요양시설



지하 2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헤리티지홀 앞 전경


가든파티장


가든파티장



생활지원센터로비

01_ 로비
02_ 아트리움
03_ 홀
04_ 도서관
05_ 헤리티지홀
06_ 레스토랑
07_ 에스테틱
08_ 스파
09_ 휘트니스클럽
10_ 주차장



0 10 20m

입 / 단면도


전문요양시설 중정


헤리티지홀 로비


휘트니스센터 내 수영장


헤리티지홀


커뮤니티 메인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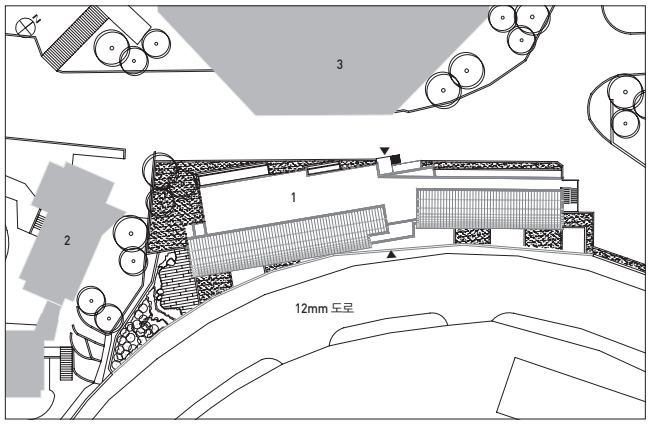

전문요양시설 엘레베이터홀

국민대학교 기숙사

Dormitory for Kookmin Univ.

정동명 – 정희원 (주)지원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Cheong, Dong-myeong, KIRA

Project Team | Ko, Sam-kyu/ Lee, Woo-jung /Cho, Jong-youn/ Jang, Kwoan-young
Client | Kookmin Univ.
Location | Seoul Seongbuk-gu Junglung-dong 861-1
Site Area | 119,773.00m^2 Building Area | 469.57m^2
Cross Floor Area | 3,535.27m^2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Ssion Structural Inc.
HVAC Engineer | Hanil Mech Co.,Ltd
Building Scope | B3-5F
Electrical Engineer | Electrical Design Hyeobin Co.,Ltd
General Contractor | Ssangyong E&C
Finishing Materials | Stucco Fin. on Exterior Insulation System
System Titanium Pannel
Photographer | not disclosed Cost | not disclosed



01_ 기숙사 02_ 영빈관 03_ 체육관 배치도



남측전경



동측전경

기숙사 D동은 국민대학교 부지 맨 동쪽 끝 오래된 체육관 앞의 좁은 짜투리 땅에 지어졌다.
북한산을 배경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국민대학교의 부지가 겨우 160,000㎡이고 여기에 16,0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건축물들을 건립하기에는 턱없이 좁은 부지이다. 더구나 자연경관지구라 건물의 높이도 5층까지만 허용된다.

비록 짜투리 부지이지만 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선택한 부지라 건축주의 단호하고 유일한 주문은 최대한 많은 인원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부지와 인접도로 간의 3개층 정도의 레벨차를 이용해 지하 3층, 지상 5층 모두 자연채광이 가능한 거실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었다.

기존의 기숙사(A, B, C동)와 인접한 영빈관과의 형태적 맥락을 찾지 않을 수 없었고 지하층을 지하층처럼 보이도록 3개층 높이의 옹벽을, 옹벽이 애초 있었던 자리에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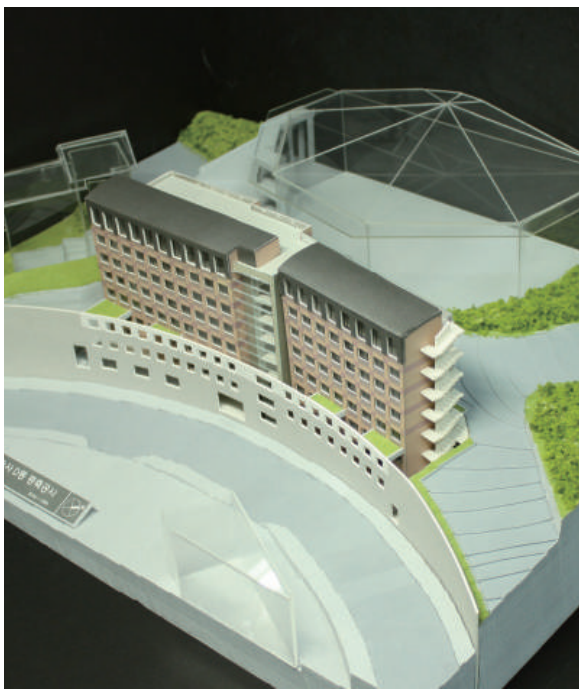
Dormitory Building D was built on narrow remnant land in front of an old gymnasium to the east end of Kookmin University.
The area of the ground for Kookmin University that is proud of outstanding beauty on the background of Bukhansan is merely 160,000 students and unreasonably narrow to construct buildings for about 16,000 students and faculty. Moreover, as it is designated as a natural scenic area, height of buildings is allowed for up to 5 stories only.
Though it is a remnant land, as it has been selected with difficulty under the situations of considerable shortage in land, determined and only requirement of the owner is allowance for accommodation of a lot of persons as much as possible.
It was possible to plan the entire 3 basement floors and 5 aboveground floor as resident space allowing natural lighting taking advantage of 3 stories of level difference between the land and it's abutting road.
It was unavoidable to seek for context in pattern with the neighboring guest house and the existing dormitory buildings (A, B, C) and to build the retaining wall with 3 stories in height at the original position so as to allow the basement floor to be shown as like a ba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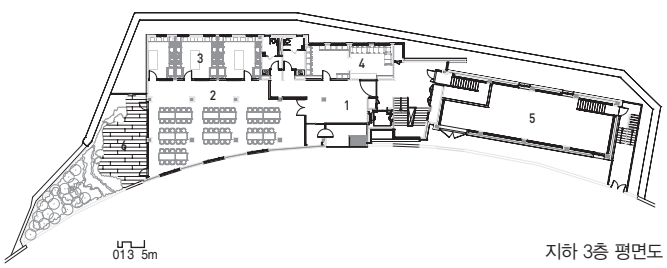
북측전경


서측 커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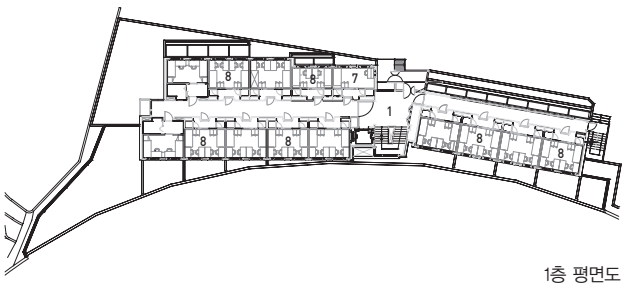

서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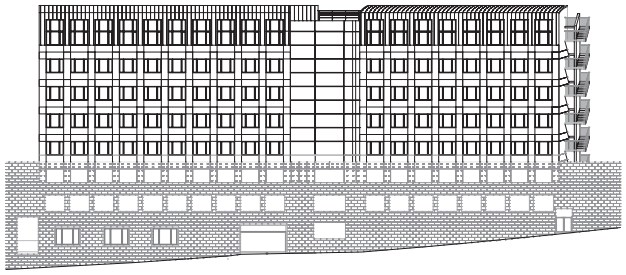


01_ 홀
02_ 식당
03_ 주방
04_ 세탁실
05_ 기계실
06_ 데크
07_ 사감실
08_ 관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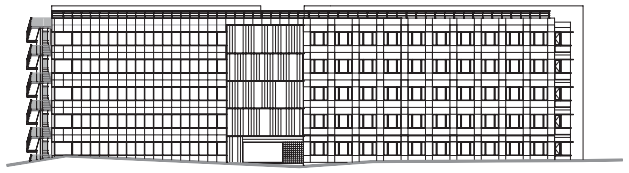


지하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남측입면도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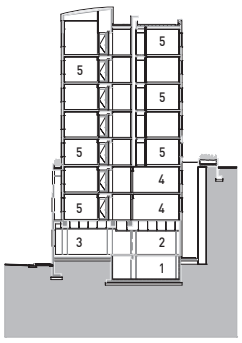


남측 커튼윌



중앙홀

01_ 기계실
02_ 주방
03_ 식당
04_ 독서실
05_ 관생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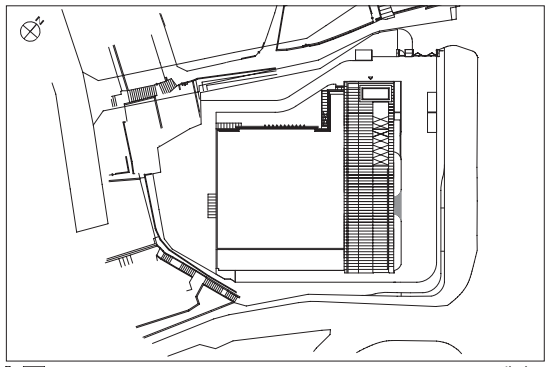
관생실

한국전력공사 154kV 현저변전소

154kV Hyeon-jeo Substation, KEPCO

최홍구 – 전이희원 (주)도담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Choi, Hong-gu, KIRA

Project Team |Kwon, Kee-don/ Lee, Jung-jae/ Park, Kyung-ho
Client |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Location | Seoul, Seodaemun-gu, Hyeonjeo-dong, 1-4
Site Area | 4,315.90m² Building Area | 1,779.55m²
Gross Floor Area | 3,897.04m² Building to Land Ratio | 41.23%
Floor Area Ratio | 51.00% Structure | R.C +S.C
Structural Engineer | Total Structure Engineering
HVAC Engineer | Shin-Jung Mechanical Engineer Office
Building Scope | B1-2F
Electrical Engineer | not disclosed
Photographer | Dodam Architecture & Associates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투시도


모형



전경

'변전소'라고 하는 건물에 대한 첫인상은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혐오시설이라며 내가 사는 주변에 지어지기를 꺼려하는 건물 중 하나이다.

그래서 본 건물의 계획단계에서 가장 우선 우려되었던 사항 역시 "혐오감을 주지 않고, 주변에 대해 이질적이지 않은 건물의 모습을 보여주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시작하였다.
변전소라는 건물의 특성상 배치, 평면과 단면은 설계자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대부분 부지에 대한 배치 그리고 실 구획과 단면의 층고 등은 설치되는 장비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면과 단면 보다는 건물의 입면디자인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화강석 또는 드라이비트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변전소와는 다르게 도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주재료로 거부감 없는 입면을 구성하고자 했다. 여기에 세라믹 패널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 두가지 재료의 색상의 차이로 인한 외관의 변화를 주었고 주변 서대문독립공원의 건물 외벽의 벽돌쌓기 문양을 본떠 변전소 건물 외벽의 주 패턴으로 사용하였다.
부지와 경사진 전면도로와의 고저차가 가장 큰 부분은 약 6m이상이 된다. 이 높이 차이를 극복하고자 계획했던 플랜트 박스와 주변 아파트 및 고지대 주민의 시선을 고려한 옥상정원계획이 예산 및 관리의 문제로 인해 실시 설계 중 제외 된 부분은 설계자로서 몹시 아쉬운 부분이다.
현저변전소의 준공으로 인해 변전소 아니 기타 이와 유사한 산업시설 등이 특별한 건물이나 꺼려지는 건물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어도 되는 건물이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How does the image of 'substation' strike you?
Even though most people would acknowledge that substation is necessary, they wouldn't want the substation facility to be set near their house.

Concerning this negative perception about the substation, we started off designing by thinking 'Let's present a new concept of substation facility, which is pleasant and friendly!'
Due to the nature of substation, architect has a narrow range of empowerment. Most of placement, district division, and cross section are determined by facilities to be installed. So we spent more of our time designing building elevation scheme rather than floor and sectional ones.

To make elevation of substation familiar, we decided to apply aluminum composite panel, which we can easily see in the city, as main construct material instead of conventional material such as granite and dryvit. Additionally by using ceramic panel along with aluminum composit panel, we varied color of exterior, making the building looks fantastic externally. We used the Brick Pattern derived from nearby Seodaemun-independent park for the exterior.
The highest difference of elevation between the building site and fronting road is about 6 meters. Being architect, it is sorry that the plant box which was devised to lessen this elevation difference and that the Rooftop garden for landscaping were ruled out because of the exp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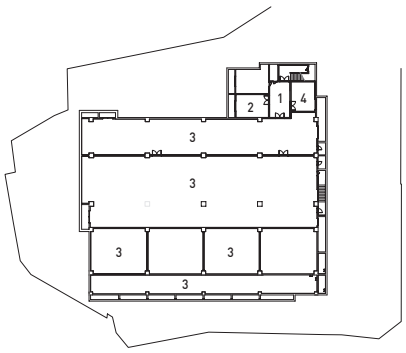

전경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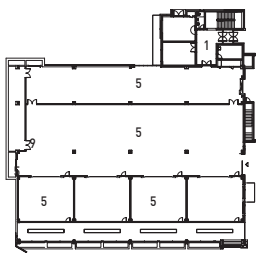

측면판넬상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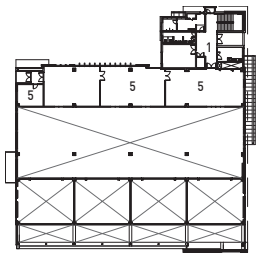
01_ 홀
02_ 창고
03_ PIT
04_ 물탱크실
05_ 변전설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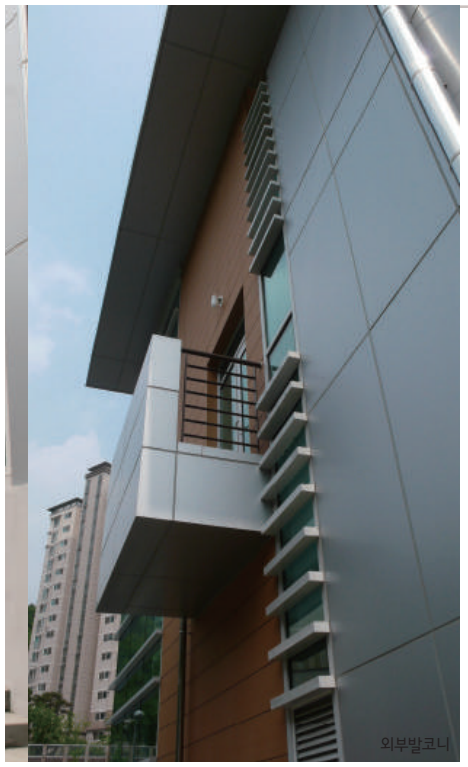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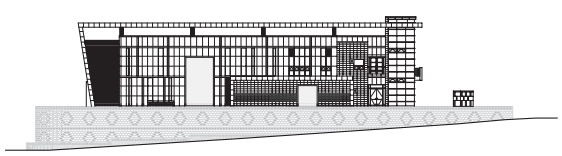

외부발코니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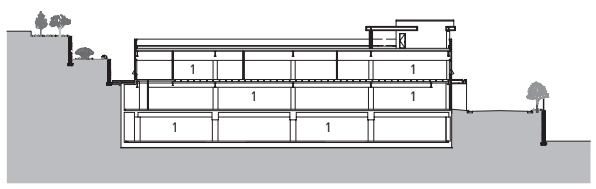

홀


입면상세

01_ 변전설비실



정면도



주단면도

건축 초대석

Invitation to Achitecture



유 승 정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과 졸업
서울형사 / 민사지방법원, 마산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대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장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건축의 사회적 지평확장을 위해

이제 시대와 사회는 전문화와 함께 열린사회, 통합화, 대중화를 도모하며, IT의 발전은 그 개방, 참여, 공유의 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또한 위계적 사회 체계를 넘어 본질적이고 수평적인 평등과 협력, 소통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근래 건축 또한 기술이나 건축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길, 환경과 녹지, Landscape, 지속가능성 등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강제적 규제에서 재량적이고 창의적인 틀을 수용하고, 각 지역민의 삶과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건축사들도 그를 책임 지고 관리 할 역량은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제1의 건축 공동체인 본 협회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사회적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극적 소통을 도모하여 그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히며 개별을 넘어 공론적 건축의 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직능적 업태로 건축설계는 '법무서비스'이다. 현실적으로는 건축 관련 소송의 판결, 조정, 조사 및 감정 등의 최종 업무와 함께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 장차 지식재산권에이르기까지 실제로 그 관련성이 적지 않다.
또한 가족구성원 중 건축 전공인이 있어 건축에의 관심이 높고, 건축법에 대한 연구이력이 깊은 법조인 한 분을 택하였다.

박찬정 : 안녕하세요. 공사다망하실 텐데 이리 '건축사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곤 :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승정 : 개인적으로 건축분야의 전문가인 건축사들과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건축전문분야에 끼어드는 것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김 : 오늘은 편하신 마음으로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유 : 원래 법률전문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건축에는 비전문가입니다. 제가 건축전문분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박 :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이 이제 사회 속으로 성큼 걸어 나왔으며 또 저희들은 너무 나무만 보았지 사회 속에 있는 건축이라는 숲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전문가이자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이신 유 법원장님의 평소 생각이 우리에겐 곧바로 문화로서의 건축이라 믿습니다.

김 : 요즘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분야가 서로 소통내지는 통섭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축문화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 : 사회가 점점 전문분야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전문분야의 전문인들이 다양한 사회에 더 다가가는 동시에 각자의 전문성을 더 객관적으로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려야한다고 믿습니다. 아마 건축사들 역시 기존의 생각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관점으로 일반인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건축문화를 만들어야하며 그 수단으로 인문학적인 이야기와 스토리로 건축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박 : 건축사보다 더 전문적인 핵심을 찔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유 : 부모님 모두 생존해 계시는데, 연세가 80이 넘었으며, 형제로는 누나 1명,

남동생 1명이 있으며, 처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저의 가족구성원입니다.

김 : '역동의 시절'을 살아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살아오신 주거 형태는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유 : 제가 한국전쟁이후 태어난 세대로서 그 당시 다들 어눌한 초가집에서 살다 이른바 기와집으로 불리는 좀 넓은 한옥에 살다가 70년대 마당이 있는 양옥집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을 졸업하고 법조인으로 바쁘게 살면서 지금까지 아파트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박 : 살아오신 주거 형태 중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삶의 추억이나 경험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유 :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주거형태는 단연 한옥(단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었는데, 무엇보다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서로 잘 알 수 있었던 것이 요즘의 아파트 생활과는 다른 것 같고, 심심할 때면 담장 벽을 타고 돌아다니거나 지붕 위에 올라가 저녁노을을 바라보고 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추억은 우리 집 맞은편에 '떼떼네'라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엄마가 아침이면 잔소리를 많이 하였습니다. 자식들 야단치는 소리, 밥하는 소리, 물 긷는 소리, 가끔 그릇 깨지는 소리 등 일상이 고스란히 노출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살아가는 마을에는 요즈음 말로 경계가 없었습니다.

김 : 정말 재미난 한옥의 정취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직접 건축 행위를 하시거나 옆에서 지켜보신 경험이 있다면?

유 :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무렵 부모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을 건축업자를 시켜 신축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구체적으로 벽과 바닥과 실내공간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막연하게나마 집도 사람처럼 시간과 정성과 비용을 들이며 만들어나가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 살아오시면서 건축 행위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유 : 신축하고 나서 입주식이라 할까 그런 것을 하면서 건축 일에 종사한 분들이 쿵쿵 다져줘야 좋다면서 노래를 부르며 마루를 구르고 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집을 짓는 일도 우리만의 전통적인 스토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 지금의 주거 형태는?

유 : 아파트입니다.

박 : 아파트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의 단독주택과 비교해서.

유 : 아파트는 기능적으로 상당히 현대인에게 편리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사적인 공간이 주어지니까요. 그러나 약간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옛날처럼 서로의 삶을 엿볼 수 없는 것은 확실해요.

김 : 본인이 직접 주거를 선택하셨던 경우 그 선택의 기준은?

유 :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87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우선 조용하고, 서울 시내로서는 비교적 공기도 좋고, 무엇보다 예쁜 유치원이 바로 앞에 있어 당시 자녀들이 유치원 다니기에 좋겠다 싶어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지하철 2개 노선이 지나가 교통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집값이 강남 보다 많이 낮은지 의문입니다.

박 : 아파트주거에서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을 지적한다면?

유 :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외국아파트를 보면 1층에 공동의 사랑방 같은 홀을 두고 의자와 사진들이 걸려있는 것이 특이하였습니다. 아파트실내는 결국 배치를 바꾸는 것이라면 옛날 전통 주거처럼 현관입구에 아버지 방을 사랑방처럼 만들어놓고 손님들이 오면 거실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군요.

박 : 혹시 인상적이었거나 기억에 남는 외국 도시나 건축은?

유 : 개인적으로는 베니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정답습니다. 특히 종루에 올라가서 베니스의 전망을 바라볼 때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서로 이마를 마주하며 서있지만 위에서 바라보는 건물들이 수채화처럼 아름다웠어요. 수로와 골목이 열을 지으며 서있는 건축물이 이색적이었어요. 그러나 수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가까이 보는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참 아내와 조용히 걸으며 맛 집을 찾아갈 때 두 사람이 스쳐 지나기가 버거운 좁은 골목길에서 잊어버린 고향의 정취를 느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좁은 골목길에 기대서 있는 작은 음식점에서 돼지뒷다리를 절인 고기를 곁들여 먹었던 추억이 떠오르는 군요.

김 : 건축사의 직능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유 : 설계, 감리가 주된 것 아닐까요.

박 : 혹시 도시설계나 공공디자인, 경관설계 등의 업무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은 없구요?



유 : 네. 미안합니다만 아직은 잘 모르고 있네요.

박 : 앞으로는 건축이 그렇게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다룰 수 있음을 아시고 다른 분들께도 널리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 :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 : 건축 관련 분쟁이나 소송 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유 :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는 경우, 특히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서류로 정하여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쌍방의 주장이 갈리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기성고비율 산정도 어려운 것 같고,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다툼이 많습니다.

김 : 그 분쟁이나 소송을 줄여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유 : 계약 내용을, 추가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자 발생의 방지 및 기성고비율 산정 등을 위하여도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감리 활동 및 감리일지의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 건설회사나 광고회사의 분양광고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지, 혹시 부족하다면 개선이나 보완 되었으면 하는 점은?

유 :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허위라고까지야 말하기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 과장 광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능 위주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실 자산적가치가 그런 것만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저 나름의 뚜렷한 다른 관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얘기를 더 듣고 싶네요.

김 : 건축을 기술적 종합만이 아닌 창작 행위로 보시는지?

유 :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건축이 많이 대중화되어 문화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박 :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유법원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건축은 자본재, 재화의 가치로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박 : '좋은 건축'이란 어떤 것이라 보시는지?

유 :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오래 가거나 오래 쓸 수 있는 건축이 좋아 보이는 게 많고 그리 인정받는 것 같아요. 단순한 생각입니다만, 일단 어떤 노력이나 비용을 들인 만큼 오래 쓴다면 환경 문제를 포함하여 그 효용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싫증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것, 처음 건축한 사람의 혜안이 느껴지는 그런 건축물에선 알 수 없는 어떤 힘과 매력을 느낍니다.

박 : 정말 단순하지만 사실적 혜안이십니다.

김 : 그런 건축, 환경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은?

유 : 아무래도 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보다 나은 의식이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그 동안 저도 빨리 짓고 개발, 성장함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요즈음 상황을 보니 우리가 모르는 환경이나 기후 문제 등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근본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젠 보다 신중한 접근과 보다 깊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이나 건축 같은 긴 수명의 것에는 무조건 싸고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님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 : 만약 건축하실 기회가 생긴다면 제일 앞세울 가치나 희망사항 은?

유 : 아직은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제적 가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일부인 듯 한 것, 인간을 포근히 감싸주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박 : 저희들도 그런 자연주의, 인간주의 가치를 지향하지요.

김 : 건축/도시가 환경이나 사회문제의 핵심사항의 하나로 보신다면 '시민건축포럼' 같은 것이 결성된다면 참여 의사는?

유 :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박 : 올 5월 16일 당 법원에서 한국서도소리보존회 산하 가례헌 운영자이신 박정욱 선생을 초청하여 문화예술아카데미를 개최하셨다는데, 여건을 보아 '건축아카데미'도 개최함이 어떠실지요?

유 : 문화행사로서 반응이 좋았지요. 기회가 된다면 진짜 그리 한 번 해 볼까요?

박, 김 : 적극 호응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박 : 건축을 짓는 과정 관리와 함께 어떻게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유 :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법적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 : 물론 개별 자산이지만, 한편으론 공공 자산의 의미도 있지요.

유승정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유승정 법원장은 다양한 공직업무를 소화하는 법원장으로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정확, 신속, 친절한 사법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분으로 본 '건축사지'와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셨다. 소탈한 품성을 갖춘 분이지만 법조인의 품위가 온몸에 서려있는 우리사회의 선비(법원 직원들의 진솔한 표현)이신 유승정 법원장님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소개함으로서 건축문화에의 초대와 공감을 통해 건축의 사회적 지평을 넓히고 싶었다. 간단한 중식과 함께 가벼운 대화와 부드러운 분위기조성 후 법원장님의 직접적인 에스코트(?)를 받아 본 취재 차량을 본 청 현관 정문에 주차케 하며 평소 여러 단계의 검사 과정을 생략 한 채 곧장 법원장실로 안내 받았다. 법원장님의 지시나 교육 덕분인 지는 모르나, 관계 모든 직원의 깍듯하고 정중한 대우를 받으며 편안히 촬영이나 녹음 등 취재를 원만히 마치고 보니 건축사가 자주 대하는 관련 부서 공무원과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다 인간적인 믿음이나 유대감이 일어남은 나만의 느낌만은 아닐 듯 싶다.

인터뷰 및 정리 / 박찬정 , 김희곤



유 : 아! 그렇겠군요. 공, 사가 함께 관리한다면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 그룹이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제도적 틀을 만들어 보시죠.

김 : 살아오시면서 특히 법원장님의 가슴에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추억이 살아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유 : 아주 젊은 시절의 추억이 하나 있어요. 아마 70년대 중반 정도로 기억 되는데요. 제가 고시공부를 하기 위해 대구주변 은해사의 작은 암자를 찾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아마 7개월 정도 생활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최근 다시 찾아보았을 때는 인공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조금 안타까웠지만 그 당시는 천혜의 자연풍광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처음으로 자연이 또 다른 어머니 품속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온천지가 까만 밤 촛불에 의지해 공부할 때 그 순간은 무아지경이었어요. 특히 비오는 여름날 방바닥에 누워 빗줄기를 바라보면 자연이 연주하는 거대한 교향악을 듣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박 : 만약 원장님의 자식이 미래 건축사가 되어 법원건물을 설계한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지?

유 : 생각해보지 않는 일이라서. 현재의 법원건물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있어서 함부로 기능적인 공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미래에 다시 짓는다면 지금보다는 친근하고 배려하는 이미지의 건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결코 법원의 고유한 품격만은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 : 법원의 품격이란?

유 : 지나치게 자유곡선적인 건축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위압적이 않는 법위에서 안정적이었으면 합니다. 예로 로마 바티칸의 성베드로성당의 원형회랑처럼 전체적으로는 균형미를 갖추고 있으면서 성모님의 품처럼 원형으로 팔을 벌린 형태가 관광객들에게 아늑한 어머님의 품속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그런 품격이 느껴졌으면 합니다. 법정도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품격을 흐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 : 상당히 건축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박 : 끝으로 사회나 정부, 그리고 건축사에게 바라시고 싶으신 것은?

유 : 참, 제가 언급하기엔 조심스럽네요. 마지막이라고 하시니… 결국 원칙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바람직한 방향과 기준'이란 측면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 잘 관리했으면 하구요, 사회는 각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이나 그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여 함께 삶의 질을 높히는 공동체성 함양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개별적 업무만이 아니라 보다 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안목이 부족한 탓이겠지만, 아직은 그러한 사회적 역할은 잘 눈에 띄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전문가로서 사회문제의 급소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법조인인 저희들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결국 미래를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건축과 환경을 이끌고 갈 전문가들이기에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꾸준히 연구해 가는 존경 받는 건축사 되시길 바랍니다.

박, 김 : 귀한 시간 내주시고, 진솔한 말씀 감사합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524호

2011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건축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11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장

<table>
<tr><td>1.시험일자 및 장소</td><td colspan="4">가. 시험일자 : 2011. 9. 4(일)
나. 시험장소 : 2011. 8. 10(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 • 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td></tr>
<tr><td rowspan="5">2. 시험과목, 배 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 안 지 작성방법</td><td>시 험 과 목</td><td>대지계획</td><td>건축설계 1</td><td>건축설계 2</td></tr>
<tr><td>배 점</td><td>100점 만점</td><td>100점 만점</td><td>100점 만점</td></tr>
<tr><td>시 험 시 간</td><td>09:00 ~ 12:00 (3시간)</td><td>13:00 ~16:00 (3시간)</td><td>16:30 ~19:30 (3시간)</td></tr>
<tr><td>출 제 범 위</td><td>●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td><td>●평면설계</td><td>●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td></tr>
<tr><td>답 안 지 작 성 방 법</td><td colspan="3">●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td></tr>
<tr><td>3. 응시자격</td><td colspan="4">가.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td></tr>
<tr><td>4. 응시원서 접 수</td><td colspan="4">〈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가. 기 간 : 2011. 7. 4 ~ 7. 11 (시작일 09:00 ~ 24:00, 평일 00:00 ~ 24:00, 마감일 00:00 ~ 18:00까지)
나.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다. 기 타 : 응시수수료(80,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 • 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td><td colspan="4">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11. 11. 4(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 • 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나.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11. 11. 9 ~ 11. 11 (09:00 ~ 18:00)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td></tr>
<tr><td>6. 응 시 자 지 참 물</td><td colspan="4">가.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나.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 규격초과 제도판은 시험실 반입 및 사용 불가함)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
※ 중 • 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보조책상지급)함.</td></tr>
<tr><td>7. 주의사항</td><td colspan="4">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다. 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무단열람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
마. 일반계산기가 아닌 공학용전자계산기는 반드시 리셋을 한 후 사용가능하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원서의 기재오기 •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 •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 •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10)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중남미문화제 지상 중계

'멕시코건축사대회 및 UIA 기후변화포럼'에 참석하기 전 서울대 라틴연구소 김창민 소장과 이성훈 교수, 당시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필자(김희곤 · 건축사지편찬T/F위원회 위원)가 건축사협회 회장실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어렵사리 라틴아메리카의 중심국가인 멕시코 방문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으며 하는 바람이었다.

건축사편찬T/F위원회에서도 가칭 '건축의 지평을 넓히려면'이라는 화두로 고민하는 시점에 건축 밖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진행되었던 중남미문화제의 주옥같은 강연 자료를 건축사지에 초대하기로 하였다.

중남미문화제에 초대된 인사로는 멕시코건축사협회 회장을 지낸 Lizandro de la Garza Villareal, 주한 멕시코대사관 참사 Mauricio Torres, 페루대사 남편이자 건축사인 Diego del Risco를 비롯한 건축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이 이어졌다.

첫 번째 강연자로 중남미 문화지킴이로 알려진 이복형 중남미문화원 원장이 나섰다. 이 원장은 오랜 시간 동안 중남미 대사를 지낸 중남미 전문가로 영어와 스페인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중남미문화에 대한 열정이 화석처럼 굳어있는 분이었다. 학문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중남미문화를 '중남미 문화의 이해'라는 폭넓은 주제로 시원시원한 목소리의 달변까지 더해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우리에게 아직은 친숙하지 않은 중남미문화를 가슴으로 느낄 정도의 따뜻한 체험담으로 중남미는 발견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던 위대한 세계유산임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였다.

두 번째 강연자는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김창민 소장이 '스페인어권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인종을 중심으로 중남미문화가 어떻게 지배자의 잉크에 철저하게 물들어갔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진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세 번째 강사 역시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박병규 교수로 '라틴아메리카 문화적 자의식과 문화이론'이란 주제로 부드럽게 이어나갔다. 박 교수는 우리에게 친숙한 사진들을 중심으로 중남미문화의 주제를 풀어나갔다. 특히 멕시코시티의 맥시코 대신전의 사진 한 장으로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 장의 사진에 멕시코의 3색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아스테카문명을 짓밟고 스페인 식민문화의 상징인 성당이 서있고 그 위에 멕시코의 현대문명인 고층빌딩이 아픈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서있었다.

마지막 강연자로 국민대학교건축학과 박길룡 교수의 '중남미 현대건축문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랜 시간 중남미 현대건축을 답사한 사진자료와 연구를 중심으로 중남미 현대건축문화를 30분의 시간에 총천연색으로 담아내었다. 중남미의 현대건축을 지배자의 문화에서 벗어나 그들의 고유한 문화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건축을 수체화의 감성으로 소개하였다.

필자가 스페인에서 유학한 정회원건축사라는 희소성보다 중남미를 소개하는 무대가 건축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단절감이 중남미 문화제를 기획하게 만들었다. 개인과 사회, 국가와 세계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건축은 이제 건축전문단체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는 온실안의 화초가 아닌 시대로 변해버렸다. 인문학이 인문학의 울타리를 벗어던지고 건축사를 강사로 초대하였듯이 건축사집단도 인문 학자를 초대하여 그들이 바라보는 문화를 들어야 하는 시대로 변해버렸다.

그동안 영어권중심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외교라인이 모아졌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었지만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도 세계중심국가로 당당하게 도움닫기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라 믿었다. 당장 시급한 UIA총회유치에서 UIA회장단에 대한민국건축사를 임원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륙과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인 과제다. 이슬람권인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지역, 중남미 지역을 제외하고 국제무대를 상상할 수 없는 시점이지만 더욱이 국내건축계도 건축이란 틀 안에서 건축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건축이 사회경제시스템과 문화적인 뻘 속에서 피어올린 연꽃임을 잊지말아야함을 중남미문화제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소통과 통섭이 일상의 주제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바라보듯 건축계의 모습을 사회의 거울로 다시 바라본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편집자주>



이복형 중남미문화원 원장



Lizandrode la Garza Villareal 멕시코건축사회회장



Mauricio Torres 주한멕시코대사관 참사

중남미 문화와 문화론

Contours of Latin American cultural theory

중남미 문화의 복잡성과 다양성

중남미라는 대상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론적인 접근일 것이다. 일찍이 핸슨(Hanson)이라는 과학철학자가 '관찰의 이론 의존성' 이론에서 설파했듯이, 여행과 같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도 이론적 지평 위에 올려놓아야 비로소 의미가 명료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현대 중남미에서 전개된 문화론을 간략하게 논함으로써 중남미에 접근하는 일종의 준거 틀을 제시하려고 한다.

사건 중심의 역사 서술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연대가 둘 있다. 1492년과 1810년이다. 오랜 옛날부터 원주민(indio)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아스테카, 마야, 나스카, 잉카 문명 등을 일궈냈다. 그러나 1492년 콜럼버스의 '도착'으로 역사의 굴절을 경험하고,[1] 1810년 독립이라는 커다란 변혁의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멕시코시티 중심부의 소칼로 광장을 둘러보면 이러한 시간의 성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중남미 도시의 중심부 광장이 대개 그렇듯이, 이 광장 정면에는 메트로폴리탄 성당이 자리 잡고 있다. 식민시대에 세워진 이 성당은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이다. 이 성당의 모퉁이를 돌면 문득 푹 꺼진 땅 아래로 유적지가 눈에 띈다. 바로 1521년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에게 멸망된 아스테카 문명의 대(大)신전인데, 정복 이후 완전히 망각되었다가 1978년 전력 공사를 하던 인부가 발견했다.

대신전 유적지로 내려가, 사선으로 겹겹이 늘어선 담벼락(사실은 누차에 걸쳐 축조된 피라미드의 단층) 사이로 미로처럼 뚫어놓은 통로 중간쯤에서 서쪽을 향해 카메라 앵글을 들이대면 지표면의 웅장한 성당과 저 멀리 송신탑을 머리에 얹은 183미터 높이의 고층 빌딩, '라틴아메리카 타워'가 한 프레임에 들어온다. 지표면 아래의 원주민 문명 유적지, 식민시대의 유산으로 지상에 남겨진 기독교

1) 콜럼버스의 1492년 항해를 가리켜 흔히 '발견'이라고 한다. 그러나 '발견'이란 서구중심적 시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침략'으로 인식하고 있다(엔리케 두셀, 『1492년, 타자의 은폐』, 박병규 옮김, 그린비, 2011, p. 111.). 서구인도 원주민도 아닌 필자는 중립적인 용어 '도착'으로 표현한다.



필자 : 박병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교수
by Park, Byong-kyu

박병규 교수는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중남미문학을 공부했으며, 멕시코국립대학교(UNAM)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남미 문화와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각국을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를 결합한 지역연구, 문화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남미 문학, 카리브 해 지역연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저역서로는 『환멸의 세계와 매혹의 언어』(공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불의 기억』, 파블로 네루다의 『파블로 네루다 자서전: 사랑하고 노래하고 투쟁하다』, 엔리케 두셀의 『1492년, 타자의 은폐』 등이 있다.


멕시코의 대신전에서 바라본 '메트로폴리탄 성당'과 '라틴아메리카 타워'


근거리에서 본 '라틴아메리카 타워'

성전, 자본주의와 근대화의 상징처럼 하늘로 치솟은 고층빌딩. 이것은 중남미 역사가 공간적으로, 통시적으로 구현된 풍경이다.

역사라는 시간의 공간화 · 통시화란,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의미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은 고대 원주민문명의 유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의 치아파스, 과테말라의 산간지대, 페루와 볼리비아의 안데스 산맥, 칠레와 아르헨티나 접경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생존을 영위하고 있다. 식민시대가 남긴 유산으로서 가톨릭 종교, 스페인어 · 포르투갈어 · 프랑스어 · 영어, 아프리카 노예, 인종차별은 현재도 중남미 문화의 고유성을 대변한다. 그리고 19세기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근대화는 브라질리아라는 모더니즘 도시, 베네수엘라의 키네틱 아트, 멕시코시티의 토레 마요르(Torre Mayor), 파나마시티의 트럼프 오션 클럽(Trump Ocean Club)등 중남미 곳곳에 랜드마크로 구현되고 있다.

이런 복잡성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단순화의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인구 특성에 따라서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원주민의 영향이 두드러진 멕시코, 과테말라, 페루, 볼리비아. 둘째는 아프리카계가 눈에 띄는 브라질, 아이티를 비롯한 카리브 해 지역, 셋째는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이 인구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이런 지역적 특성이 문화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혼합문화론

중남미 문화를 혼합 문화, 다시 말해서 원주민 문화와 스페인(유럽) 문화의 혼합으로 보는 견해는 정복 이전에 고대 원주민 문명이 개화한 멕시코, 과테말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에서 두드러진다. 사실 이 지역에는 예나 지금이나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지만 19세기에 독립을 한 이후에도 원주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았다. 독립운동의 주역들은 크리오요(criollo)라고 부르는 백인(스페인계 후손)이었으며, 식민통치가 끝난 다음에도 원주민의 실질적인 지위향상은 없었다. 19세기말 근대화를 추진할 때도 원주민을 미개와 야만의 대명사로 여겨 가능하면 사회정치적 현실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다. 일례로, 1900년 멕시코에서 라틴아메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멕시코의 독재자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멕시코시티 요식업소 종업원을 모두 백인으로 바꾸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원주민을 보고 멕시코를 원주민의 나라라고 인식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뒤바뀐 기점은 1910년 멕시코 혁명이다. 혁명 이후 전 사회계층을 망라하여 명실상부한 국민국가를 건설할 책무를 맡은 엘리트들은 원주민을 국민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서 등장한 문화론이 '혼합(메스티소) 문화론'이다.[2] 이제 멕시코 국민은 원주민과 스페인계 후손의 혼혈인 메스티소 국가라는 것이다. 고대 원주민 문명과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동등하게 민족의 뿌리로 인정하려는 메스티소 문화론은 1920년대부터 멕시코 벽화운동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전파되었다. 정부는 공공건물의 벽을 내주고, 리베라, 오로스코, 시케이로스 등은 고대로부터 현재는 물론 미래의 멕시코 역사를 그렸다. 당시 문맹률은 매우 높았으며,


199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과테말라 원주민 운동가 리고베르타 멘추

2) 김윤경, 「1920년대 멕시코의 메스띠소화(mestizaje) 담론의 의미: 탈원주민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0권 2호, 2009, p. 86.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형 건물의 벽에 그려진 벽화보다 더 좋은 선전매체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혼합(메스티소) 문화론은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메스티소는 엄밀한 의미로 원주민과 스페인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가리킨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원주민은 피정복자요, 스페인은 정복자였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메스티소는 피정복자의 편을 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정복자의 편에 서기도 어렵다. 새뮤얼 헌팅턴은『문명의 충돌』에서 중남미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데,[3] 바로 이러한 혼합 문화론의 내적 모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혼합 문화론은 이론적인 모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배제의 원리로 작용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과거의 원주민과 원주민 문명을 상찬할 뿐, 아직도 궁벽한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원주민의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지위 향상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제 원주민들은 실천적인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테말라 원주민 운동가 리고베르타 멘추는 1992년 불과 28살의 나이에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1994년 멕시코 치아파스 주에서는 사파티스타가 봉기했으며, 2000년에는 에콰도르에서 정권을 붕괴시켰고, 2005년에는 볼리비아에서는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수 있었다.

네그리튀드와 크리올(Creole)론

카리브 해와 이 바다에 인접한 중미 및 남미 대륙, 브라질의 경우는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브라질과 카리브 해에 아프리카계가 많이 거주하게 된 역사적 원인은 식민시대 사탕수수 재배 때문이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맺어 세계를 양분하자 유럽의 신흥 강국으로 등장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은 호시탐탐 신대륙에 진출할 기회를 노렸다. 중상주의 시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는 국가가 공인한 해적을 카리브 해에 파견하여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실어오는 보물을 약탈하였는데, 이러한 카리브 해 해적의 본거지가 후일 네덜란드의 식민지(아루바, 쿠라사오 등), 영국의 식민지(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프랑스의 식민지(아이티, 과들루프 등)가 되었다. 식민지를 구축한 다음, 17세기 중반에서 19세기까지





식민시대 카리브 해의 제당공장의 과거(위)와 현재(아래)의 모습. 사탕수수 사이클은 지나가고, 고된 노역에 시달리던 아프리카계 후손만 남았다.

네덜란드는 브라질 동북부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했으며, 차츰 경작지가 카리브 해로 옮겨가게 되었다.

사탕수수는 재배와 수확에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원주민은 이미 멸절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노동력을 얻고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였고, 이로써 식민시대 브라질과 카리브 해에



쿠바 문화의 혼합성을 표상하는 음식 아히아코. 옥수수, 감자, 고기 등 다양한 식재료를 첨가하여 몇 번이고 끓여먹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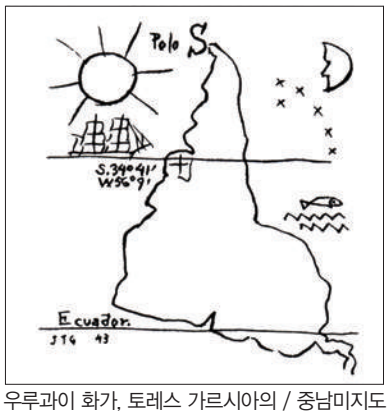
3) 새뮤얼 헌팅턴,『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김영사, 1997, p. 54.
4) Eric Williams, Capitalism & Slavery, The University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NC, 1994, p. 169.

는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흑인노예가 실려 왔다.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사회학자이자 정치가는 에릭 윌리엄스(Eric Williams)는 사탕수수가 있는 곳에 노예가 있으며, 영국의 산업혁명은 카리브 해 사탕수수 재배로 가능했다고 주장한다.[4] 어쨌거나 카리브 해로 끌려와 희생당한 아프리카 노예는 서양이 자랑하는 산업혁명, 자본주의 발전, 근대화가 인류 역사에 드리운 깊은 그림자임에는 틀림없다.

카리브 해의 아프리카 노예는 결코 순종적이거나 무기력한 존재는 아니었다. 식민시대 내내 부단히 탈출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1804년에는 백인을 모두 몰아내고 현재의 아이티를 건국했다. 당시 미국 등은 흑인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티는 19세기 내내 서구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려고 갖은 노력을 경주했으나 국제사회의 기피 대상이었고, 20세기에 들어오면 세계 최빈곤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노예들의 꿈은 피어나기도 전에 국제적 봉쇄라는 찬바람에 시들어버렸다. 이런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아프리카 귀환 운동'과 아프리카의 문화적 가치를 긍정하는 네그리튀드(négritude) 운동이 시작된다.

카리브 해 마르티니크 출신의 시인 에메 세제르와 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의 레오폴 세다르 셍고르가 주창한 네그리튀드 운동은 "반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인종차별주의"라는 사르트르의 신랄한 반격에도 불구하고[5], 전 세계로 이산되어 억압과 고통을 받는 아프리카인들의 심장에 깊게 아로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밥 말리(Bob Marley)로 대표되는 자메이카의 레게음악,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 아프리카계 쿠바인(Afro-cuban)의 음악, 브라질의 스포츠 카포에이라,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이나 폴 길로이의 문화이론에서 맥동하고 있다.

이에 반해 크리올론은 아프리카 기원을 강조하는 네그리튀드와는 달리, 현재 삶을 영위하는 이곳과 여기를 긍정하려는 문화론이다. 세인트루시아 출신으로 199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데렉 월코트(Derek Walcott)의 말처럼, 흑인들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프리카로 돌아가거나 유럽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땅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문화론이다[6]. 그러나 쿠바와 브라질의 경우, 공식적인 문화담론은 흑백의 혼혈과 문화적 혼합을 강조하는데, 멕시코의 혼합문화론과 마찬가지로 국민통합 담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우루과이 화가, 토레스 가르시아의 / 중남미지도

히스패닉 문화론과 탈식민주의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는 유럽인 후손이 주축이 되어 건설한 국가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19세기 말부터 이탈리아, 스페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서 원주민과 흑인 노예 후손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소수 종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듯 이 지역의 문화론도 백인 중심이다.

19세기 중엽 아르헨티나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사르미엔토(Sarmiento)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대립적인 명제를 제시하고 아르헨티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문명이라고 주장했다. 문명이라는 서구적 근대화를 통해서 야만의 대명사인 가우초, 원주민, 시골, 후진성을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후일 사르미엔토는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을 비교한 글에서, 미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반면에 라틴아메리카는 후진 국가가 된 이유를 미개하고 야만적인 원주민의 존재 탓으로 돌렸다. 즉 미국은 원주민을 철저하게 배제한 반면에 중남미는 원주민을 포용하고 혼혈이 이루어진 때문에 사회적 · 정치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성교'.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의 작품.

5) Jean-Paul Sartre, "Black Orpheus," in Race, ed. Robert Bernasconi, Malden, MA, Blackwell, 2001, p. 118.
6) Derek Walcott, Dream on Monkey Mountain and Other Plays, Noonday Press, New York, 1992, pp. 10-11.
7) 박병규, 「아르헨티나 문화정체성의 형성과 보르헤스」, 《코기토》, 67, 2010, pp. 33-37.

·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는 논지였다.[7] 지금도 가끔 미국과 중남미의 격차를 얘기할 때, 사르미엔토류의 인종차별적인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1898년 미서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하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토팽창정책이 노골화되자 우루과이의 지성인 엔리케 로도(Enrique Rodó)는 『아리엘』이라는 유명한 책자에서 히스패닉 문화론을 주장한다. 미국은 앵글로색슨 문화를 대표하는 나라로 오로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반면에 중남미는 라틴족인 스페인의 전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예술적이며 고귀한 정신을 가진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히스패닉 문화론은 원주민과 흑인을 무시하고 스페인 식민통치의 유산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르미엔토의 근대화론이나 로도의 히스패닉 문화론은 유럽과 중남미의 관계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주민과 유럽인의 관계에 주목한 혼합문화론이나 아프리카 후손과 유럽인의 관계를 천착하는 네그리튀드와는 사뭇 다른 이론적 입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엔리케 두셀(Enrique Dussel)의 해방철학이나 월터 미뇰로(Walter Mignolo)의 탈식민주의(Decolonialism), 어느 면에서는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Néstor Garcia Canclini)의 혼종문화론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모두 아르헨티나 출신인 이들은 하나같이 근대성(modernity)을 화두로 삼아 문화론을 전개한다.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면 유럽인데도 실질적으로는 중남미라는 유럽 변방의 이등 시민이라는 문화적 자의식에서 출발하여 중남미는 아직도 유럽 근대성의 폭력적이고 억압적 측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결론

지금까지 서술한 중남미의 문화론은 각각 자신들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통찰을 반영하고 있다. 중남미는 19세기 말엽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히 유럽과 미국을 모델로 삼아 근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비록 이런 과정은 '정치 불안', '경제 위기'와 같은 수식어에서 보듯이, 내외적인 여러 요인의 작용으로 결코 순탄하지 못했으나 현재도 중남미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결과가 실패라고 해서 그들의 지속적인 열망과 의지까지도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평가하면, 중남미의 다양한 문화론은 지난 과거의 역사와 빛나는 미래의 희망 사이에서 현재의 위치를 설명하려는 중남미인의 실존적인 고뇌와 역사적, 인종적, 지리적 특수성에 대한 자의식을 담고 있다.

끝으로, 중남미 문화와 문화론은 결코 하나로 수렴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중남미 관련 담론은 '원주민'과 '혼합문화론'에 치우쳐 있다. 그 원인은 미국을 통해서 중남미를 접하거나, 아니면 멕시코 중심으로 중남미를 이해하기 때문일 것인데, 이제는 우리의 시각으로 중남미 문화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논의할 기회가 무르익었다.

참고문헌

· 가르시아 칸클리니, 네스토르, 『혼종문화』, 이성훈 옮김, 그린비, 2010.
· 김윤경, 「1920년대 멕시코의 메스띠소화(mestizaje) 담론의 의미: 탈원주민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0권 2호, 2009, pp. 81–119.
· 두셀, 엔리케, 『1492년, 타자의 은폐』, 박병규 옮김, 그린비, 2011.
· 박병규, 「아르헨티나 문화정체성의 형성과 보르헤스」, 《코기토》, 67, 2010, pp. 29–53.
· 세제르, 에이메, 『식민주의에 관한 담론』, 이석호 옮김, 동인, 2004.
· 이성형,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민족주의』, 길, 2009.
· 헌팅턴, 새뮤얼,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김영사, 1997.
· Eric Williams, Capitalism & Slavery, The University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NC, 1994.
· Gilroy, Paul, 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Verso, London, 1993.
· Sarmiento, Domingo Faustino, Conflicto y armonías de las razas en América, La Cultura Argentina, Buenos Aires, 1915.
· Sartre, Jean–Paul, "Black Orpheus," in Race, ed. Robert Bernasconi, Malden, MA, Blackwell, 2001.
· Walcott, Derek, Dream on Monkey Mountain and Other Plays, Noonday Press, New York, 1992.

라틴 아메리카의 라틴 건축

Latin Architecture in Latin America

필요한 몇 가지 선입감 / 문화 유전자

관점 / 왜 지구의 반대편을 보는가

두 가지가 못마땅하고, 두 가지가 궁금했다.

이 대륙을 '신세계'라 하는 것이 첫째이고, 누군가가 '발견' 했다는 것이 두 번째 못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또다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처럼 문화상대주의에 휘말려 이 일을 그냥 '신세계 발견'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대륙은 5천년부터 그 자리에서 문화를 일구고 있었다.

거기가 궁금함은 '전통이 진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첫째이고, '전통은 근대에서 어떻게 타협 하는가'가 두 번째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의 근대적 경험과 아주 닮았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서양이 동양에 반응되는 방식에서 우성과 열성, 기독교와 이단, 문명과 미개라는 이분법적 인식 구조에 익어 왔다. 이 타성은 포스트-구조주의까지 당사자나 제 3자나 모두 그 정의(正意)에 게을렀던 차, 최근 라틴 아메리카 자신이 새로운 시선을 들고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모던인가.'[1)]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비서구(非西歐), 제3세계(第三世界), 식민지(植民地) 경험의 나라들은 모두 그러하다. 주저 없이 모던은 진보를 위한 궁극성이었으며, 구태(舊態)의 일탈에서 절대적 가치로 휘둘렸다.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는가.

문화의 관계성

한 시대는 앞 시대에서 얻어 뒤 시대에 주며 유전자를 전이한다. 한 지역의 문화는 이웃과 유전자를 교환하면서 끊임없이 잡종강세(雜種强勢)를 도모한다. 그렇게 각 지역의 문화는 세계의 지구적인 그물 관계에 얽히게 된다.

지구에서 어떤 세계의 문화도 독립적이지 않고, 지역 문화도 개별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지역문화를 가치로 말하는데 독자적이라거나 고유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쭙잖은 일이다.

종의 다양성, 혼합의 가치, 선택과 대안 등 무수히 많은 시선이 있을 수 있다.

문화의 컨텍스트 / 문화의 교차, 혼성

이 짧은 발표 시간에 한 대륙의 현대건축을 말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전통에서부터 시간적 맥락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맥락주의(脈絡主義)는 일반적인 사관(史觀)에서도 뻔한 사실이지만, 중남미 문화에 대해 보편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그러하다.

라틴아메리카 건축의 유전자

1) 니콜라 밀러 · 스티븐 하트 저,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역 /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 트렌스라틴 총서_1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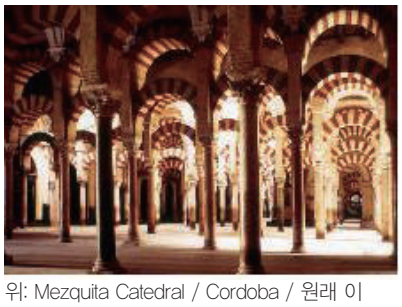


필자 : 박길룡,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by Park, Kil-Yong

박길룡 교수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조형대학과 건축대학에서 세계건축사를 강의하며 건축설계를 지도하고 있다.
한국현대건축을 위한 저술로서 『한국현대건축의 유전자』, 『세컨드 모더니티의 건축』, 『한국현대건축을 위한 9개의 탐침』(공저) 등을 통해 비평적 사관을 펼쳤다. 특히 문화교차의 관점에서 세계건축의 동향을 찾아다니고 있으며, 그 견해 『시간횡단, 건축으로 읽는 터키 역사』와 『남회귀선, 라틴아메리카의 문명기행』 등으로 출판한 바 있다.



좌: 히랄다 (La Giralda), 세비야 대성당 / Seville, Spain / 아래의 사각탑은 이슬람 시대 모스크의 미나렛이고 그 위에 얹힌 둥근 첨탑은 기독교 탈환 이후에 더하여진 성당의 종탑이다.



위: Mezquita Catedral / Cordoba / 원래 이슬람의 모스크로 지었으나, 기독교의 탈환 이후 성당이 덧 지어 졌다.





Spain과 Latin America의 바로끄 / 좌: Hospicio de San Fernando / Madrid, Spain / 18C 우: Igreja de Ordem Terceira de São Francisco / Salvador, Brasil

문화의 상호 교섭에서 유

전자가 전이되고 종은 다양해진다. 건축문화에서도 잡종강세(雜種强勢)를 믿으며, 세계의 건축의 문화교차의 현상을 벌이는 살피는 중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시 확신했다.

세계의 건축은 모두가 하나의 유전자 그물에 얽혀 있으며, 독립적이거나 개별적일 수 없다. 이 그물은 입체적인 구조인데, 수평적으로는 지역적으로 얽힌 모양이고, 수직적으로는 시간의 관계이다.

식민과 문화 사이

우리가 지금 라틴아메리카라고 부르는 대륙의 원조문화와 이베리아의 문화가 교환하면 어떤 유전자 조작이 벌어진다. 여기에서 우성과 열성이 작용하며, 그 관계는 자의적이지 않다.

原 문화

서로 존재조차 모르던 문화들이 있었다.

이베리아에서부터 촉발되는 대항해 시대 이후 이 대륙에서 '발견'되는 문화는 경이롭지만, 서양의 시선에서 보면 '이단'이며, '원시'이다. 유일신은 어떤 토착종교도 용납하지 못하고 제국주의는 팽창하여야 하기에, 이교도는 개종과 서구 문화로 개조시키는 일을 미션이라고 했다.

그들이 '신세계'라고 하는 이 대륙의 문화는 줄잡아도 5000년의 역사이다. Olmeca, Maya, Mexicana, Azteca, Pre-Inca, Inca 그리고 Amazonas를 비롯하여 수많은 토착문화가 전통으로 익어가고 있었다. 그 원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 차이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1492년 거기에 이베리안이 올라 왔다.

인디헤나 푸에볼로의 전통이 모더니즘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은 植民史觀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러하다. 여기에서 전통이 궁극적으로 문화 진보의 힘으로 작용하는가의 질의가 끼어든다. 라틴아메리카에 두 가지 유전자를 심는데, 무데하르이고 다른 하는 추리게레스꼬이다.

Spain Mudéjar

이베리아의 건축이 중남미에 전이될 때 이미 그들의 유전자에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의 원소(元素)가 들어 있었다. 특히 남부 스페인에 710-1500년 동안 침착(沈着)되었던 Moor의 양식은 안달루시아 건축에 특성을 이루며, 그 유전적 성질이 유럽의 중세건축과 이베리아를 구분하는 특성이 된다. 개연적으로 이 유전적 성질이 중남미에 묻어 들어온다.

Spain Baroque **특별히** Churrigueresque

중남미의 식민지 시대는 유럽의 바로크 시기에 해당한다. 식민지는 이베리아의 문화를 닮고 싶은데, 본국은 식민지에 최고를 보내지 않는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중에서 국가적 사업이 아니면, 토착 기술에 의존하기에 양식(樣式)의 변태(變態)가 불가피하다. 어떤 경우 토착 장인(匠人)들은 슬그머니 그들의 디자인 언어를 끼워 넣기도 한다.

17-18세기 스페인의 바로끄는 추리게라 Churriguera[2] 풍의 장식적 바로끄를 특징으로 한다. 이 양식은 장식미술에 열정적이며 디테일의 구사가 세밀한데, 이를 라틴아메리카가 답습한다. 식민지가 습득한 장식미술은 기독교 미션과 결합되며 훨씬 더 극적인 매너에 빠진다.

2) 건축가 호세 베니또 추리게라 Jose' Benito Churriguera의 독특한 스타일

혼혈(Mestizo) 문화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성질은 인종구조(人種構造)와 관계된다. 중남미의 인종에는 원주의 인디오가 있었고, 이베리아의 백인이 들어오며, 그 사이에 혼혈이 생기는데 그들을 메스티소(mestizo)라 한다. 혹독한 노동착취와 전염병의 만연은 인디오의 씨가 마를 지경이 되고, 노동력 부족이라는 곤란에 빠진다. 17세기 중엽,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흑인이 사냥되어 노예로 실려 온다. 여기에서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 생기는데 그들을 몰라토(molato)라 한다. 피의 교체가 너무 심한 잡종은 비인종(非人種)이라 하였다.

중남미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혼혈문화는 생활과 건축에서 그대로 전이된다.

브라질 살바도르의 오릭사스(Orixás)는 서아프리카(오늘날의 베닌, 콩고 지역)의 토착문화가 노예 수입과 함께 바히아 지역에 상륙하여 기독교와 혼합된 것이다. 브라질 가톨릭은 다분히 우상숭배라고도 할



중남미에서 빈부 차이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Favela / Rio de Janeiro
아래쪽은 관광산업과 외국 투자가 활발한 해변 휴양지이고, 산 위쪽은 고질적인 브라질 빈민촌 파벨라이다.

오릭사스를 허용한다. 오릭사스는 아프리카 전통의 만신(萬神)으로서 자연에 여러 성령을 믿음이며, 신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진 아이콘이 있다. 이 아프리카 종교 의식은 다분히 행위몰입(行爲沒入)으로 가는데 그것이 미사 형식과 결합되며 성당의 신랑(身廊)을 홀처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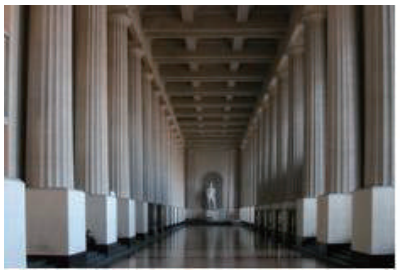
멕시코 근대건축의 특별함은 마야와 아스테까라는 깊은 전통과의 정서적 교합 때문이다.

모더니즘의 배태(胚胎) 환경

끄리오요(Criollo) 인구

백인이면서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람을 끄리오요라고 한다. 그들은 식민지에서 지배계급이지만, 본국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위치에 있었다. 이 식민지 백인들은 독립이 되고도 기득권 처럼 권력을 쥔다.

비교적 끄리오요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과 인디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모더니즘의 성취도에서 차이가 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토착적 성질을 희박(稀薄)시키는 속도와 정도로 나타난다. 아르헨티나, 칠레의 끄리오요 비율이 높고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빠라과이 등은 인디헤나의 인구 비율이 높다.



Eva Per6n Foundation / Facultad de Derecho y Ciencias Sociales / Buenos Aires / 기념적인 고전풍의 현관



Biblioteca Nacional / Buenos Aires / 공원 속의 도서관



Axio Monumental / Brasilia /Congresso Nacional /Brasilia / 1960 / Oscar / Niemeyer



Quartel General do Exe'rcito / Brasilia / 1973 / Oscar Niemeye



Pampulha / Igreja São Francisco de Assis / Belo Horizonte / 1943 / Oscar Niemeyer



JK Memorial / Brasilia / Oscar Nimeye

비교적 풍부한 자원 / 개발과 외산자본

식민 시대 자원은 이베리아를 살찌우는 자원이었지만, 독립 후에도 중남미의 삶을 진보시키는데 효용되지 않는다. 한동안 서구의 자본 제국주의의 착취에 시달리며, 끄리오요의 기득권 행사는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를 지속시킨다. 도시와 건축의 환경에서 자원과 자본은 절대적인 조건이지만, 이 자본의 행방이 모던 국가에 얼마큼 도모되는가는 지역마다 달랐다.

정치 환경 / 프로퍼갠더와 건축문화

식민지들은 독립이 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독재에 시달린다. (우

리나라도 그랬지만) 정치적 불안정은 문화의 기동력을 잃게 한다. 빼루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도 공산주의, 마오쩌둥(毛澤東)주의가 횡행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안정을 보다 빨리 이룬 지역이 모더니즘의 성취도가 빠르다.

정치가 예술을 프로퍼갠더로 이용하며, 근대성의 발목을 잡는 경험은 (우리도 그러했지만) 중남미에서 하다하다. 문화가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고전주의가 부활된다.

빼론과 에바가 포퓰리즘을 펼치던 Eva Per'n Foundation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20세기로서는 시대착오 미학이다. 에바의 사후, 이 신고전주의의 건축은 대학이 되었지만, 에비와 관료주의가 만든 정치적 건축은 아직도 허다하다.

브라질의 21대 대통령(1956-61) 쿠비체크(Juscelino Kubitschek)는 그의 통치기간 동안에 국가재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건설 드라이브를 걸면서 브라질리아 건설을 추진한다. 쿠비체크는 벨루오리존치 시장일 때 오스카 니마이어와 많은 프로젝트를 이루고 서로 만족해 하던 사이이다. 1956년에서 1959년 까지 3년 만에 완성되는 브라질리아는 O.니마이어 프로퍼갠더의 현장 무대이다.

아열대(亞熱帶) 풍토

토착적 성질과 식민지 시대 유산은 모더니즘으로 탈색되지만, 브라질의 건축은 여전히 '브라질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태양과 그림자, 넓은 바다와 녹음의 언덕, 게으름 그러나 진취적인 행동, 그래서 브라질 건축은 더욱 회화적 장면이 되며 기후와 사람의 성격이 얹힌다.[3] 이 모두가 구축적(構築的)으로 중첩(重疊)된 것이 브라질 모던 스타일이다.

기술 / 콘크리트

중남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공학의 기술적 수준은 부럽다. 특히 콘크리트를 다루는 기술과 조형의 솜씨는 세계적이다. 자연히 이러한 기술적 자신감은 거대 구조, 장대한 스팬, 거대 공간의 실험을 활발히 한다.

모더니즘 / 우리는 언제부터 모던했나

흔히들 좀 잘못된 내용이나 시스템을 '전근대적'이라고 한다. 촌스러운 것도, 덜 된 것도, 모자란 생각도 전근대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근대적이라는 것은 잘된 것, 완전한 것, 충분한 것의 뜻이기도 한가?

우리도 그랬지만, 근대가 절대적 가치로 작용했고 그 성취를 국가적 목표로 했다. 여기에서 제 3세계는 모더니즘에 '함의'하고 스스로의 문화 질량을 계량하기 위해 서양의 '척도'에 얹어 놓는다.

근대주의는 양식인가

근대주의는 양식이 아니다. 근대건축의 모습은 무의식적으로도 그릴 수 있지만, 세계의 건축이 함께 나누려고 만든 스타일은 아니다. 20세기에 들어 인류는 지난 5000년의 양식건축(樣式建築)을 거둬들이고, (물론 서구가 일으키지만) 새로운 미학을 혁명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더니즘은 어떤 정신이며 문화 태도였다.

그런데 그것이 세기(世紀)의 가치가 되며 지구(地球)의 문화 규범이 된다. 제3국가들도 스스로 모더니즘의 도그마에 함의(含意)하고 그것을 스타일을 모사하며 어떤 성취감을 느꼈다. 거기에는 어떤 선택도 대안도 없는 줄 알았다.

근대적 함의와 척도론[4]

20세기를 통해 세계는 줄곧 모더니즘이 지시하는 방향을 시선하고, 서양적 가치에서 동작을 규합하는 일종의 메스게임에 열중했다. 그리고 제3국가들은 그들의 지역적 가치들을 변방(邊方)에 두고 왔다.

문화교차에서 우성(優性)과 열성(劣性)이 구분되고, 지배와 피지배 문화의 관계가 형성되며, 선진 문화와 후진 문화가 갈라졌다. 모두가 별개의 가치일 것 같던 지역문화들이 '근대(近代)에의 함의(含意)'에 연대적 참여가 벌어진다. 각국은 이러한 문화적 연대로부터 고립될 때 일종의 공포를 느끼며 스스로 영향권에 들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일단 근대성에 가치관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성취도는 국가마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세계는 근대성의 성취도를 계량하는 스케일을 만든다. 그것이 '모더니즘의 척도론'이다.

근대주의가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행세하지만, 형편과 지역에 따라 그에 도달하는 성적은 다르다. 한 지역이 얼마나 근대에 이르고 있느냐는 척도가 만들어 지면서, '고급 근대'와 '덜 된 근대'와 '비근대'의 계량이 벌어진다. 지역마다 몇 점짜리 근대성을 성취하고 있는가는 곧 '선진'과 '후진'의 가늠이기에 모든 문화적 가용 에너지를 모더니즘에 쓰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문화들이 근대성의 척도치(尺度値)를 높이려고 할수록 토착성으로 부터의 일탈 또는 타협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구조의 틀이 느슨해지며 타협이 벌어진다.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했다. 선택적, 대안적, 수정주의의 모더니즘을 모색함이다.

3) Zilah Quezado Decker / Brazil Built The Architecture of the Modern Movement in Brazil / Spon Press / 2001 / 156
4) 니콜라 밀러 · 스티븐 하트 저,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역 /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 트렌스라틴 총서_1 / 2007

바로끄와 근대성

바로끄와 근대성은 원천적으로 모순되는 의미이다. 근대성과 낭만성의 모순은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꼭 그러한가의 반문이 라틴 아메리카의 모더니즘에 비집고 든다.

원천적으로 마야, 아스텍의 예술은 바로크적이었고, 그것이 20세기까지 유전적 전이를 이루는 사이에 터득한 시형식(視形式)이다.

수정주의

루이스 바라간은 형태를 버리면서 양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서, 남는 여전히 중요한 것, 질료, 색채, 빛이 멕시코의 서정주의를 분명히 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근대건축에서 주목되는 것은 작가의 개별성과 모더니즘의 활달한 타협이다.

모더니즘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현대건축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인상된다. 첫째는 여전히 중요한 전통의 가치 또는 지역적 정서이며, 두 번째는 세계성 또는 신국제주의이다. 먼저 것은 진보를 지척거리게 하는 원인이 될지 모르며, 두 번째 것은 먼저 것의 가치가 이제 시한 종료되는가의 걱정이다.

무의식적 국제성

20세기 후반 세계는 또다른 국제주의에 휘둘리고 있다. 최소한도 1932년 헨리 러셀 히치콕의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는 이념이었지만, 21세기에서 벌어지는 신국제주의는 스타일의 공유이다. 마치 세계는 글로벌이라는 패션 시장과 같다.

좀 더 거시적인 시선에서 지구문화를 보면 관계는 세계가 얼마나 동질성을 향해 가속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개체간의 교환 또는 다자간의 관계는 곧 확장을 의미한다. 언 듯 이합집산의 패턴을 만들며 끊임없이 다양성을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모더니즘에 모두 모여 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합(離合)은 다른 국면에서 집산(集散)을 이루고 있다.

신국제주의에서 지역성이 세계성에 포용됨은 통째로 벌어지는 일이다. 단계적이지 않고 위계적이지도 않기에 통시적 동시성이다. 세계의 건축이 국제주의를 이루는 데에는 '함께 할 것'을 의식하지도 않고, '같이 있을 것'의 맥락도 아니하다. 같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은 이념의 동조가 아니다. 자발적 피동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

이제 세계는 같은 재료를 함께 쓰며, AutoCAD라는 설계 시스템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시한다. 결국 같은 문화를 같이 하는 아비투스에서 건축은 자꾸 패션이 된다.

아열대 모더니즘

극도로 단순화 하여 말하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식민지성과 근대성은 동의어이다[5]. 그것은 우리나라와 제3세계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이다. 그 해답이 라틴아메리카만이 가능한 아열대(亞熱帶) 모더니즘이다. 수정주의, 선택적 모더니즘, 여전히 중요한 태양, 기후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스타일을 만든다. 낙관성, 넉넉함이 아열대 모더니즘이다.

문화는 뒤척이며, 이종과 섞이며, 끊임없는 유전적 변이를 통해 진화한다. 역사에서도 엄연한 법칙이 잡종강세인 것만은 알았다. 다만 문화교차의 진화법에는 필요하고도 충분할 조건이 있는데, 바로 모태(母胎)의 건강이다.

참고문헌

· 니콜라 밀러 · 스티븐 하트 저,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역 /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 트렌스라틴 총서_1 / 2007
· 월터 D. 미놀로 저, 김은중 역 /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 트렌스라틴 총서_3 / 그린비 / 2010
· 우덕룡, 김태중, 김기현, 송영복 / 라틴아메리카 / 송산출판사 / 2003
· 송상기 / 멕시코의 바로크와 근대성 / 고려대학교 출판부 / 2002
· Felipe Hern'andez, Mark Millington, Iain Borden 편 / Transculturation Cities, Spaces and Architectures in Latin America / Amsterdam / 1998
· Lauro Cavalcanti / When Brazil was Modern 1928–1960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2003
· Carlos Briiembourg 편 / Latin Americam Architecture 1929–1960 Contemporary Reflection / The Monacelli Press / 2004
· Jay I Kislak Foundation, Miami Lakes / Cruelty & Utopia
· 박길룡 / 남회귀선 / 한길사 / 2010

5) 월터 D. 미놀로 저, 김은중 역 /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 트렌스라틴 총서_3 / 그린비 / 2010



내북초등학교

Naebuk Elementary School

당선작 _ 류대현 정회원
(주)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화전길 20(화전리 5-1외 1필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주요용도	초등학교
대지면적	29,804㎡
건축면적	3,182.62㎡
연 면 적	4,123.21㎡
건 폐 율	10.68%
용 적 률	13.84%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발 주 처	보은교육청
설계담당	김기옥, 김용숙, 김종표

"보은팔경을 품고 꿈을 키워가는 내북초등학교"

학교는 사회에 인제를 공급하는 요람으로서 건강한 재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내북초등학교는 건강한 꿈을 키워가기에 최적의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개방을 통한 다양한 인적 유입을 유도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참되고 지혜로운 인재"를 길러내는 참교육 공간을 지향한다.

배치계획

대지 서측의 북측으로 연결된 녹지와 지형을 고려한 계획을 하였고, 남,동측 도로에서의 접근성 및 인지성 확보를 하였고, 남향배치 및 열린공간을 극대화하여 채광확보 및 효율적 동선 체계를 계획하고, 보행자 및 차량동선을 분리시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평면계획

명확한 실별조닝 / 도서정보실의 개방성 / 급식소의 쾌적성 / 향,축을 중심으로 계획 / 신발청결대 설치 / 원형 세치실 계획 / 학습준비실 및 교사실(DEN) / 교무센터 중심의 교실 배치 / 특별교실 계획 / 다목적실의 다양한 공간변형 등을 계획하여 학습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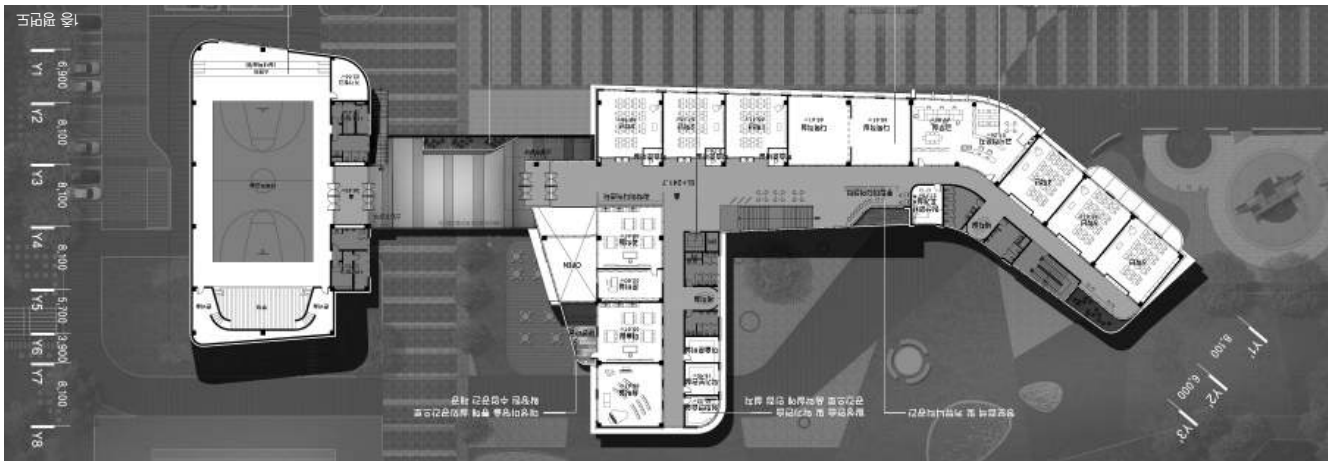
입,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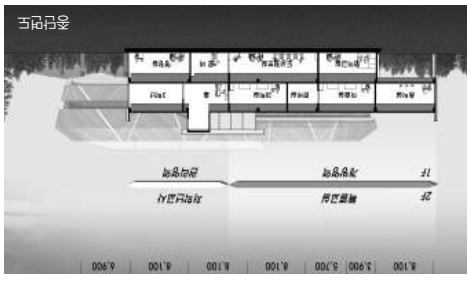
• 입면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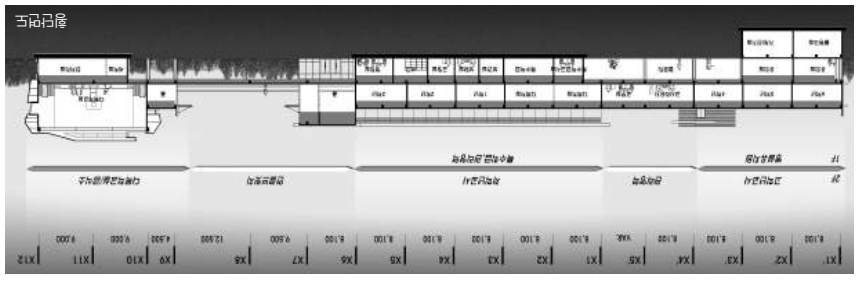
자연의 흐름과 주변 컨텍스트에서 이미지 요소를 추출하여 입면에 반영였으며, 미래지향적,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상징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입면계획고, 디지털 이미지로 미래 지향적인 내북인을 상징화하여 입면 패턴 적용 및 수려한 보은군의 자연환경에서 나무를 입면 컨셉에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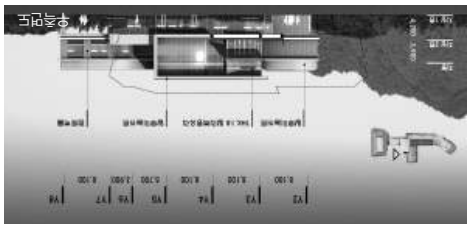
• 단면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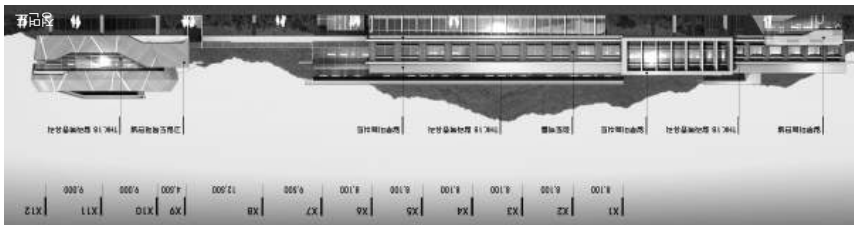
친환경 자연환기 시스템을 계획하여 자연환기를 위한 복도 천정에 친환경 시스템 바람길을 설치 하였고, 복도 천정에 남측고창을 두어 햇빛, 바람, 공기를 자유로이 유입하고, 천정고를 높이두어 도서정보실의 개방감 확보하고 야외데크와 연결하여 공간 확장을 하였다.


1층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배치도


입출계획


수평동선 계획
- 골사용 우측으로 루루수평목 대비
- 기존건물을 유지이 유계가능

악송존비실 및 골사실(DEN)
-작직보존이 반출입실과 골이이 골사 및
복도에서 방송사방송 관람확수 있는 유리 이중
-수업존비■ 위한 골사실간
단계적 공간 구성
-복도 측면을 통해 각 기능별 독립적 접근 가능
-어댑터블타입 교환형 어닉싱 설비공간

신발장겸대 설치
-골사용 및 유지원 관리용이 설치
방음문비 창문을 위주로 안전
-어닉싱분 주 사용 및 교통색사실 이면
다양한 복지로 조명박공의 주방공간에
-리모가을 복지로 조명박공의 주방공간에



내북초등학교

Naebuk Elementary School

우수작 _ 변연수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예당

대지위치 충북 보은군 내북면 화전길 20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하천구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29,736.00㎡
건축면적 2,733.16㎡
연 면 적 4,122.60㎡
건 폐 율 9.19%
용 적 률 13.86%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 첫 느낌!
앞 내를 건너니 바로 교문.
교문 동쪽 진입로에는 사시사철 푸른 기상을 자랑하는 소나무가 두 줄로 늘어서서 찾아오는 이를 반갑게 맞이한다. 전형적인 학교건물이 너무나 온전한 모습으로 뒷산을 배경으로 하여 너른 앞뜰을 향해 서있다.
이곳에 새로운 학교가 들어설 것이다.40여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이 장소에서 꿈을 키우며 공부하던 까까머리 단발머리 중학생들은 지금쯤 어떻게 성장해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을까?

– 현장의 대지에서 모든 실마리는 찾아지고
햇살이 잘 닿지 않은 곳에는 잔설이 남아 한기를 더하고 텅 빈 운동장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춤을 춘다.
교사 뒤편으로 돌아가니 뒷산 우거진 숲속에서 한줄기 찬바람이 일고 한기가 내려오는 것이 으스스한 느낌을 준다. 뜨거운 여름철에는 산바람이 너무나 시원하고 고마운 바람이겠지만, 서쪽 운동가에는 개나리덤불과 헐벗은 플라타너스가 농경지를 사이에 두고 서 있다.
강한 서향 빛과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기에는 어림도 없어 보인다.
남쪽 운동장은 하천변 도로보다 낮은 자세이지만 여름철이면 언제든 앞 냇가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뜨거운 날에는 기온과 기압차에 의해 형성되는 시원한 바람이 좋을 것이고 졸졸 흐르는 얕은 물은 시감과 청감을 좋게 할 것이다.

–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 그리고 희망
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무조건 온전한 중학교건물을 철거해야만 한다는 살벌한 조건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계획을 진행한다. 하지만 지나온 흔적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계획에 임할 것이다.농촌에 사는 아이들과 도시에 사는 아이들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농촌환경이 가진 자연조건은 너무나 훌륭하여 더할 나위없는데...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갖기에는 부족할지 모른다. 그래서 물리적인 교육시설로 아이들의 경험을 평등하게 만들어주도록 노력해 볼 것이다. 사시사철 살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건물로 만들고 싶다.
막힘과 끊어짐이 없이 어디서든 통하는 시설물과 시설물, 시설물과 자연, 자연과 자연.

가능하면 기계적인 설비의 도움을 지양하고, 바람과 햇빛 등 자연적인 요소들을 이용함에 거침이 없는 건축물로 만들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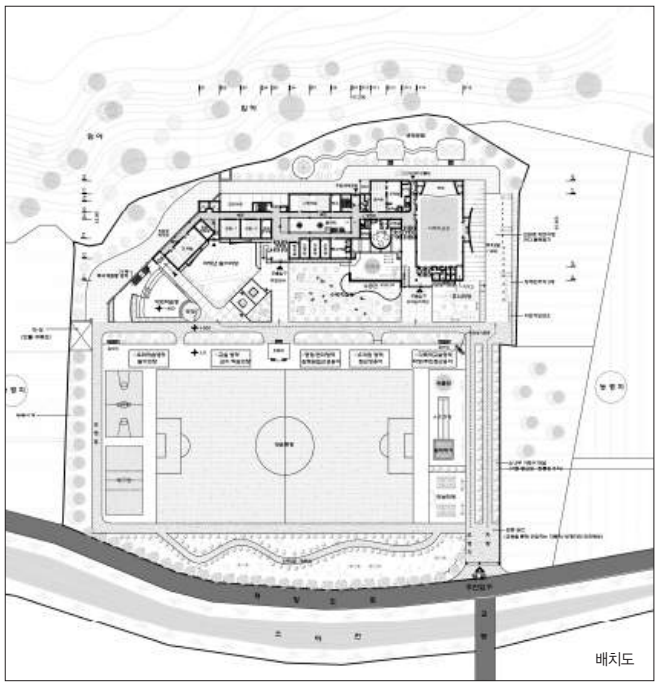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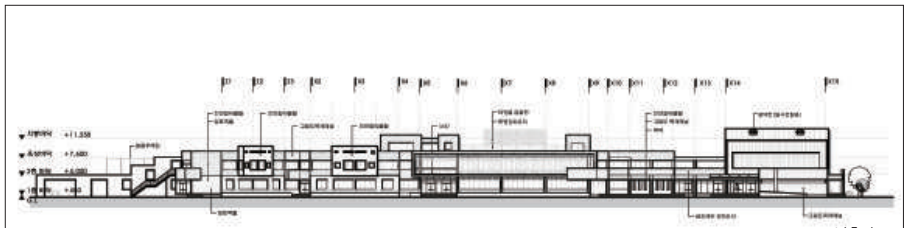
대지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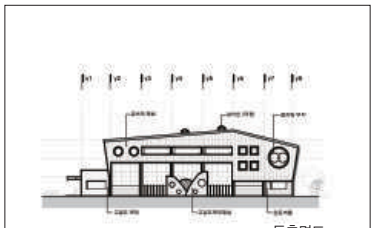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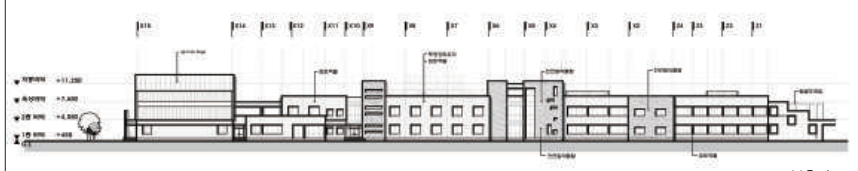
동선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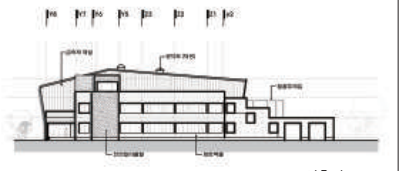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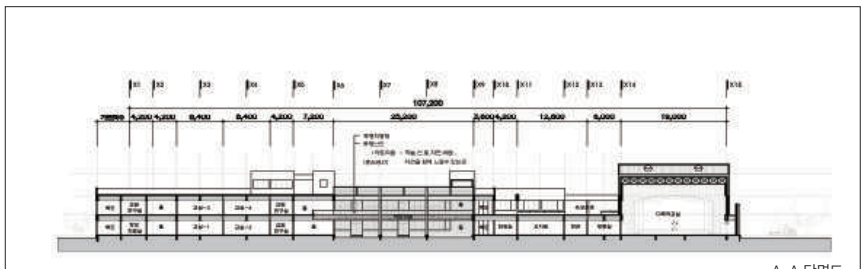
배치도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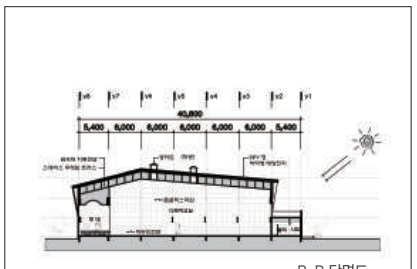

동측면도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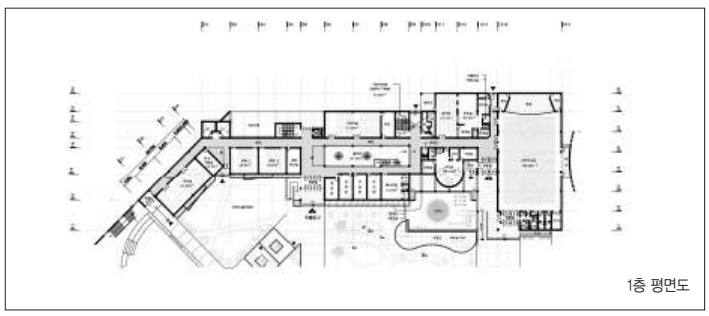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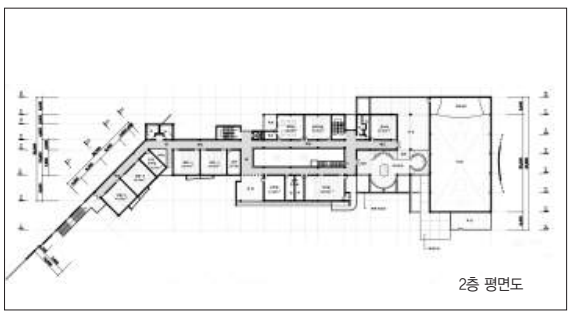


A–A 단면도



B–B 단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내북초등학교

Naebuk Elementary School

가작 _ 윤해상 정회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대지위치	충북 보은군 내북면 화전길 20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29,736.00㎡
건축면적	1,809.83㎡
연 면 적	3,975.60㎡
건 폐 율	6.09%
용 적 률	12.69%
구 조	철근콘트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기본계획 방향

내북초등학교 부지는 충북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의 전원 농경지 주변에 위치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교류 및 재교육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영역의 '장'으로서의 역할 및 시설이 요구된다.

계획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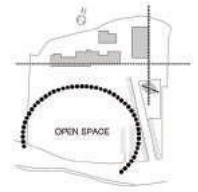
- 초등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환경서비스 제공
- 쾌적한 교육환경시설 구성
- 기능별 분할에 부합되도록 블럭화 설계
- 지역 커뮤니티시설로서의 기능 제고
- 효율적 관리체계의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내부간의 유기적 관계에 의한 공간 구성
- 내 · 외부마당을 통한 자연친화적 공간 구성
- 랜드마크로서의 고유의 인지성 제공
- 기존 도로축 및 질서에 순응
- 합리적 동선체계 및 접근성 부여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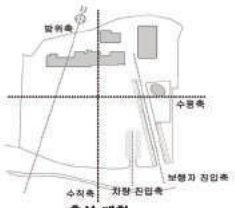
- 대지축과 방위축, 주변환경을 고려한 배치
- 외부 공간체계의 수립
- 기능블럭별(이용목적)로 편안한 진입체계 구성
- 변화에 대응하는 가변성 확보
- 기존 진입로 및 중앙에 오픈스페이스를 두어 각 블록별 동선분리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연결통로를 통해 영역별 독립성 확보 및 친환경적 공간을 유도

평면계획

- 기존 진입로와 연결통로를 통해 내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계
-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한 공간 계획
- 기능 및 학년에 따른 영역별 조닝
- 고/저학년 분리, 층별, 학년별 조닝으로 독립적 학습공간 조성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MASS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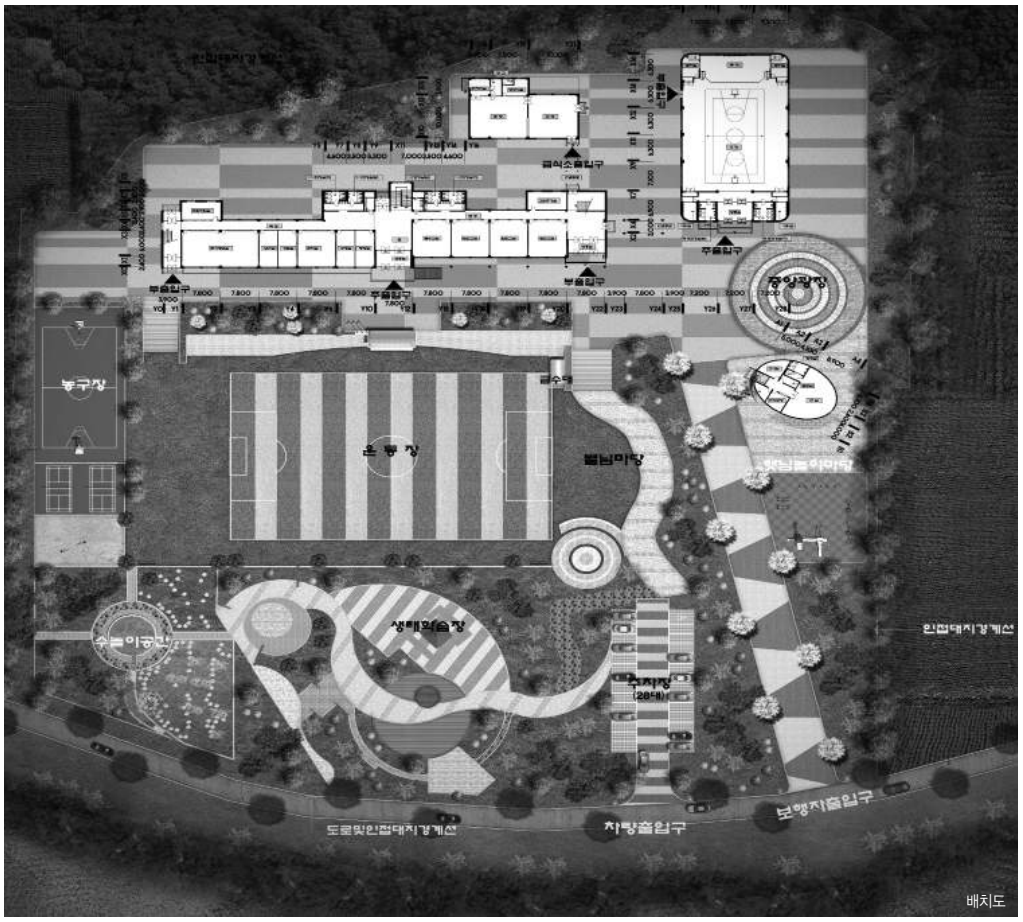
축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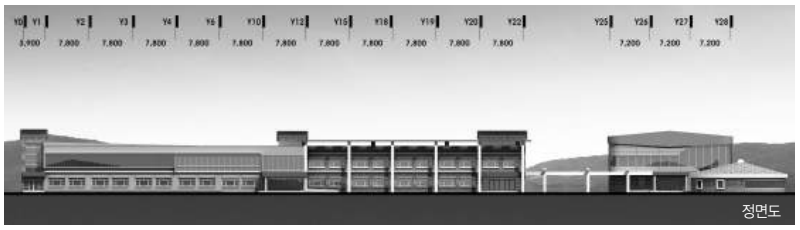
경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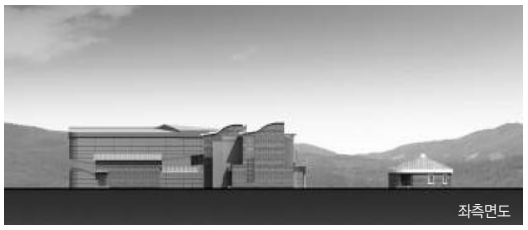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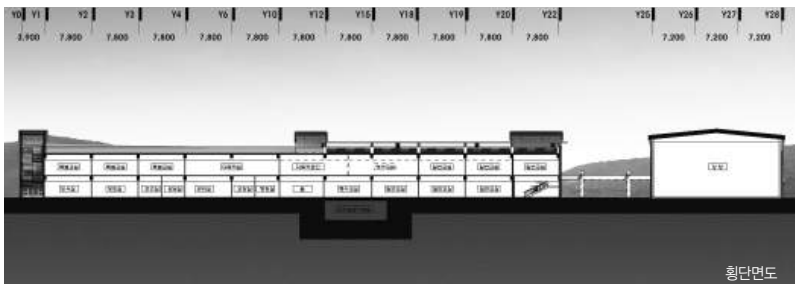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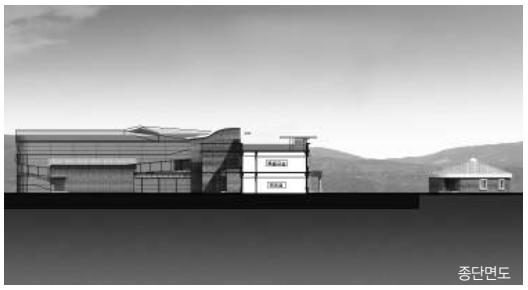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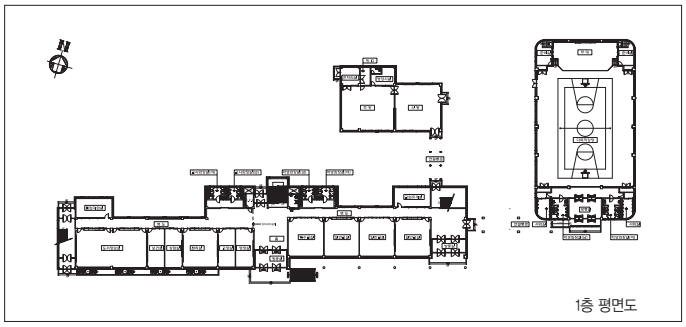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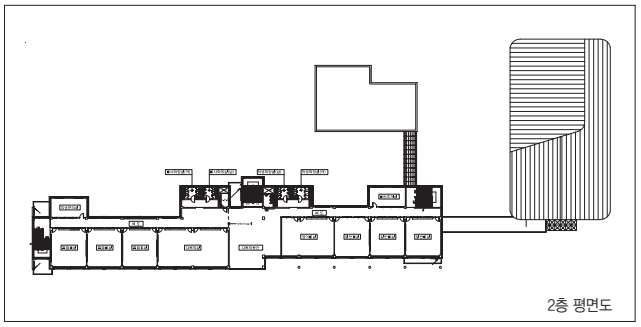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포항 버스 공영차고지

Pohang Public Bus Garange

당선작 _ 김국현 정회원
현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14번지 외 17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영차고지
주요용도	자동차관련시설(시내버스공영차고지)
대지면적	10,967.00㎡
건축면적	1,327.36㎡
연 면 적	1,934.95㎡
건 폐 율	12.10 %
용 적 률	17.64 %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
발 주 처	경상북도 포항시청
규 모	사무동+휴게동-지상 3층 / 정비동-지상 1층
설계담당	차수진, 민슬아

포항시의 대표적 공영차고지가 될 수 있도록 '뱃머리'와 '갈매기'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현대적 이미지 및 외관을 구성,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도모하였다.

배치계획

-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각각의 장소성을 부여하고 기능적 분리와 상호 보완성을 고려한 연결브릿지를 설치, 프로그램에 따른 명확한 조닝과 이에 따른 순환체계 구성
- 각각의 영역별, 시설별로 공간을 분리배치하고 보차분리, 효율적인 주차시스템의 명확한 동선을 유도하고 대지와 PUBLIC SPACE의 연계를 고려한 보행통로를 설치

평면계획

사무, 휴게동

- 직원과 방문자의 보행동선을 고려한 평면구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 필로티 하부에 승객 대기공간을 조성
- 아트리움을 통한 적극적인 자연채광과 각 동을 브릿지로 연결하여 각 기능별 존(Zone)의 합리적 공간계획과 상호 유기적 연계를 유도함.

정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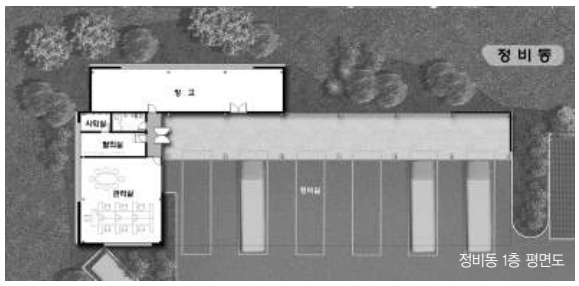
- 각 실의 용도와 기능에 따른 효율적인 조닝 및 동선을 계획, 관리영역과 정비영역을 분리하여 공간의 독립성 확보, 정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현수구조식의 지붕 계획, 건물 구조를 이용한 정남향의 적정 고도의 태양열 집열판 설치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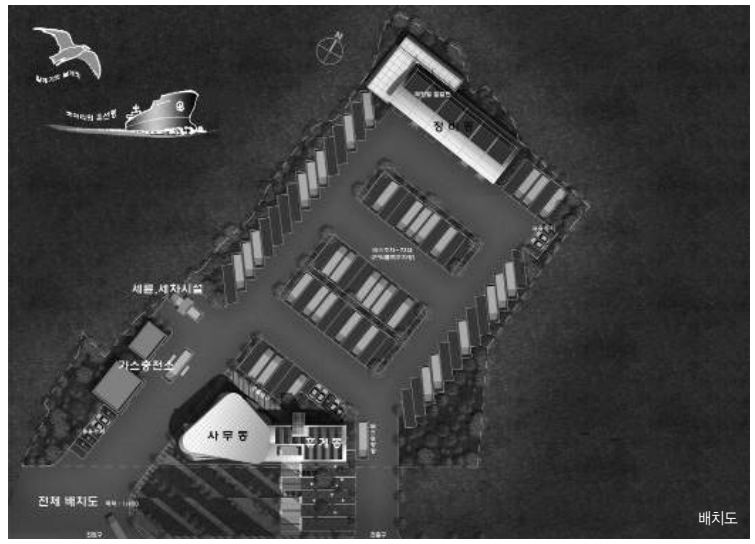
- Dynamic Skin: 흐름, 인지성, 상징 등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고 매스계획과 입면 디자인에 반영
- 용도별 효율을 고려한 매스 분절을 통해 무게감을 탈피하면서 그 절점 부분에 브릿지를 이용하여 두 매스를 연결함으로써, 시각적 비례감 유도한 개방감을 통해 이용자의 활동을 나타냄.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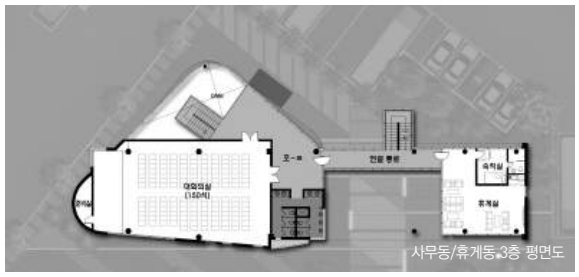
- 기능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층고로 필로티 및 아트리움의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개방감 확보 및 자연 채광의 극대화
- 기능별 조닝을 통한 독립성 확보 및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직 및 수평 조닝



정비동 1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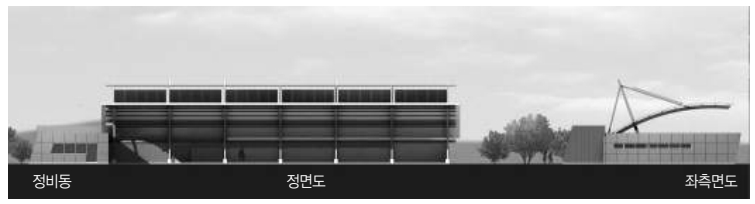


사무동/휴게동 3층 평면도


사무/휴게동 우측면도 우측면도



사무동/휴게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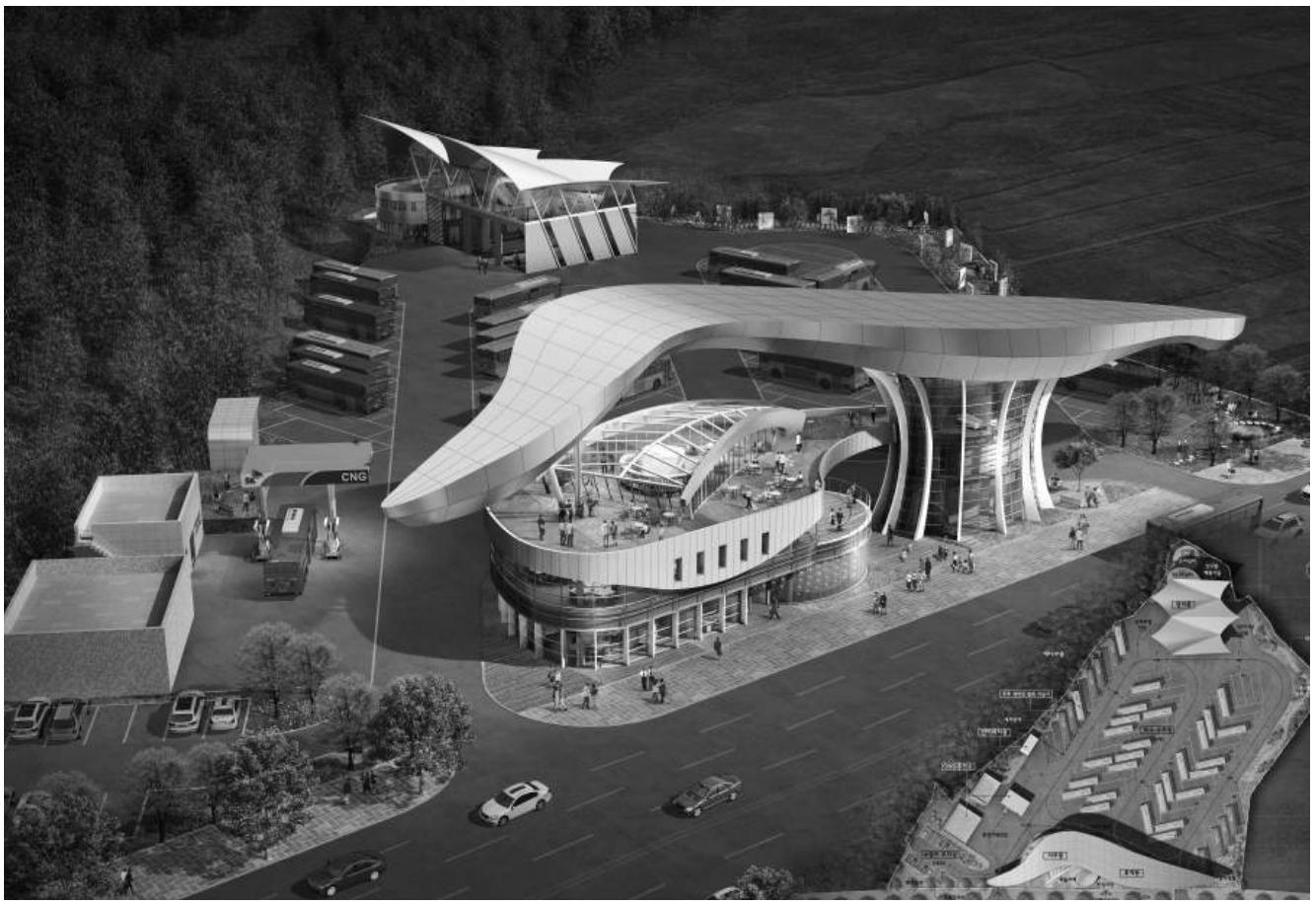

정비동 정면도 좌측면도



사무동/휴게동 1층 평면도


사무/휴게동 횡단면도 종단면도





포항 버스 공영차고지

Pohang Public Bus Garange

우수작 _ 곽은선
이에스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14번지 외 17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영차고지
주요용도	자동차관련시설
대지면적	10,967㎡
건축면적	계획 869.2㎡ (기존 CNG 충전소 포함 : 1,081.5㎡)
연 면 적	계획 1,866.6㎡ (기존 CNG 충전소 포함: 1,963.9㎡)
건 폐 율	9.86% (기존 CNG 충전소 포함)
용 적 률	17.1% (기존 CNG 충전소 포함)
구 조	철근콘트리트조, 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설계담당	김희성, 박일수(충북대학교)

포항시는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공간을 디자인하여 철강 산업 위주의 도시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한다.
이에 본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예술도시,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한 포항의 비젼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획의 개념

매캐한 연기… 기계의 소음… 정신없이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
그 속에 우리의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바쁜 발걸음 속에서 잠시 쉬어갈수 있는 곳, 꿈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실어나르는
버스차고지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기본계획의 방향

Culture Zone
- 기존 차고지의 기능과 함께 기사와 시민에게 열린 문화공간 제공

Buffer Zone
- 주변의 녹지축을 대지로 연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차고지의 소음과 매연에 대한 버퍼존 형성

Tectonic Structure
- 철강산업의 메카인 포항시의 특성을 살려 철골과 콘크리트 구조미의 극대화를 통해 구축의 시학을 통한 포항의 영일만 르네상스를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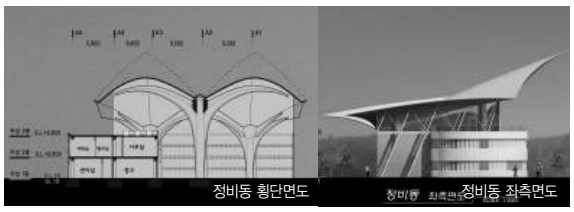
평면계획

사무동 / 휴게동
- 사무동 1층 교육실을 다목적 강당으로 계획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 사무동 3층 하늘과 자연을 감상할수 있는 위치에 카페 및 작은 도서관을 계획하여 시민과 직원의 열린 휴게쉼터 제공, 휴게동 2층 체력단련실을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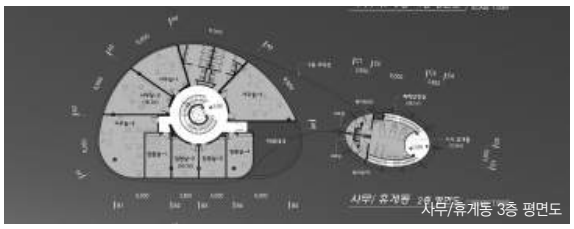
정비동
- 차량의 진행방향에 정비소의 입구와 출구를 수평으로 분리 배치하여 차량동선의 합리적 계획, 정비동의 경사지붕과 아름다운 구조물 하부 일부 공간을 직원 휴게공간 계획, 외부 휴게 공간과 관리자 동선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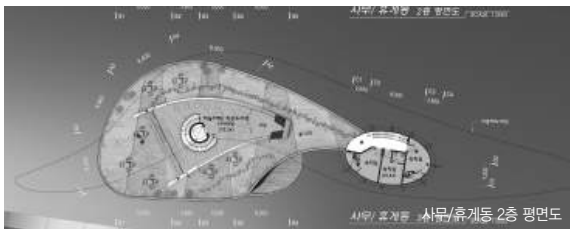

정비부속실 2층 평면도

정비동 1층 평면도


정비동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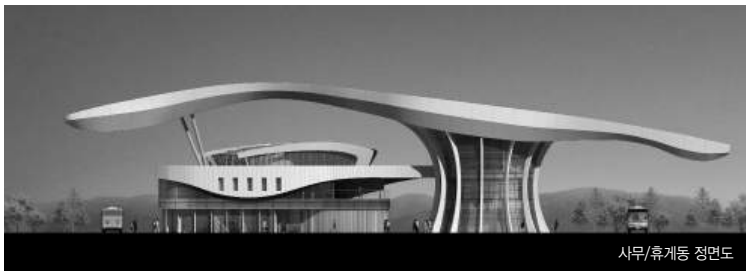
정비동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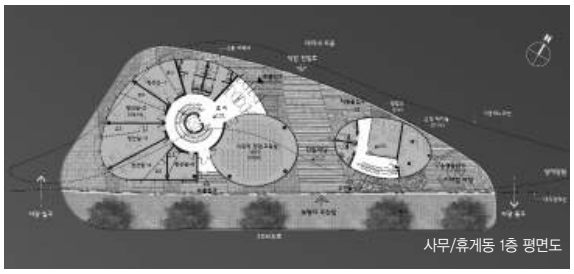

사무/휴게동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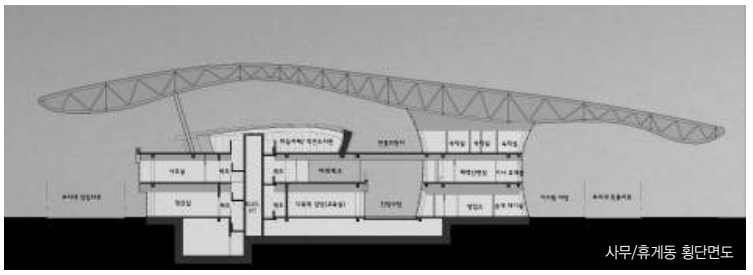

사무/휴게동 2층 평면도



배치도


사무/휴게동 정면도


사무/휴게동 1층 평면도


사무/휴게동 횡단면도





포항 버스 공영차고지

Pohang Public Bus Garange

가작 _ 이희재 정회원
EG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14외 17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영차고지
주요용도 자동차관련시설(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대지면적 10,930.00㎡
건축면적 1,939.14㎡
연 면 적 1,292.25㎡
건 폐 율 13.76%
용 적 률 18.63%
구 조 철근콘트리트조, 일부 SRC
규 모 지상 3층

본 대지는 포항시 오천읍에 위치하며 동서로80m 남북으로 약125m의 사다리꼴 형태로 남측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연녹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지의 남측면은 30m 계획도로로 여기에서 주진입이 이루어지며 남측면 전면에 신광천이 위치한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지리적여건이 원할하며 이에 따른 이용자중심의 오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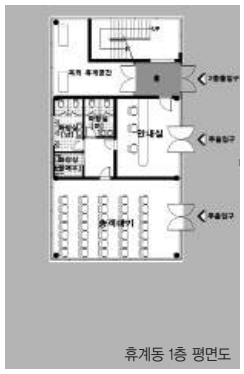
사무동+정비동 평면계획

- 1층 평면계획 : 코어를 중심으로 식당 부분과 업무공간을 분리 배치하고, 정비동은 우측으로 분리하여 영역성을 확보하였다.
- 2층 평면계획 : 코어를 중심으로 직원 및 임원 사무실을 분리 배치하고 업무공간을 2층에 배치하여 정비동의 소음으로부터 이격시켰다. 일조에 유리하도록 남향 배치하였고, 업무공간의 조망권을 확보하였다.
- 3층 평면계획 : 코어를 중심으로 옥상 휴식 공간 및 교육장을 분리 배치하고, 조망권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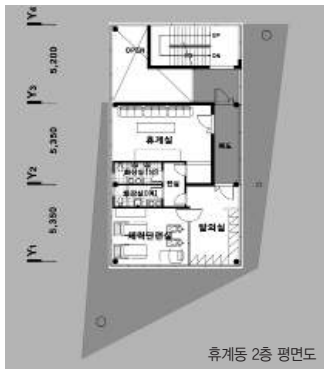
휴게동 평면계획

- 1층 평면계획 : 공용공간을 1층에 배치하여 활용성을 극대화하였고, 2~3층에 전용 코어를 두었다.
- 2층 평면계획 : 동적공간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활용성을 극대화하였고, 2층을 직원 전용공간으로 구획하였다.
- 3층 평면계획 : 독립적인 숙소 공간 형성으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였고, 정적공간으로 소음 부분을 차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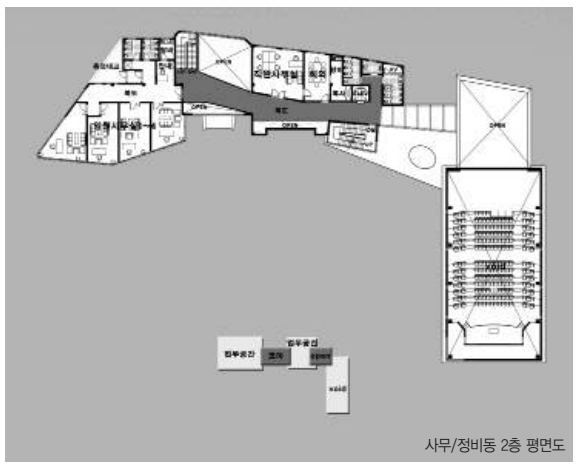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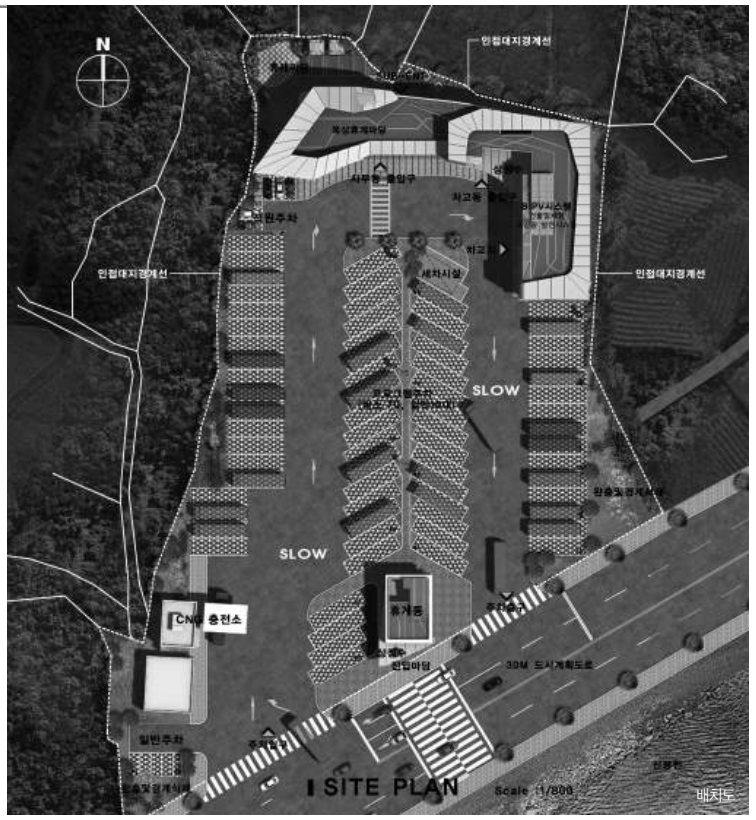
휴게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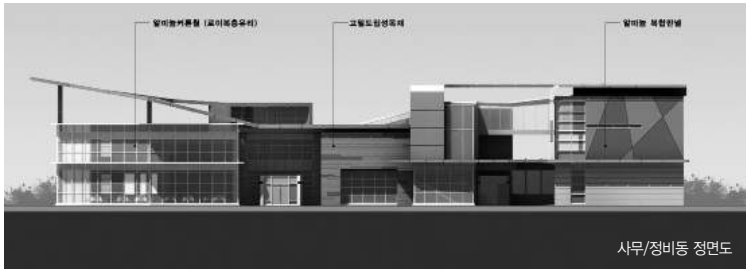
휴게동 2층 평면도



사무/정비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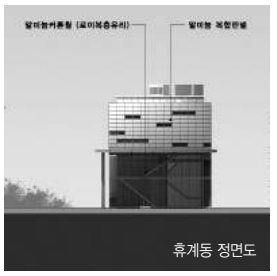
배치도



사무/정비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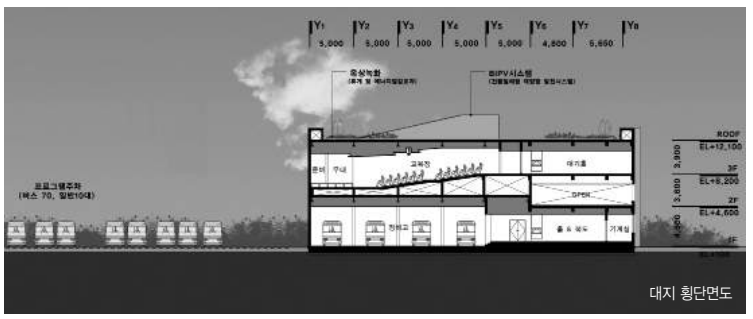
사무/정비동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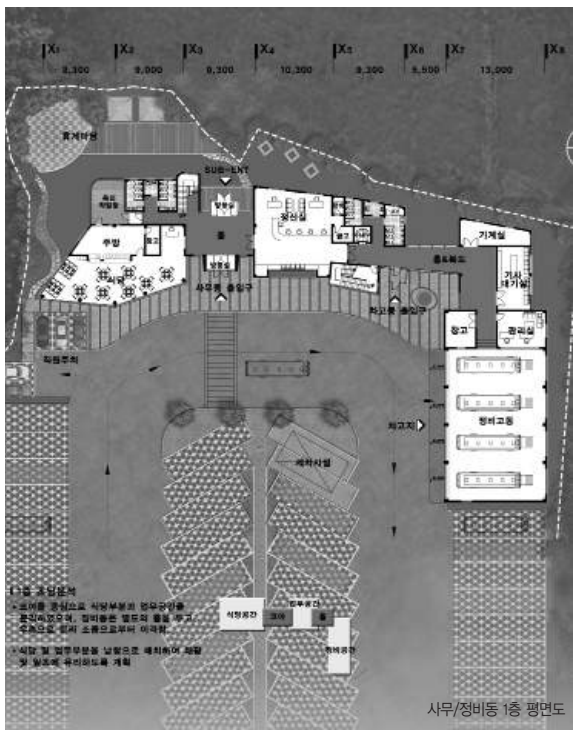
휴게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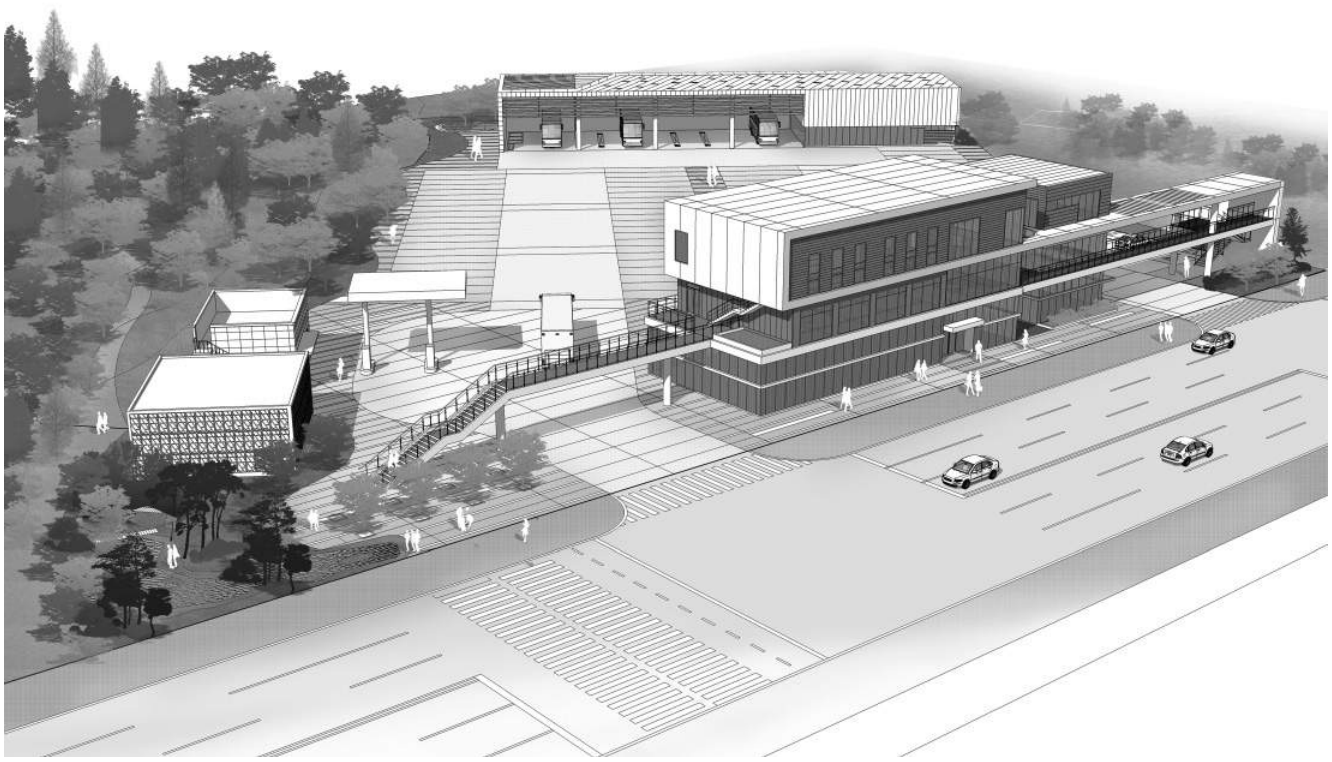
대지 종단면도



대지 횡단면도



사무/정비동 1층 평면도



포항 버스 공영차고지

Pohang Public Bus Garange

가작 _ 신철균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다모

대지위치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14번지 외 17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영차고지
주요용도	자동차관련시설(시내버스공영차고지)
대지면적	10,967.00㎡
건축면적	1,535.46㎡
연 면 적	2,023.29㎡
건 폐 율	14.00 %
용 적 률	18.54 %
구 조	철근콘트리트조, 철골조
규 모	사무동+휴게동 – 지상 3층 / 정비동 – 지상 1층

"도심속 Linkage 공간만들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Node로서 자연과 하나되고 휴식과 문화적 체험을 주는 대지 주변의 "Linkage"의 구심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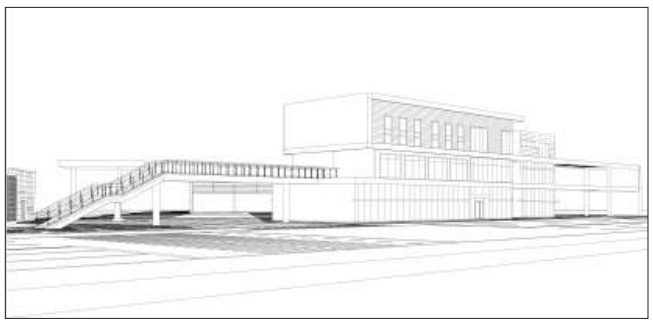
배치계획
- 주변 환경과 생태적 자연환경 보존을 고려한 배치계획
- 사무 휴게동을 중심으로 중앙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적용
- 차량과 이용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고려한 적절한 분절과 융화된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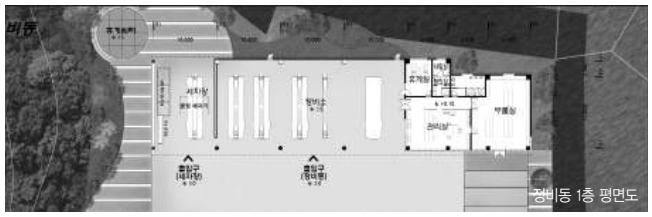
사무+휴게동 평면계획
1층 평면계획
- 사무 휴게동의 남쪽 전면부 배치, 업무시 쾌적함과 안락함, 에너지 절약 기능을 함께 고려한 배치계획
- 필로티로 연결되는 동선 계획, – 사무휴게동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관리가능
- 연결 브릿지의 입체화 부여로 보행자와 차량의 진?출입 동선의 명쾌한 분리
- 주출입구 전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개방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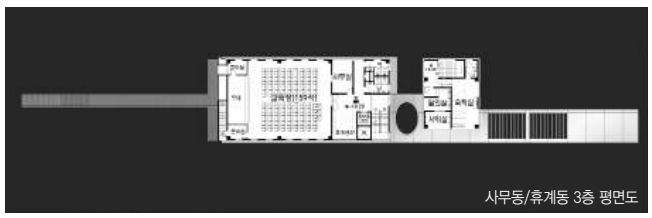
2층 평면계획
- 임원실을 남측 전면 배치, 하천을 향해 열린 공간을 계획하여 업무효율 증진하고 전면발코니를 적용하여 완충공간을 제공하는 입체적 공간조성
- 연결브릿지를 통한 안전한 기능별 동선 연계, 연결브릿지를 통해 입체적 동선을 이루어 안전하고 명쾌한 동선분리
- 외부 계단을 이용 유사시 피난 동선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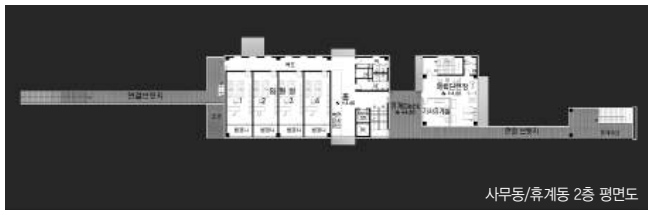
3층 평면계획
- 교육장 관람석 156석확보, 교육장에 부합하는 무대 및 준비실 배치
- 교육장에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도입 및 장애자용 관람석배치
- 숙직실에 남측 채광을 확보하여 난방에너지 절감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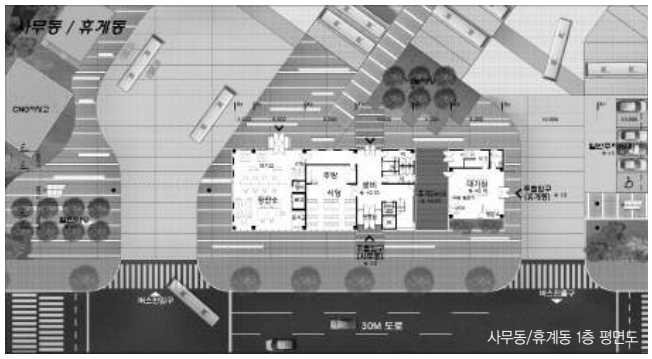
정비동 평면계획
- 관리실을 남쪽 전면부 배치해 업무시 쾌적함과 안락함, 에너지 절약 기능을 함께 고려한 배치계획
- 세차장–정비고–관리실–부품실의 효율적 연계로 정비기능의 성능 최적화
- 적절한 내외부휴게 공간을 연계하여 업무만족도 향상구현
- 주차장과 유기적 연계로 부지 활용효율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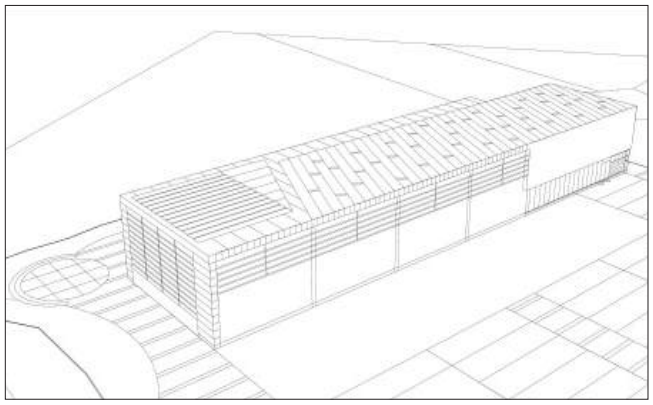

경비동 1층 평면도


사무동/휴게동 3층 평면도


사무동/휴게동 2층 평면도



사무동/휴게동 1층 평면도




배치도


사무동/휴게동 정면도


사무동/휴게동 배면도


사무동/휴게동 횡단면도


사무동 종단면도 휴게동 종단면도


정비동 정면도 우측면도
정비동 횡단면도 종단면도

campaign

*.dwg 납품!
하지 맙시다!

국내의 건축설계 및 각종 설계에 중요한 수단인 CAD 프로그램은 그 결과물을 주로 *.dwg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간 인허가, 심의 등 대관업무나 납품 등 건축주 관련업무, 또한 시공사와의 업무에서 *.dwg파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스(source)파일 형태로서 변경과 재생산이 용이하여 인허가상 기록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관리측면에서도, 또 업로드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저장장치의 용량도 매우 많은 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건축주나, 시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에 관련한 자료로 활용되는 도서류에 있어서도 기록의 의미가 크므로 dwg 포멧의 파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만일 현장에서 도면의 치수 등을 알기위해 dwg파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dwf파일로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서의 치수를 알고 싶다면,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면을 납품하시거나, 업로드 하실 때는 *.dwg파일 대신에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도면의 크기대로 만드셔서 납품 하시면 건축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되고, 편리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건축사님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민원신청 내용과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699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건축현상설계와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규정(SIA102) 분석을 통한 건축사의 역할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and Regulation governing architects' services and fees (sia102) by analyzing the role of architects in Switzerland

필자 : 임구성, 현 kimlim architekten eth sia 공동대표
by Lim, GuSung Dipl. Architekt ETH/SIA



중앙대를 졸업 후 동우건축과 삼우설계에 있었으며, 쮜리히 연방공과대학 건축과(ETH Zurich)를 졸업했다. 쮜리히에 있는 설계사무소 Duerig AG와 Burkhalter Sumi에 근무했으며 현재 스위스건축사협회(SIA) 정회원이며, Baumschlager Eberle에 있으면서 다수에 국제현상설계에 당선된 바 있으며 프로젝트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동시에 김은호와 유럽공개현상설계 당선을 계기로 스위스 쎙갈렌(St.Gallen)에서 kimlim architekten를 설립해 공동운영하고 있다

목 차

1. 스위스의 건축현상설계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of Switzerland

2.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규정(SIA102) 분석을 통한 건축사의 역할
Regulation governing architects' services and fees (sia102) by analyzing the role of architects

스위스에서 건축현상설계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전통적이며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 스위스건축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현상설계는 갓 학교를 졸업한 젊은 건축가의 실습의 터이며, 기성건축가의 계속되는 건축실험의 장이다.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젊은 건축가는 자신의 사무실을 가질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건축현상설계에 관한 세부지침은 스위스건축사협회에 의해 1877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공공건축의 실제적인 발주방법으로 스위스 건축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나의 건축물은 건축주와 건축가를 비롯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완성이 되는데 그 건축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시대와 지역에 따라 건축사의 역할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위스의 전통적인 건축용역계약은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그리고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이 아닌 건축주와 건축사의 하나의 계약으로 건축물이 완성이 된다. 건축사는 건축업무 전반의 총책임자로서 우리나라처럼 건축설계 후 공사 감리업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부터 공사시공 그리고 준공까지 건축업무전반에 막중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업무과정을 통해 건축가의 기본 설계개념을 건축물의 완성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다.

건축사는 건축디자인 능력과 더불어 건축업무 전반에 걸친 총책임자로서의 능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은 다른 예술작업과는 달리 구체적인 작업이기에 종이 위에 그려진 건축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땅 위에 사용자들을 위해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스위스 건축사의 역할은 건축사를 위한 업무와 보수규정(SIA 102)에 명시된 건축업무진행과정과 각 단계별 건축용역비에 의해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본 연재는 스위스의 공공건축발주방법인 건축현상설계가 어떤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건축사를 위한 업무와 보수규정(SIA 102)분석을 통해 스위스의 건축계약형태와 건축사의 건축업무수행단계 및 건축사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고자 한다.

I. 스위스의 건축 현상설계

1.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of Switzerland

스위스에서 건축현상설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공공건물과 대규모 일반 프로젝트는 모두 현상설계에 의해 프로젝트를 발주하기 때문에 건축디자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살아남기 힘들며 작은 규모라도 현상설계에 의해 프로젝트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축물의 질이 유지가 된다.

건축설계는 다른 일반 프로젝트와는 달리 단지 공사비 입찰만으로 건축사를 선택할 수 없으며, 모든 공공프로젝트와 규모가 큰 일반프로젝트는 현상설계를 통해서 건축사를 선정한다. 발주자는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설계 안을 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사비와 건축의 질이 보장된다. 건축사는 당선을 위해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야 하지만 당선이 되면 주어진 건축예산 범위 내에서 커다란 설계변경이 없이 원안을 계획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스위스 연방법으로 정한 스위스 공공건축의 발주방법인 건축현상설계의 중요내용과 실제 시행되는 현상설계의 내용을 알아보고 끊임 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 우리의 건축현상설계제도의 비교근거가 되어 더 성숙된 우리의 건축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공공프로젝트의 발주 – 건축현상설계를 통해서

1996년 개정된 공공프로젝트의 발주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는 1995년 국민투표를 통해 GATT/WTO 국가와 서비스영역을 완전 개방해 19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이후로 공공프로젝트는 더 이상 지방이나 스위스내에서의 경쟁이 아닌 GATT/WTO 국가에 완전히 개방해 현상설계를 통해 프로젝트를 발주하게 된다.

그 목적으로는 투명한 발주체제, 현상설계의 강화, 공공자금의 경제적인 이용 촉진, 공평한 공개경쟁에 의한 효율적인 발주 등이다.[1)]

건축용역비가 250,000프랑(약 3억원)이 초과하면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공공 프로젝트는 투명하게 공개해서 건축사를 선정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각 칸톤과 시에 따라 그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건축현상설계에 의해 건축사를 선정하게 된다. 건축현상설계는 스타건축가를 발굴하는 거창한 구호 아래서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에서만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진건축가에게까지도 기회를 부여해 가장 합리적인 설계 안을 얻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작은 도시의 조그만 공공시설도 정해진 용역비가 초과하면 현상설계의 의해 건축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스위스연방정부는 공공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현상설계의 주요사항에 큰 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칸톤이나 시는 그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다시 정하고 발주자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에 맞게 알맞은 발주형태를 선택한다. 발주자는 건축현상설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건축사와 엔지니어 협회에서 정한 건축현상설계의 규칙(SIA 142)[2)] 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SIA 142는 연방법을 기본으로 그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목적 (Zweck)
- 협회규정의 현상설계규칙과의 관계 (Verhältnis zu verbandsrechtlichen Wettbewerbsbestimmungen)
- 현상설계의 종류 (Wettbewerbsarten)
- 이용방법 (Anzuwendendes Verfahren)
- 현상설계의 가치 (Wettbewerbswert)
- 준비과정 (Vorbereitung)
- 현상설계의 공고 (Ausschreibung)
- 젊은 건축가 지원 (Nachwuchsförderung)
- 무기명 (Anonymität)
- 사전검사 (Vorprüfung)
- 심사위원 (Preisgericht)
- 심사위원의 과제 (Aufgaben des Preisgerichts)
- 수상내역 (Ragierung und Preise)
- 심사위원의 추천 (Empfehlung des Preisgerichts)
- 저작권 (Urheberrecht)
- 현상설계의 권한 (Ansprüche aus den Wettbewerben)
- 보상조치 (Abgeltungsmodalitäten)
- 출판 (Veröffentlic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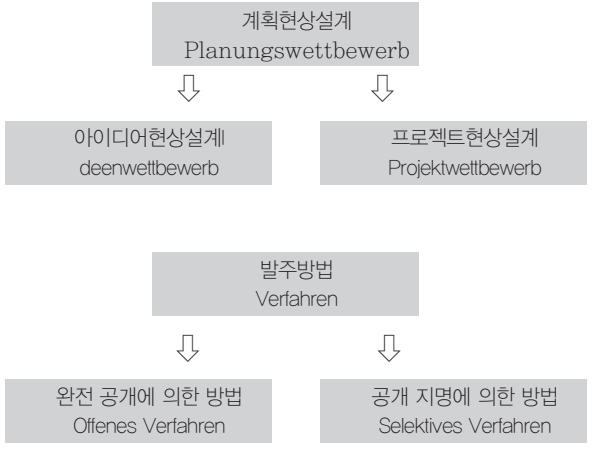
위의 항목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현상설계의 종류와 방법 (Wettbewerbsarten und Verfahren)

계획현상설계는 아이디어현상설계와 프로젝트현상설계로 나뉘어진다.

---

1) Bundesgesetz über 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 Zweck Art. 1
2) SIA - schweizerischer ingenieur- und architektenverein 스위스건축사 및 엔지니어협회
3) 172.056.11 Verordnung über 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 4.Kapitel Planungs- und Gesamtleistungswettbewerb



그리고 방식으로는 완전공개방식과 공개지명방식이 있다.

아이디어현상설계

이 방식은 프로젝트에 있어 기본 개념만을 요구하는 방식인데 실제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의 초기단계로 요사이 국책사업에 공개현상설계를 실시하곤 하지만 스위스에선 그리 흔하지 않다. 스위스 건축가들은 건축이론이나 담론보다는 실제 건물을 짓는 것을 보다 중요시 하기 때문에, 수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상설계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아이디어 현상설계는 입상을 하게 되면 상당한 상금이 주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실현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므로 참여율이 적을 수 밖에 없다.

프로젝트현상설계 / 완전 공개에 의한 방법

이 현상설계는 완전 공개방식으로 스위스 건축가 및 모든 GATT/WTO협정 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만 공개현상설계 방식을 실시하지만 스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개현상설계는 건축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며 이들은 이것을 통해 사무실을 설립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공모자가 많으므로 다양한 아이디어의 프로젝트를 통해 합리적이고 우수한 설계 안을 접할 수 있기에 건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다음 회에 언급하겠지만 스위스에선 건축사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 그리고 준공까지 전 프로세스에 걸쳐 총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발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개현상설계의 단점이랄까 위험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경험이 적은 신진건축가가 당선이 될 때이다. 이런 경우 프로젝트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용역 범위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건축용역범위의 약 60% 즉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제한하고 공사예산관리, 시공, 감리는 경험이 풍부한 다른 전문업체(Bauleitung)와 팀을 이루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복잡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건물을 완성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신진건축가는 자신의 건축적인 개념과 의도를 시공 감리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대부분 이 전문업체(Bauleitung)는 건축가 소속의 양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 건축가의 일부 업무를 보조 대신하므로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는 한 최대한 건축가의 의도에 맞추어 공사를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건축물은 건축가의 계획대로 지어질 수 있다.

이 공개현상설계는 최근 그 수가 점점 줄어 들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스위스에서 가장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젝트현상설계 / 공개 지명에 의한 방법

이 방식의 현상설계는 2단계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1차는 서류심사인데 공개현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스위스 건축가 및 GATT/WTO 협정국가 건축가면 지원을 할 수 있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A4 세 장 정도의 서류를 작성하고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두 세 작품의 실현된 건축물을 내용으로 하는 A3규격의 간단한 포토폴리오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장 및 건축가 등에 의해 구성된 심사위원에 의해 현상설계 참여자가 지명되며 이들만이 현상설계를 하는 방식이다. 선발 규정은 칸톤마다 그 우선순위가 다르지만 실현된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연관성, 대표건축사의 건축경험, 사무실 규모와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젊은 건축가는 이런 서류심사에서 기성건축가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칸톤 또는 각 프로젝트 마다 차이가 있고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진 않지만, 연방법으로 지정한 젊은 건축가 지원사업의 일한으로 지명자의 몇 퍼센트 정도는 실현된 프로젝트가 없고 경력을 갖추지 않아도 계획한 프로젝트가 우수한 젊은 건축가를 초대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적게는 5팀에서 약 20팀까지 참가자를 선정하며 전체상금은 평균 150,000프랑(약 2억원)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1등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약 30,000 또는 40,000프랑(약 3천 6백만 원/4천 8만 원) 정도의 상금과 건축용역이 주어지고 입상을 하는 경우 최소한 약 10,000프랑(1천 2백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비교적 제출물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간소하지만 대부분의 현상설계가 그러하듯이 스위스에서도 당선이 되지 않으면 그 만큼의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

젊은 건축가 지원 (Nachwuchsförderung)

공개현상설계에는 GATT/WTO 가입국가 건축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지명에 의한 현상설계는 1차에 공개서류전형으로 참여할 건축가를 선별하므로 실적이 적은 젊은 건축가는 참여기회가 거의 없으며 이에 법으로 참여자의 특정 비율을 젊은 건축가가 포함되도록 규정한다.

각 칸톤 및 시에서는 지명현상설계를 실시할 경우 젊은 건축가들의 지원을 따로 받는다. 젊은 건축가의 규정은 칸톤마다 다르지만 일반

적으로 사무실을 개업한 지 5년 이내 그리고 대표자의 나이에 제약을 둔다. 같은 조건의 젊은 건축가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약간 명을 지명하게 되는데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한 프로젝트에 지명된다.

무기명과 공정성 (Anonymität)

모든 현상설계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프로젝트마다 판넬에 참여자의 프로젝트명을 임의로 정해 기입하도록 하며 최종심사 후 따로 제출한 밀봉투에서 프로젝트명과 설계사무소의 이름을 확인한 후 당선자를 알 수 있다. 물론 부정행위로 당선이 되면 현상설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스위스에서는 사회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발주자나 건축가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로 한 사무실에서 현상설계가 진행중일 때 그 현상설계의 심사위원 중 한 잘 아는 지인이 다른 일로 이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이 건축사는 그가 오기 전 모든 벽에 걸려있는 도면을 감추었고 모두들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는데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러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고 하다니 말이다.

심사위원의 과제 (Aufgaben des Preisgerichts)

과반수 이상이 프로젝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진 심사위원은 현상설계 프로그램을 검토, 공고를 허용하고 참가작품을 평가한다. 심사는 분명한 방식으로 평가하며 문서화 한다. 즉 심사위원은 프로젝트 시작부터 선정이 되어 공개되는데 프로젝트의 설계공모 개요를 검토 승인 후에 공고되며 중간에 참여자의 질의응답도 심사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공고된다. 심사위원은 발주자, 참여자와 함께 프로젝트 시작부터 심사까지 항상 같이 한다. 지금까지 시행된 성공적인 현상설계를 살펴보면 소신 있는 심사위원에 의해 프로젝트가 선발된 사례가 많다. 한 프로젝트는 이 세 그룹 즉 발주자, 심사위원 그리고 참여건축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좋은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다.

저작권과 출판 (Urheberrecht und Veröffentlichung)

현상설계 프로젝트의 저작권은 각각의 참여자에 있으며 수상한 작품들의 제출물의 저작권은 발주자가 가진다.

발주자는 모든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알리고 입상한 프로젝트에 대해 각 프로젝트마다 A4 한 장 정도 분량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심사평을 통해 모든 참가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각 출판물에 출간하고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한다.

건축 및 엔지니어현상설계의 규칙(SIA 142)

1837년에 설립된 스위스건축사 및 엔지니어협회(SIA)는 1877년에 처음 건축현상설계방식의 원칙을 만들었으며 40년이 지난 후 1919년에 엔지니어현상설계의 규칙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 후 약 백 년에 걸쳐 현상설계의 규칙이 발전되어 왔다. 협회 내에는 현상설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각 시대의 필요와 현실에 맞게 대응 발전해 왔으며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다. 오랜 전통이 있고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듯이 현상설계규정 또한 명확하다. 사회적인 요구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건축계의 이슈로 발전시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건축 및 엔지니어 현상설계의 규칙(SIA 142)은 앞에서 설명한 연방법의 건축현상설계 지침을 세부적으로 다시 규정함으로 연방법에서 언급하지 않은 모호한 사항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건축가들이 만든 규정이니 만큼 건축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현상설계위원회에서는 1년에 약 100–120건 정도의 현상설계의 공모지침을 검토, 승인하고 있다.[4)]

실무에서 본 스위스 현상설계

연방법이나 지방법 그리고 건축현상설계의 규칙(SIA 142)에서는 현상설계의 주요지침을 규정하고 있지만 발주자는 프로젝트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발주형태 및 제출도서 등 기타사항을 결정한다. 다음은 현재의 공공건축 발주경향에 대해 알아 본다.

완전공개 또는 공개지명

최근 10년간 스위스에서 시행되어 온 공공프로젝트 중 대부분의 공개현상설계는 유치원, 학교, 실내체육관, 장애인 및 노인주거시설과 미술관 등이다. 물론 이 건물들도 이용자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병원이나 연구실험실 등과 견주어 볼 때 비교적 단순한 편이고 그 규모 또한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현상설계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비록 기능은 단순하지만 규모가 큰 고층사무실건물이나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건물, 병원과 같은 건물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요구된다. 이런 프로젝트는 대부분 지명현상설계에 의해 건축가를 선정하며 신인 건축가는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모든 프로젝트에 같은 발주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로젝트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출물의 요구사항 역시 같을 수 없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가는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 현상설계에 참여 할 수 있다.

설계제출도서

건축가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건축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현상설계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서 제출시 디자인과 관련이 적은 불필요한 요소를 줄여 참가에 소모되는 비용을

4) 실제로 더 많은 현상설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현상설계가 SIA의 검토 승인 하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참가자 및 발주자에게 당연한 이치다. 특히 스위스에선 임금 등 기본적인 물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은 서로에게 이득이 없다는 것이 잘 인식되어 있다. SIA 142 규정에 발주자는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라고 언급되어 있고[5] 심사에 필요한 것 이외의 전문적 요구사항을 금하고 있다.

다음은 스위스 현상설계에서 요구하는 제출 목록이다

이는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학교교육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설계 설명회 경우 다음과 같은 표현 양식이 요구되어져 심사위원이나 참가건축가에게 익숙해져 있다.

설계제출도서

- 도면 (A0또는A1)
  - 배치도 1/500
  - 평면도 1/200, 입면도 1/200, 주단면도 1/200
    (외벽단면상세도 1/50 또는 1/20)
- 모델: 배치모델 1/500
- 개념 설명 (판넬에 표현)
- 각실 면적표
- 면적계산(SIA 416에 의해)[6]
- (구조, 설비개념)
- A3로 축소한 판넬 1부
- CD (PDF)
- 밀봉된 참가자명

배치도는 항상 1/500의 축척을 요구하며 이는 석고모델과 같은 축척으로 도시적인 관점을 심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면 중 하나이다. 외벽단면상세도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주로 요구된다.

스위스건축현상설계의 특징 중 하나가 석고모델인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하지만 스위스는 예외 없이 항상 이 배치모델(1/500)이 발주자에 의해 제공이 되며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건축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주변과 같은 하얀 석고로 매스 자체를 표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프로젝트를 같은 조건에서 도시적 관점 위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

석고모델은 현상설계 참가비 약 400프랑(48만 원)을 지불한 후 받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참가비는 돌려 받는다.

면적 및 체적은 스위스건축사협회에서 만든 방식(SIA 416)에 의해 계산하며 이 면적을 근거로 발주자는 건축공사비를 대략 책정할 수 있다. 발주자는 최종후보에 올라온 작품들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 건축공사비를 더 정확히 계산해 심사에 반영한다.

구조, 설비, 친환경설비 등의 개념은 특정 프로젝트에 요구되는데 개념만 표현하면 되는 정도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심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상설계는 기본계획 또는 그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 개념과 디자인이 더 중요하며 건축설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 설비 등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선 일반적으로 설계설명서을 요구하지 않고 작품의 개념을 판넬에 다 표현하길 권장한다.

심사위원은 판넬과 배치석고모델 만으로 작품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상설계에 요구하는 설계설명서처럼 프로젝트디자인과 비교적 관계가 적은 소모적인 요소들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발주자마저도 노력한다. 과대한 요구를 하게 되면 응모자가 적어지며 발주자로서 좋은 작품을 얻을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설계설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1부만 요구하고 더 필요한 부수는 발주자가 복사를 하든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 스위스에서 어떤 현상설계에 만약 50페이지 정도의 제본된 설계설명서 20부를 요구한다면 그에 합당한 설계용역비를 지불하기 전에는 참가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스위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프로젝트의 발주방법인 건축현상설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랜 전통을 가지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협회 및 각 칸톤에서는 쥐리히 연방공대 건축학과 등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현상설계의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오늘날 현상설계가 스위스건축문화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우리와 비교해 프로젝트 규모나 발주방식에 차이가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는 다르지만 현상설계가 건축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현상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자와 참가자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모두가 당선자를 축하해 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 발주자는 상금만 내걸고 다른 모든 일은 참가자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응모자가 건축디자인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현상설계는 불필요한 소모전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념적인 작업을 요구해야 한다. 프로젝트마다 성격에 맞게 현상설계의 방식을 선택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공개현상설계로 실시해 많은 건축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지명현상설계를 할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처럼 제도적으로 신진건축가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여야만 현상설계가 일부 소수 집단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건축인 전체를 위한 건축문화로 자리잡을 것이다.

참고문헌

1. Bundesgesetz über 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 vom 16. Dezember 1994 (Stand am 1.Juli 2010)
2. Ordnung SIA 142 Ordnung für Architektur und Ingenieurwettbewerbe, Ausgabe 1998
3. Ordnung SIA 416 Flächen und Volumen von Gebäude
4. Ordnung SIA 102 Ordnung für Leistungen und Honorare der Architektinnen und Architekten, Ausgabe 2003
5. Gesamtleitungen und Bauen, Paul Meyer-Meierling, Vdf Hochschulverlag AG an der ETH Zürich 1999
6. Drei Bücher über den Bauprozess, Sacha Menz, vdf Hochschulverlag AG an der ETH Zürich 2009

5) SIA 142 Art 13.1
6) SIA 416 Flächen und Volumen von Gebäude 건물의 면적 및 체적, 스위스건축사협회에서 만든 방식

친환경 건축 설계 아카데미 지상강좌(完)

Sustainable Architecture Academy paper lecture

6. 친환경 리모델링 건축
필자 : 이해욱, 우송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교수
by Lee, Hae-wook



1985년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동대학원 석사를 거쳐 2006년 국립충남대학교에서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우송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우송대부설 GA건축디자인센터 소장으로서 연중 다양한 건축디자인과 도시환경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졸업후 15년간 (주)정림건축, (주)삼우건축, (주)일송건축, HOK, LA 등에서 설계실무를 하였으며, 제1회 대전건축문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대전광역시 건축대전 추천작가, 지식경제부 기술혁신 평가위원, 조달청 설계자문위원, LH공사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경관 · 도시계획 · 건축 · 건설기술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2011년 「피렌체–욕망의 성벽에 기대서서」 포토에세이 출간 및 3회의 개인 사진작품전을 연 사진작가이기도 하며,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2008년 제3회 한국생태환경건축대상, 2009년 제44회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특선, 2010년 대전일보 국제사진대전 입상 및 2010년 자랑스러운 성균건축 40인상을 수상하였다.

목 차

1.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김광현**	서울대학교
2. 친환경건축의 개념과 이해 친환경건축정책 및 친환경인증제	**이윤하** **김민철**	생태건축연구소 국토해양부
3.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친환경적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계획	**이승일** **이아영**	서울시립대학교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4. 패시브건축설계 개념 및 방법 엑티브시스템 건축계획과 설비 시스템	**조 한** **이응직**	홍익대학교 세명대학교
5. 고성능 파사드 및 외벽설계 친환경재료 및 자재적용	**박기우** **이선영**	비정형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6. 친환경 리모델링 건축	**이해욱**	우송대학교

지구라는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류에게 지구의 온난화와 에너지원의 고갈 등은 인류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몇 번의 오일쇼크와 오존층의 파괴 등 지구환경의 변화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관심사가 이제야 친환경으로 모아지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건축계에서도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명제가 화두가 된지도 몇 해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구체적인 실천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막연한 개념과 건축에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점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이에 「건축사」지에서는 우리협회의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건축강좌"의 내용의 일부를 선정하여 요약, 연재함으로써 친환경건축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친환경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친환경 리모델링 건축

Remodeling Method for the Green Building

리모델링의 개념과 시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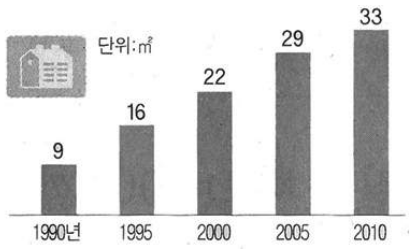
사회적 배경

자본흐름의 변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를 강타한 국재금융위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기본척도가 되고 있는 주가지수를 요동치게 하였다. 이는 건설시장의 자본흐름과 PF사업에 치명타를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시장으로서 리모델링시장이 최근들어 다시 한번 조명되기 시작하고 있다



리모델링시장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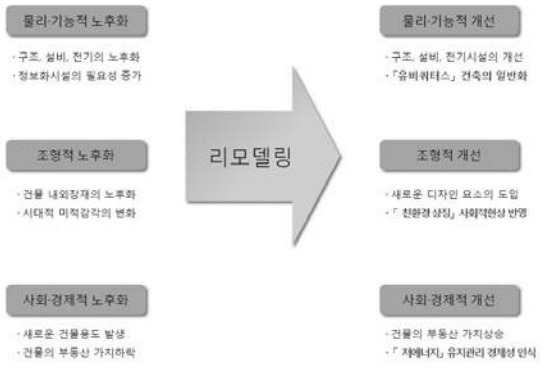
국민 1인당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지난 20년 사이에 9㎡에서 33㎡로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건축물 중 지은 지 15년 이상지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축물이 70%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1/4분기 1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건축물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전국의 건축물 수는 667만 9804개 동, 전체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5배인 32억 6300만㎡였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주택) 67.2%(449만동) / 상업용(상가 · 오피스 · 호텔) 16.9%(113만동) / 공업용(공장) 3.8%(25만동) / 문화 · 사회용(학교 · 의료 · 문화시설) 2.6(17만 동) / 기타(농수산용, 공공용 등) 9.5%였다. 1인당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은 1990년 9㎡(2.72평)에 그쳤으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1995년 16㎡, 2000년 22㎡, 2005년 29㎡, 지난해 33㎡(9.98평)로 증가해 20년 사이 3.5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비중은 연면적 기준으로 1990년 28%에서 2000년 48%, 지난해 55%로 높아진 가운데 부산 · 대전이 각 60%로 가장 높고, 서울은 51%로 절반을 조금 넘었으며, 제주가 26%로 제일 낮았다. 이에 따라 80년대 수도권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대량 공급되었던 아파트단지들은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아래 도표는 현재 추진중은 주요 리모델링 사업계획들이다.

지역		N	단지명	준공 연도	가구수	사업단계
고양 일산	마두동	1	강촌마을 라이프	1993	1,558	추진위 구성
	백석동	2	백송마을 풍림	1992	786	추진위 구성
	금정동	3	율곡마을 주공 4단지	1994	2,042	추진위 구성
군포		4	가야마을 주공 5단지	1993	1,601	시공사 선정
산본	산본동	5	주공 6단지	1994	1,827	추진위 구성
		6	한라마을 주공 4-1단지	1992	1,248	추진위 구성
		7	반달마을 건영-선경	1993	2,742	건축심의 준비
부천	상 동	8	한아름마을 현대라이프	1994	1,236	추진위 구성
중동	중 동	9	한아름마을 동성 · 동화	1994	1,428	시공사 선정
		10	복사골마을 건영	1993	700	조합설립
성남 분당	서현동	11	미리내마을 동성	1991	970	조합설립
		12	효자촌 대우 · 대창 · LG · 화성	1994	1,774	추진위 구성
	야탑동	13	매화마을 공무원1	1995	562	우선협상 시공사선정
		14	매화마을 공무원2	1995	1,185	추진위 구성
		15	장미마을 현대	1995	2,136	추진위 구성
	이매동	16	이매촌 금강	1992	588	시공사 선정중
		17	한솔마을 주공5	1994	1,156	조합 설립
	정자동	18	느티마을 공무원3	1994	770	추진위 구성
		19	느티마을 공무원4	1994	1,006	추진위 구성
	평촌동	20	향촌마을 롯데	1996	530	우선협상 시공사선정
		21	향촌마을 현대 4차	1992	552	우선협상 시공사선정
안양		22	목련마을 대우 · 선경	1992	994	조합 설립
평창	호계동	23	목련마을 우성3	1992	902	건축심의 준비
		24	무궁화 건영	1992	468	추진위 구성
		25	무궁화 진흥	1994	321	추진위 구성

리모델링의 개념

리모델링은 건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건축행위이다. 리모델링이 신축이나 재건축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기존 건물을 허물지 않고 보존하면서 성능을 유지하고 개선시키는데 있다. 건물의 물리적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준공 당시에 설정된 성능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고 회복시키는 제반 활등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사회적 성능 개선은 건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성능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능 향상 활동을 의미한다. 리모델링

은 이러한 물리적 성능과 사회적 성능 개선을 모두 향상시키는 건축 행위를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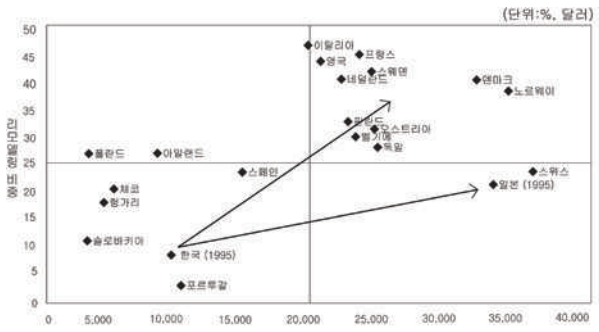


선진국 시장의 동향

오늘날 선진국의 경우 건물의 신축에 대한 수요보다는 기존 노후 건축물을 유지관리 개선하는 건축에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유럽 시장

2001년도 기준으로 서유럽 15개 국가 전체의 부문별 건설시장 비중을 추계한 통계를 보면, 주택 리모델링의 비중이 23%로 주택 신축과 더불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비중도 14%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건축 리모델링은 37%에 이르며 여기에 토목시장을 합할 경우 전체 리모델링 시장은 44%에 이른다.



일본시장

유럽보다 산업화 과정이 늦게 진행된 일본은 1980년대까지 신축에 대한 수요가 왕성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불어 닥친 버블붕괴 이후 민간 건축부문의 신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도 기준으로 일본의 전체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 였다. 이후 리모델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17.9%, 2004년도에는 23.4%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9.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0년도의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약 17조엔으로 가장 규모가 큰 정부건설부문과 비슷하고 민간 신축건설 규모 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시장의 전망

선진국의 건설산업 성장과정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 총수주액은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1인당 5천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는 국민총생산의 10~20%까지를 차지했으며, 국민소득이 1인당 1만달러 이상이 되면 SOC의 확충이 점점 축소되면서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게 되어 국민 총생산의 10%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988년 정부의 200만 호 주택 건설계획을 시작으로 매우 높아지기 시작했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5년간 연간 평균 40만호로서 200만 호 공급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택건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적으로 이 기간 동안 271.7만 호가 공급되었다. 이는 1970년부터 1987년까지의 연간 평균 주택공급량이 12만 호 정도임을 비추어 볼때 기존의 4배도 넘는 공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 종료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주택보급률은 매년 신장을 보여 2001년 97.3%, 2002년에는 100%, 2005년에는 103%를 넘어섰기 때문에 주택신축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확대 될 것이 예상된다.

신규 건축시장의 개발

신규시장 조성요인

(1) 물리적 요인	노후 건축물 Stock 증가 → 서울시 5천평이상 업무용빌딩 775개/ 10층이상의 고층아파트 61.4%
(2) 경제적 요인	저비용·고효율 투자 / 자산가치의 상승 →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용의 절감
(3)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구 기능의 변화 → 정보화·자동화·쾌적화·고급화·다양화·개성화
(4) 제도적 요인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재개발·재건축 규제강화, 리모델링 전문업체
(5) 시대적 요인	지구환경시대의 새로운 친환경 패러다임 → 개발·성장 드라이브에서 친환경·개발드라이브로 전환

신규시장 개발가능 분야

(1) 분석 기획분야	1. 현황분석 및 전망 2. 실용화 전략수립 3. 사업성 평가지표
(2) 조사 진단분야	1. 구조노후 진단기법 2.환경에너지 진단기법 3. 건축노후 진단기법
(3) 설계 시공분야	1. 설계요소 유형화 2.리모델링형 CM기법 3. 리모델링 상품화

신규시장 개발 사례

(1) 건축노후 진단


아파트외벽 도장 진단


현관주변 타일 진단


진단보고서 / 기기


진단보고서 / 비상계단

(2) 리모델링 설계 및 단위시공의 상품화사례



현관



침실



욕실

리모델링 마케팅과 법제

리모델링 마케팅

리모델링 마케팅은 경영학의 마케팅 이론을 건설부동산 상품에 적용한 건설 부동산마케팅의 한 영역이다. 따라서 리모델링 마케팅은 리모델링 상품을 팔기 위해 마케팅적 도구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리모델링 마케팅 환경이란 리모델링 시장과 대내 · 외적으로 관련 있는 제반환경 변수들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자연환경, 경제환경, 정치환경 그리고 사회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 층간소음, 새집증후군, 실내공기질 등 주거의 환경문제가 자연환경에 포함된다.

2) 경제환경 – 리모델링 마케팅도 전체 경제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리모델링 마케팅도 특정 시점의 경제구조와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3) 정치환경 – 정치환경은 강력한 억제수단과 동시에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한다.

4) 사회환경 – 최근 리모델링 상품도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최적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트렌드의 변화는 리모델링 마케팅의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변수이다.

리모델링 관련법제

규제의 모호성

① 국토부 – '가구별 전용 30% 증축 허용'을 입법화하면서 공용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규정하지 않으므로 해서 전국의 모든 '리모델링추진 단지는 주거전용면적을 30% 증축이 가능 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받아 검토한 결과 가구별로 전용면적을 30% 늘리고 지하주차장 , 계단 등 공용면적을 추가로 증축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며 리모델링 때 1개층을 '필로티'로 할 경우에만 1개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② 법제처 –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리모델링 때 전용면적 30% 증축이 가능 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받아 검토한 결과 가구별로 전용면적을 30% 늘리고 지하주차장, 계단 등 공용면적을 추가로 증축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있다.

③ 현 황 – 법제처의 이번 법령해석을 기준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법적 기준을 다시 정비할 계획이나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 하는데만 6개월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직 리모델링의 논란

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논의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말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과 관련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리모델링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1일 첫 회의를 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여부와 관련한 논란은 조성된 지 20년이 가까워지는 경기도 분당·일산 등 5개의 1기 신도시 아파트 200만 가구를 비롯해 서울 강남·서초·노원·성동구 등의 상당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TF는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팀장으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택 공급 및 도시계획 정책 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됐다.

〈2010.12〉

층수 높여서 가구 수 못 늘린다
서울·수도권 리모델링 급제동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덜려던 서울·수도권 50만5000여 가구의 리모델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리모델링을 할 때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을 허용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도시주택연구원으로부터 리모델링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

브레이크 건 정부

"안전성·형평성에 문제 리모델링은 보수 중심"

출발이 required 된 수직 증축(층수를 높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을 원한 일반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진국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들고 구조 안전성이나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국토부는 단지 내 빈 공간을 활용한 수평 증축(전문의 말에 따르면 넓혀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을 원한 일반분양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85㎡이 지나며 대상이 되는 재건축에서도 용적률 등 여건에 따라 가구 수가 기존 늘어나지 않는 곳도 있는데 15년만 지난 아파트에 리모델링 때 가구 수를 늘려 주면 용적률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 일대로 주택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을 개 보수해 쓰는 '수선'의 성격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하는 수도권 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리모델링은 사업비를 주민이 모두 부담하는 점을 감안해 조합원 동의를 받기 어려워 대부분 지지부진

반발하는 주민들

"일반분양한 수입으로 부담 좀 덜려 했는데 –"

리모델링은 일본은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수평 증축할 수 있고 지상 1층은 필로티 기둥만 세운 뒤 공간으로 만들고 1개 층을 수직 증축하는 것에서 주민들 부담이 적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연 3% 정도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사업 절차와 등 부가가치세 면제,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철한 · 권효 기자

〈2011.1〉

〈2011.2〉

층수 높이는 리모델링 긍정 검토

조합·건설업계 의견 반영
국토부, 하반기 구체안 마련

아파트 층을 높여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방안이 다시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별동증축 등 다양한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제도와 관련한 개선안을 하반기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주택업계가 주장해 온 아파트 수직증축이나 가구 수 늘리기를 통한 일반분양 등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불가 방침을 밝혀 온 정부가 다양한 대안을 내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이번 결론이 낳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과천 국토부 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와 함께 추진한 시공·설계업자, 리모델링 조합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관련 공무원과 주택업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LH 산하 도시주택연구원이 국토부 의뢰로 발맞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 증축 등의 다양성 연구' 결과를 윤명호 박사팀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연구용역은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 등 기술적 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연구 내용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들어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별동증축 등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안과 리모델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가 검토 대상"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올지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LH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한구구조변환 도시주택 구조 안전성 재건축과의 제도 형평성 등 여러 측면에서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고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리모델링협회 등은 "기술적을 고려할 때 수직증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87개 단지 약 50000여 가구에 이른다. 연합뉴스

◆수직증축=층수를 높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층 40가구를 다음 45가구로 또는 15층 다 높아진 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가구 수 증가 없이 1층을 기둥만 받는 빈 공간 필로티로 한다는 것이 위 두 경우 같이는 불가능하다고 허용하고 있다.

친환경 리모델링 계획

친환경 리모델링의 개념

친환경 리모델링

친환경 리모델링이란 기존건물의 물리적 · 기능적 · 사회적 노후화를 해결하는 행위로서 LOHAS (Lif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로 대변되는 현대생활문화에 맞추어 자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리모델링의 포괄적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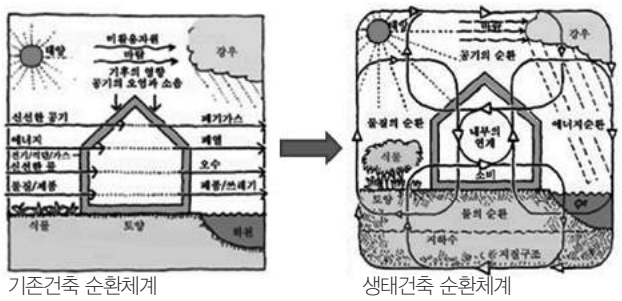
생태적 리모델링

(1) 개 념 – 생태적 리모델링은 건축물이 자연생태계의 일부로서 지구생태계(자연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물, 태양, 공기와 같은 자연순환체계에 건축에 통합시킴 으로써 에너지와 건축물 구성요소들의 재생 및 활용이 가능한 순환형 건축시스템을 의미한다.

(2) 적 용

①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조립 및 해제 또는 재사 용이 용이한 구법과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물의 전 생애기간 동안 발생억제 (Reduce), 재사용 (Reuse), 재활용 (Material Recycle), 열회수 (Thermal Recycle)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기존건축 순환체계 생태건축 순환체계

일반 리모델링과의 비교

리모델링의 경우는 환경부하형 건축시스템인 반면에, 친환경 혹은 생태적 리모델링은 환경부하를 줄이는 리모델링이다. 따라서 탄소배출량도 적고 에너지 사용량도 적은 리모델링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리모델링	친환경 / 생태적 리모델링
주요목적	– 일반적 주거기능 및 설비리모델링	– 환경부하 최소화하는 리모델링
건축재료	– 일반재료의 사용	– 재생 및 재활용 가능성재료 사용 – 해당지역 자연 생산재료 사용
에너지원	– 동력, 전력에너지 지원	– 자연에너지 최대이용
건축외관	– 페인팅, 마감재의 미관 교체	– 벽면녹화 등 에너지절감 자연기법 교체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성능이 좋은 기계설비로 대체	– 남향 공간의 선룸(Sun Room)화 – 외부 발코니 설치 및 이중창 설치 – 외벽 친환경 단열재 사용

친환경 리모델링의 주요관점

리모델링이 왜 필요한가라는 본질적 문제의 해결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우리사회의 궁극적 목표가 되고 있는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축을 실행 하는 관점에서 주요논점을 정리요약 할 수 있다.

기능적 관점

① 구조체를 진단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구조계획

② 공간의 새로운 요구와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

③ 건물, 설비, 에너지 유지관리가 용이한 인텔리전트화

경제적 관점

① 투자대비 최대의 경제적 건물 가치 상승을 위한

② 단열 및 설비기기의 고성능화로 유지 관리비 절약

친환경적 관점

① 자연생태계에 한 요소로 통합될 수 있는 건축물

② 자연 에너지 활용으로 탄소배출량을 최소화 하는 설비

사회적 관점

① 다양한시대의 문화적요구를 반영한 신개념 공간

② 생활스타일 변화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 가변형 계획

친환경 리모델링 요소기술

시스템 요소기술

시스템	친환경 리모델링 요소	기술 및 기법
친환경적 외부공간	수자원 절약재 이용	· 우물여과 장치의 도입
	친수공간의 조성	· 단지외부에 친수공간조성 · 단지에 실개천과 인공호수 조성
	건물외피의 녹화	· 건물녹화를 통한 에너지감소 · 덩굴식물에 의한 벽면 녹화
	옥상 인공지반	· 지붕 및 옥상 녹화
	녹지 조성	· 기존 녹지에 추가 식재 · 녹지축 개념 주차공간까지 적극 녹화
	자연생태 보전	· 단지 외곽에 작은 숲 울타리 조성
	우수의 이용	· 화장실 세척 및 관개용 우수의 이용 · 포장제거 하고 중정 우수처리 시스템설치
태양열 활용	태양전지	· 계단실 조명과 환기용 태양전지 설치
	태양열 집열판	· 온수공급을 위한 태양열 집열판 설치 · 열펌프 및 열저장소 설치
	부착온실	· 온실기능공간의 창문설치
	스크린 부착 복층유리	· 발코니 부분의 유리창문 설치
단열 시스템	열완충 공간의 조성	· 환경적 단열재료로 외벽과 지하실단열설치 · 최상층 주호에 대한 천장 친환경 단열
설비 시스템 설비 시스템	절수형 설비기기 사용	· 절수용 위생설비와 기기설치
	무공해 동력	· 중정의 우수처리 시스템 설치
건축 유지관리	친환경 건축자재의 재활용	· 자재 재활용 및 친환경 포장재료 사용 · 어린이 놀이터와 외부공간에 우드칩 사용

보금자리주택 친환경 요소기술

대분류	중분류	계획지표
복합 토지이용 복합 토지이용	오픈녹지 조성	연결녹지 조성 및 녹지 네트워크 형성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의 위계적 조성 및 복합 수계축 및 연결수로망 조성 수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의 조성 및 복합

대분류	중분류	계획지표
복합 토지이용 복합 토지이용	자연친화적 개발	바람길 조성 녹지와 생활공간의 혼합 수공간과 생활공간의 혼합 생태적 배후지의 보존
녹색교통	녹색교통 개발	자전거 도로체계구축 보행자 전용도로 친환경 주차방식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집단에너지 사업(지역냉난방/열병합발전) 건물에너지 이용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기밀 단열재 / 채광 및 일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시스템 자원순환 시스템 자원순환 시스템 자원순환 시스템	폐기물 저감 및 순환	유기성 폐기물
	중수도 시스템	식물을 이용한 생활 하수 처리 촉매를 이용한 폐수처리 하수정화처리의 중수 재이용
	우수이용	우수저류 및 살수, 수경, 방화 등 다목적 이용
	투수성 포장	투수성 포장 및 투수면적 최대화
생태 기반조성 생태 기반조성 생태 기반조성	생태녹화	현식생의 보전 및 재이용 생태학습원 조성 경계부분의 생물타리 조성 다층적 식생구조로 식재(수직적)
	건물외부녹화	옥상 및 지붕녹화 / 주차장 상부녹화 / 입면녹화
	소생물권조성	연못 조성 / 저습지 조성 물과의 경계부에 곤충 및 소동물 서식지 조성
경관계획	자연생태경관	거시적 자연생태 경관계획 미시적 자연생태 경관계획

에코하우스 친환경요소 기술

– 대림산업 '에코-3L 하우스' 개념도




에코3L 하우스 풍력발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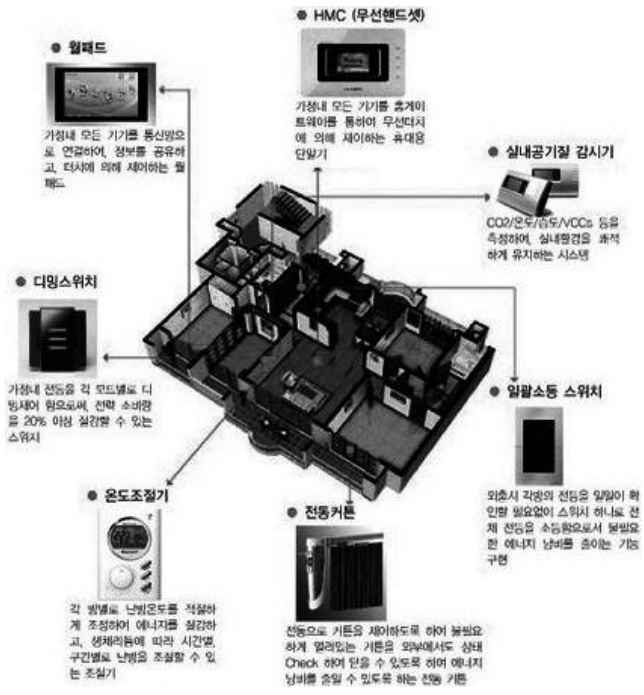

옥상녹화가 비녹화 옥상보다 열저장능력이 1도이상 우수


고효율 단열재와 3중유리


흐린 날씨에도 자연채광으로 지하 실내 조도가 118룩스가 넘어 일상생활 가능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을 실내에 적용한 예(왼쪽)이는 형광 등(오른쪽)에 비해 자연색상에 더 가까운 색채를 보임

그린홈 친환경요소 기술



(1) 그린홈 네트워크

그린홈 네트워크란 그린홈 내 에너지 절감 및 입주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세대단말기를 통해 그린홈 네크워크 기기들의 상태를 통합 관리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월패드, 무선핸드셋, 실내공기질 감시기, 전동커튼, 온도조절기, 디밍스위치 등을 소개한다.

(2) 실내공기질 감시기

실내에 유해한 공기와 온도 습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온도, 습도, CO2 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감지기가 필요하다.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시키는 기기로, 입주자는 환기가 시작되는 공기오염 정도를 입력시키거나 외출 후 세대 내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기정화가 이루어지도록 예약하므로 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있다.

(3) 통합콘트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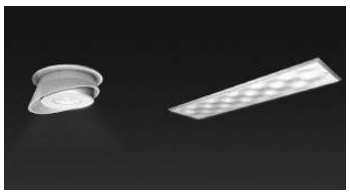
통합콘트롤러는 세대단말기, 세대분전반, 조명기구 및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등과 연동하여 조명제어, 대기전력 차단, 전력 및 난방 등의 에너지 사용량 표시 및 환기시스템 제어 등의 기능을 한곳에 집약시켜 구현한 단말기이다. 월패드에서 각각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메뉴에서 다른 메뉴로 이동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일정 처리시간이 소요되지만, 통합콘트롤러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기능에 대한 콘트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되지 않는 전기기기에 연결된 콘센트에서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차단시켜 주는 절전형 콘센트로서, 세대 외부에서 홈 네트워크를 통해 대기전력을 차단시킬 수 있고 콘센트 각각 또는 일괄로제어가 가능하며, 가전기기의 수명을 연장 시키고 에너지 절약, 전기안전사고 방지 및 전자파 차단 효과까지 갖추고 있다.

(5) LED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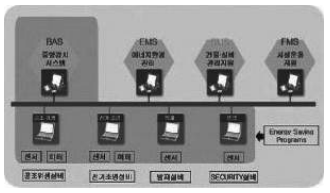
LED 조명은 초기 설치비용이 기존 조명의 10배 수준이고, 기판 발열 등의 단점이 있지만, 현대 조명과 비교하면 소비전력이 1/10 수준이며,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기기이면서 조명제어에 대한 응답 속도가 빨라 IT기술을 통한 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LED 조명을 주로 거실이나 벽, 주방 등의 보조광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린홈에서는 LED조명이 그린홈 네트워크와 연동하며 입주자에게 휴식, 독서, 공부, 식사시간 등 각각의 시간에 맞는 감성조명을 제공하는 등 주조명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6) 건물에너지정보시스템 (BEIS)



BEIS(Building Energy information System)이란 원격으로 검침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고, 이 인터넷을 제공하여 서로가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공유함으 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홈네트워크 월패드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연구중이다.

(7)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시스템 (BEIS)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내환경과 외기조건,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설비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에너지 절약적 운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BEMS를 주택에 도입한 개념으로서 주택에너지관리시스템(HEMS: hous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한 그린홈의 IT 요소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리모델링 사례

국내사례

구평화 아파트리모델링 / 대전 피트니스센터

싱가폴

싱가폴 HDB 임대 아파트 / 싱가폴 플러턴호텔

일본

고주택 / SWATCH 본사 / 동경도심 상업건물

독일

베를린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영국

밀레니엄센터 광장 조경리모델링

프랑스

파리국립대학 / 파리 원시예술박물관 부설사료관

(지면관계상 리모델링사례분석내용은 제외 되었습니다)

DQI(Design Quality Indicator)를 통한 사용자 참여 설계 절차의 이해

Understanding User Participated Designing Process by means of DQI

필자 : 강태웅, 현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by Kang, Tae-woong / Assistant Professor, Architectural Studies, Colleage of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강태웅 교수는 단국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영국의 셰필드 대학에서 역사/이론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특히 구조주의건축의 현대적 재해석에 관심이 있다. 본 연재 역시 이 같은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2007년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함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중이며, 2008년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한국교육시설학회 학술이사와 DQI 분과위원 위원장을 맡고 있다.

목 차

1. DQI란 무엇인가?
What is the DQI

2. DQI의 핵심,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시스템의 국내 적용가능성
A Roll of Facilitator of DQI and an Applicability of the system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DQI(Design Quality Indicator)를 통한 사용자 참여설계 절차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DQI는 건축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서 서로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도구 및 시스템으로써 2002년 영국에서 최초 개발되어 공공건물의 설계과정에 도입되었다. 2006년에는 교육시설만을 위한 DQIfS을 개발하였고, 현재 미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 도입, 적용되어 사용 중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BTL/BTO 사업방식을 통한 획일적인 교육시설에 염증을 느낀 사용자와 사업주체가 점차 그 지역과 교육프로그램에 맞는 교육시설을 요구하는 현실과 맞물려 사용자 참여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커졌다.

DQI는 프로젝트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사용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다양한 시각의 교환과 토론을 통해 사용자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해준다. 그 요구사항들은 보고서 형식으로 설계자에게 전달되고 명확한 방향의 설정과 요구사항으로 인해 건축사들은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미학/창조적 작업을 하는데 할애 할 수 있다. 이 문서화된 요구사항은 또한 설계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설계된 안에 대해 설계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기 때문에 설계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 한국교육시설학회를 시작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이 시스템과 도구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사용자를 참여시킨다는 합의점은 이미 형성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후에 한국형 DQIfS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재를 통해 건축사들의 DQI의 이해와 사용자 참여설계 절차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DQI의 핵심,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시스템의 국내 적용가능성[1)]

A Roll of Facilitator of DQI and an Applicability of the system

연재의 지난 회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DQI의 사용은 건물의 실체가 없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각각의 참여주체는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 Briefing Workshop을 통해 각각이 가진 건물의 상(desired image)을 논의하며 공동의 상을 만들어 간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 사이의 의견의 수렴과 중재이다. 본 회에서는 이러한 소통과 중재의 가운데 서있는 DQI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 그리고 DQI의 국내 적용가능성에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DQI 프로세스의 인적구성

DQI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은 크게 해당 프로젝트를 발주, 관리하고 그 건축물의 직접적인 이용자가 되는 '참여주체'와 프로젝트의 디자인, 시공,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실행주체' 그리고 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수렴하는데 도움을 주는'행정주체'로 구성된다.

표 1. DQI 운영의 인적구성

실행주체	참여주체	행정주체
– 건축가 – 구조기술자 – 건축설비 기술자 – 디자인 전문가 – 조사원 – 기타 기술자	– DQI Leader – 건축주(발주자) – 시설관리자 – 시설관리자 – 시설이용자 – 지역주민 – 계약담당자 – 프로젝트 관리자 – 행정 실무자	– DQI Facilitator – 조언자 – Administrator

여기에서 참여주체와 실행주체를 실제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설계의 많은 부분의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게 되는 프로젝트 스티어스 그룹(Project Steers Group)[2)]이라고 한다. 이 그룹은 건물을 이용할 다양한 사용자(학교의 경우 선생,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관리자 등)뿐만 아니라 시행자, 기획자, 시공자, 건축가로 구성되며 이후 절차의 중요한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DQI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대상 프로젝트에 따라 신중하게 선별된 사용자 그룹인 스티어스 그룹이 조직되어야 한다. 사용주체에 의해 CIC로 DQI의 사용신청이 통보됨과 동시에 사용주체는 스티어스 그룹의 리더(Leader)를 선출해서 CIC로 보낸다. 리더는 CIC에서 DQI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도구의 운영절차,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리더/각 구성원의 역할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다. 그 흐름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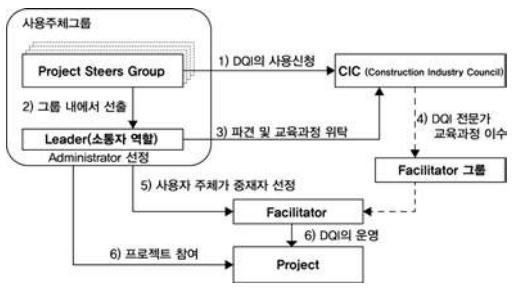


그림1. DQI 프로세스를 위한 인적 구성 및 순서도

DQI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DQI 리더(Leader), 행정지원가(Administrator)그리고 DQI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담당하게 된다.

리더는 프로젝트의 주요 관계자들을 조직하고 DQI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해당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일정과 성격, 예산 등 모든 측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리더는 유사한 프로젝트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DQI 시스템의 도입과 그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자로서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DQI 프로세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목적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DQI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가 및 퍼실리테이터를 임명하고 이들에게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과 목적향상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1) 이 글의 내용은 〈강태웅, "영국의 교육시설을 위한 DQI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7권 제5호, 통권 제78호, 2010〉, 〈이화룡, "학교건축 기획단계에서의 DQI 적용 워크숍 사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7권 제5호 통권 제 78호, 2010〉 〈김승제; 강태웅; 소갑수; 윤용집; 김종헌, "영국의 사용자 참여형 DQI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한국 교육시설학회지, 제17권 제2호, 통권 제75호, 2010〉, 〈김상호; 김영현; 이민우,"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 개발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8〉에서 편집, 발췌하였다.

2) DQIfS(Design Quality Indicator for School)에서는 이 그룹을 Stakeholder라고 한다.

한다. 동시에 DQI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한 참여자 그룹을 선정, 구성하는 역할을 하며 DQI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DQI 온라인 툴의 이용대금과 DQI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DQI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되는 워크숍의 좌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워크숍에 가능한 직접 참석하여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과정에서 워크숍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DQI 행정지원가는 리더가 조직 내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DQI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등 행정적인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행정지원가의 임명여부를 리더가 선택하여 결정한다.
또한 행정지원가는 DQI 프로세스에 관련된 실질적인 일과 행정적인 일을 수행하고, 워크숍 참석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하며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워크숍에 참석하여 리더와 퍼실리테이터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DQI 퍼실리테이터는 DQI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이며,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도록 양성된, CIC의 승인을 받은 전문가로서 DQI 프로세스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에 대해 편견 없는 중재자로서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간사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실재 퍼실리테이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DQI 워크숍 참여자를 결정하기도 하고, 프로젝트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DQI 프로세스 전체의 연결자 역할을 한다. 또한 퍼실리테이터



그림2. CIC 퍼실리테이터 간담회 (2010.7.21)

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작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기획하고, 워크숍에서 나온 중요한 문제와 의견을 온라인상에 기록하여 공공건축의 조성과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DQI 워크숍에서 제기되었던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의 단계별로 초기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표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토론주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워크숍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즉, 유능한 퍼실리테이터는 성공적인 DQI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다고 그 결과의 성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퍼실리테이터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CIC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격을 획득하지만, 그 이후에는 CIC로부터 독립적인 주체가 된다. DQI의 모든 프로세스를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부터, 그 결과를 독해하고 전달하는 것과 심지어 DQI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를 CIC에 전달하고 DQI의 지속적인 진화를 위해 실제 사용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CIC에 보고하고 개선을 종용하는 등 이 모든 것이 퍼실리테이터가 비전문가들과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다.

Briefing Workshop 단계에서의 역할[3)]

DQI 워크숍의 성패는 참여주체의 적극적인 호응과 그 워크숍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의 능숙함이 좌우한다. 특히 DQI Briefing Workshop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단계에서 퍼실리테이터는 참여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워크숍을 위해 건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한 마디로 건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어느 정도 건축적 이야기가 가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축적 언어의 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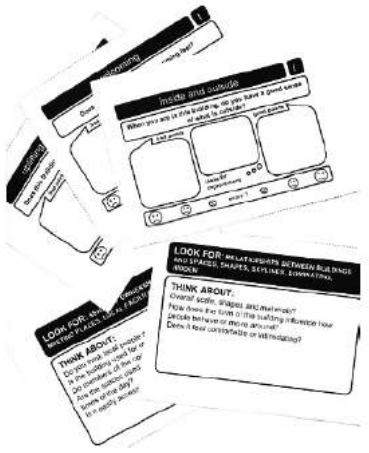


그림3. 새롭게 개발된 DQI-Cards

득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이 과정은 성공적인 DQI의 진행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최근 퍼실리테이터 Mrs. Annette Hards는 보다 효과적이고 쉽

3) DQI 시스템은 기획단계에서 사용하는 브리핑 워크숍(Briefing Workshop: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단계)과 설계단계 이후에 사용하는 어세스먼트 워크숍(Assessment Workshop: 계획안에 대한 평가와 점검단계)로 구분된다. 각 워크숍에 대한 설명과 결과의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본 연재의 "DQI란 무엇인가"를 참조.

게 건축적 언어를 습득시키고 DQI의 본질을 이해시키기 위해 DQI-Cards라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했다. 이것은 DQI의 큰 범주인 기능성(functionality), 영향력(Impact), 건축품질(Building Quality)로 색을 구별하여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소항목들을 간단한 키워드 형식으로 보여주며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있다.

뒷면에는 키워드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축적 개념들을 정리해서 비전문가들이 건축언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Briefing Workshop 단계에서 다른 건물 사례를 방문, 이 카드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며 각 키워드에 대해 그 건물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단계별로 표시하고 개선의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해본 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그들의 건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제안과 토론이 가능해진다.

DQI Briefing Workshop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합의된 결과가 중요하다. 따라서 많은 의견의 도출이 선행되고 그 의견들을 DQI의 항목에 반영하여 각 항목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정한다. 이것을 DQI의 항목에 반영하여 각 항목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정한다. 이것을 DQI에서는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weighting)한다고 한다. 각 항목은 초기에 설정된 값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DQI Briefing Workshop 단계에서 참여자의 의견과 여론에 의해 변경된다. 합의된 의견은 프로젝트로부터 독립적인 퍼실리테이터에 의해서만 입력이 가능하다.[4] Briefing Workshop단계를 거친 DQI는 이제 다른 DQI가 되어 버린다. 즉,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한 DQI가 된 것이다.

Briefing Workshop의 결과는 퍼실리테이터로 인해 보고서(Facilitator Report)의 형식으로 작성이 된다. 이것은 설계할 건축가와 CIC 그리고 참여주체의 리더에게 주어진다. 이후의 설계 프로세스와 DQI 과정은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설계 중간에 실시되는 Assesment DQI의 기준이 된다.

Assesment Workshop 단계에서의 역할

Briefing Workshop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각 실행 주체(디자인팀)에게 전달한 후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면 상황에 따라 몇 번의 Assessment Workshop을 하게 된다. Briefing Workshop에 비해 이 단계의 워크숍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참여주체의 의견 수렴보다는 디자인된 결과에 대한 각각의 참여자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워크숍 준비 단계에서 디자인팀이 어떻게 참여 자들에게 그들의 디자인 결과를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여 조정하는 것, 그리고 실재 워크숍이 진행되어 디자인팀이 그들의 설계를 참여자들에게 발표할 때 소통의 문제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워크숍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퍼실리테이터 보고서(Facilitator Report)



그림4. 세인트 막달렌 초등학교 전경

앞서 기술했듯 단계별 워크숍의 결과는 퍼실리테이터에 의해 보고서(Facilitator Report)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는 DQI 프로세스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래의 내용은 2006년 1월 26일 영국 세인트 막달렌 초등학교(St. Mary Magdalen Junior School)에서 개최된 Briefing Workshop단계의 결과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퍼실리테이터 보고서 구성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를 요약한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각 참여주체들이 DQI 지표 중 각 부문별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한 후 합의를 도출한 것이며, 프로젝트 특성상 기본 요구(Fundamental Requirement)의 기능성(Functionality)부분에서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1. 기능성(Functionality)

기능성은 배치, 공간들의 관계성 그리고 건물 사용의 편리성 등에 관여하는 지표이며, 접근성, 공간 그리고 사용성으로 구성된다.

1.1) 접근성(Access)

표 2. 접근성(Access)과 관련되어 제시된 의견

참여자	제시된 의견
사용자측	· 학교까지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출입을 위한 정문은 한 개만을 설치하여야 함 · 정문의 위치를 어디에 두는가는 매우 중요함 · 자전거 거치대는 설치되어야 함 · 통합교육을 위해 장애우 접근이 용이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명확한 신호체제를 구비하여야 함
학생	· 학교 주차장은 마련되는가? · 학교 주차장은 부모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 전혀 설치되지 않는가? · 자전거 운전자를 고려한 건물 배치가 이루어져 야 함 · 학교 주변에서 학교를 찾기 쉬워야 함 (큰 학교 건물을 원함)
공급자측	· 학교 건물 배치는 쉽게 이해되어야 하며 주변에서 학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여야 함.

4) 각 Workshop 단계에서 도출되는 데이터를 퍼실리테이터가 총괄하여 리더와, 발주자, 사용자가 부여하는 가중치에 대한 열람과 조정도 퍼실리테이터만이 할 수 있어 리더가 디자인 방향의 변경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접근성은 모든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지표이며, 대중교통 접근성 및 주차 공간, 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접근용이성 등 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는 워크숍에서 이 항목과 관련하여 논의된 의견들을 참여 주체별(사용(요구)자, 학생, 공급자(디자인))으로 요약한 것이다.

접근성(access) 세부지표 중 수정 또는 보완되는 기본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번 항목 '교지 내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야한다' : 이 학교와 같이 교지가 좁고 버스나 지하철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지역의 학교의 경우 주차공간을 기본요구 사항으로 정의하기 어려움. 오히려 학생들이 학부모 차에서 여유 있게 내리고 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나) 4번 항목 '건물과 부지 배치에서 자전거 운행을 배려하여야한다' : 물론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전거 운행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에 못지않게 런던과 같이 차량통행이 많은 도시에서는 학생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Green Routes)할 수 있도록 기본요구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1.2) 공간(Space)

공간 항목은 규모 및 면적의 적정성, 동선의 배치 등과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표는 워크숍에서 관찰되었던 내용들이다.

표 3. 공간(Space)과 관련되어 제시된 의견

참여자	제시된 의견
사용자측	· 넓고 좋은 운동장 공간은 매우 중요함 · 식재료 반입부와 격리된 음식 조리 공간 필요 · 샤워실 특히 자전거 통근 교사용 샤워공간 · 보건실과 학생 탈의실 필요 · 교실 중간 중간에 컴퓨터 코너 설치 · 학년별 그룹 공간은 될 수 있는 대로 근접 배치(공동체 의식 함양) · 학생들 동선이 교사들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런 모임과 토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동선처리 · 긴 복도는 피할 것 · 모든 학생들이 편안하게 용변을 볼 수 있는 질 높은 화장실 마련
학생	·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 암벽 등반 시설 등을 마련할 수 있는지? · 교실 사이에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학교주변을 덜 어수선 하게 할 것 · 전체 학교시설 모두를 크게 할 것. 특히 부엌, 교실, 운동장, 홀, 체육관 사물함 등 · 음악실은 훨씬 크게 계획하고 식당과 ICT실을 현재보다 여유롭게 계획 할 것 · 학교건물은 최소한 3층으로 할 것 · 남녀 구별된 탈의실과 샤워실(좋은 색상 인테리어)

공간(Space) 세부지표 중 수정 또는 보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하였다.

가) 4번 항목 '교육 및 학습 공간은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고 적절하게 구성되어야한다': 교육과정 운영은 학습공간을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재 부수 지표(Added value)인 것을 기본 지표(Fundamental value)로 수정되어야 함.[5)]

나) 5번 항목 '홀(hall)은 적절한 크기로 계획되어야 하며 여러 목적들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어야한다' : 이 항목 역시 현재 부수 지표에서 기본요구 지표로 수정되어야 함. 왜냐하면 홀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1.3) 사용성능(Uses) 사용성능은 현재 요구 성능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미래요구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며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만족도 및 효율성, 가변성 등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워크숍에서 이 항목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사용성(Use)과 관련되어 제시된 의견

참여자	제시된 의견
사용자측	· 교실 내에 통과동선이 만들어져서는 안 됨. · 공간은 융통성 있게 그리고 다용도롤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 학교 요구에 부합되고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것
학생	· 보다 많은 교사가 필요함. 왜냐하면, 한 교실에 4–5학년이 함께 수업하기 때문임 · 모든 교실에 전자 칠판을 설치할 것 · 새로운 책걸상, 보다 큰 사물함, 보다 큰 홈이 필요함

사용성과 관련된 세부지표 중 수정 또는 보완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합의 도출되었다.

본 내용은 퍼실리테이터 보고서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내용은 일반적인 의견부터 보다 구체적인 의견까지 기록되고 이것은 건물의 디자인팀에게 전달된다. 여기에는 가중치가 반영된 구체적인 자료들이 첨부 되며 이것은 디자인팀에게 중요한 디자인 요소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이후에 발생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간낭비와 비용증가를 줄이는 근거로서도 활용이 된다.

퍼실리테이터는 어떻게 되는가?

퍼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CIC 주관 하에 6단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과정의 시작은 서류전형이다. 지원자는 지원서를 작성하고 CIC는 서류로 지원자의 경력과 경험, 그리고 능력을 검증한다. 이 검증에 통과하면 두 번째 과정인 약 20분 정도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다.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원자는 비로소 세 번째 과정인 트레이닝 코스로 들어갈 수 있다. 이틀간의 코스 중 첫째 날은 DQI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그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둘째 날은 DQI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교육받고, 본격적으로 효과적인 퍼실리테이션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받는다. 교육과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적 과정이 끝나면 워크숍 경험이 많은 퍼실

5) Briefing Workshop 단계에서 FAVE(Fundamental, Added Value, Excellence)라는 3단계의 가치부여 과정을 거친다. 최근 CIC는 도구의 개선작업을 통해 F를 R(Required), AV를 D(Desired) 그리고 E를 I(Inspired)로 수정하였다(RAVD).

리테이터와 수습의 과정을 거친다. 실제 DQI 워크숍에서 퍼실리테이터와 수습의 과정을 거친다. 실제 DQI 워크숍에서 퍼실리테이터를 도와 워크숍의 전 과정을 겪게 되고 퍼실리테이터는 그 결과를 CIC에 통보한다. 그 통보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지원자는 퍼실리테이터의 자격을 얻고 비로소 CIC의 퍼실리테이터 등록자 명단에 올릴 수가 있게 된다.

현재 영국에서 활동하는 퍼실리테이터는 약 64명으로 이중 30명이 건축가 또는 설계 관련 종사자이고, 21명이 프로젝트 매니저, 기타 전문가이며, 10명이 도급업자나 의뢰자, 3명이 엔지니어, 1명이 심리학자, 1명이 조사 분석 전문가이다. 이러한 직업적 배경을 고려할 때 퍼실리테이터는 건축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프로젝트의 진행 순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CIC가 모든 퍼실리테이터 교육의 주체이지만 퍼실리테이터로 등록이 되는 순간 모든 퍼실리테이터는 CIC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는 퍼실리테이터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가 아닐 경우에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매년 퍼실리테이터 컨퍼런스와 DQI 워크숍 후 참여자들로부터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받지만, 이것이 그들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CIC도 성공적인 DQI 워크숍 결과를 위해 어떻게 하면 그들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퍼실리테이션이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DQI 시스템의 국내 적용 가능성

DQI는 영국 내 공공건축 프로젝트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디자인 품질 개선을 위한 도구이며, 그 활용의 폭이 학교나 병원건축 등으로 점점 세분화되어 넓어지고 있다. DQI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의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할 건축물의 상을 먼저 그려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공건축의 이상적인 모습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디자인품질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조달청 및 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DQI와 유사한 제도를 통하여 공공건축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적용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국내 각 부처에서는 영국 DQI를 디자인관련사업의 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가 강하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DQI를 참고로 하고 있으나, 평가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지표화를 통하여 점수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DQI가 가지고 있는 지표와 평가 방법에 전제가 되는 것은 초기단계의 공통의 목표설정을 통한 지표생성과 평가를 통한 서로 다른 의사의 차이에 대하여 참여자들 간의 의사조정을 담당하는 전문가 즉,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핵심사항이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중재자의 역할이나 다른 장치들에 대해서는 동시에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DQI의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좋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주민, 행정가, 전문가들의 합의 및 방향설정, 즉 지표생성 과정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참여하여 한국의 좋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상을 정립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대해서 행정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이 증대되어야 하고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바탕이 전제가 될 때 다음과 같은 국내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디자인품질지표 적용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1차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소홀하였던 2억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유치원, 도서관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예산상으로 보았을 때 소규모 공공 건축물로 분류되지만, 마을, 지역차원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시설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건축물의 각 조성과정에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물의 조성에 관해 학교관련 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관련 시설은 행정안전부, 도서관 및 문화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각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다. 각 시설물들은 세부적으로 다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근거하여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초기단계인 계획의 기본구상에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도구로써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성격에 적용하기 위한 지표를 목표로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는 설계진행에 따라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준공에 이르기까지 초기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문가인 설계자의 설계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 만족도를 제시할 뿐이고 절차상에 참고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는 기존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각종 심의나 자문회의에 활용해야 한다. 일반인에 의한 만족도 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의 목표와 진행사항에 대한 공감 속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DQIfS의 국내 적용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건축의 경우, 설계과정 대부분이 건축주인 교육청과 설계사무소에 의해 주도되고 사용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실질적인 참여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건축 과정 중 심의 또는 설명회 같은 제도는 시간적인 제약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하는 관계자의 교육 및 학교시설에 대한이해가 부족하여 설계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DQIfS는 소수에서 다수로의 참여 방식 및 의사결정시스템의 변화와 전문가 중심의 설계 방식에서 참여자 확대를 통한 최적의 가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학교시설 사업에도 벤치

마킹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또한 기획단계에서의 디자인 방향설정 및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초기목표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시간 및 예산의 여건 상 시공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잦은 국내 여건에서 초기 기획단계를 명확히 정착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현재 영국의 DQIfS의 평가지표가 113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지표를 고려하여 평가를 시행할 가능성이 낮고 자칫 형식적인 체크리스트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평가지표를 간소화시키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연재를 마치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지정하기 위해 많은 도구와 지표를 개발하거나 본떠서 만들었고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모두 판단주체가 객관을 위해 제3자로 정해지며 그 주체가 객체를 판단해 왔다. 객체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DQI의 과정은 앞서 서술한바 오히려 기획의 단계가 더욱 중요하며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최고에 달하는 순간이다. 또한, 제 3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 사용자가 논의하고 도출한 사항들에 대해 확인할 뿐이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DQI는 굉장히 정교한 도구다. 참여자들의 열망이 세 번의 가중치 부여를 통해 반영되고 113개의 DQI 항목들의 가치들을 미세하게 변화시킨다. 이것은 DQI가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하게 변형되게 한다. 그러나 열망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결국 참여주체, 실행주체 그리고 행정주체의 원활한 소통에 있다. 이 소통의 중심에 퍼실리테이터가 있다.

CIC의 DQI 책임자인 Mr. Mark Way는 DQI는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했다. 이것은 단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소통체계고 처한 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의견을 듣고 모으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했다. 건축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EDUMAC(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교육시설설계에 적용하는 연구를 착수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많은 건축 관련 학회에서 공공건축에 사용자 참여의 개념을 도입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사용자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고 설득하는데 익숙한 건축사들에게 이 같은 시스템은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사용자와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경험 많은 건축사들에게 퍼실리테이터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 줄 수도 있다.

모쪼록 이 연재가 새로운 설계 절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협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강태웅, "영국의 교육시설을 위한 DQI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7권 제5호, 통권 제78호, 2010
2. 이화룡, "학교건축 기획단계에서의 DQI 적용 워크사례 :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 17권 제5호, 통권 제78 호, 2010
3. 김승제, 강태웅, 소갑수, 윤용집, 김종헌, "영국의 사용자 참여형 DQI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 학회지, 제17권 제2호, 통권 제75호, 2010
4. 김상호, 김영현, 이민우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 개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8
5. 성은영, 조상규, 고은정, 이진민, "학교시설의 성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10
6. Jonathan A. Hale, Building Ideas: an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Theory, John Wiley and Sons LTD, Chichester, pp.187~211, 2000
7. Davide M. Gann et. al., "Design Quality Indicato as a tool for thinking: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Vol31 No.5, 2010

도시! 예술을 품다…

City! Embracing Art

제17차 전국 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17st National Convention of Female Architects



임희선 / (주)도씨에 건축사사무소
by Lim, Hee-sun, KIRA

약력
-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 런던 매트로폴리탄 디플로마

일 년에 한번 전국의 여성건축사들이 모이는 날인 여성건축사대회, 2011년 5월27일 ~ 28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빛고을 광주에서 열렸다.

여성건축사의 대모님들이 대거 참여해주시며, 나의 어머니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우린 그냥 큰언니라고 부르며 스스럼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신다. 서울의 출발장소인 대한건축사협회 앞에 우는 아이를 달래고 왔다는 분이 헐레벌떡 차에 오르며 드디어 버스는 출발했다.

광주에 다가갈수록 회사에서의 고군분투하던 이야기는 점차 아줌마들의 유쾌한 수다로 바뀌어 가며 또 다른 동지를 하나 얻는 기쁨을 준다. 일 년에 한번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허락된 아줌마들의 일탈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의재 미술관

무등산에 도착하여 첫 번째 답사지인 의재 미술관으로 향했다. 한국 근대 남종화 작가인 의재 허백련 선생의 작품 전시관으로 무등산 등산길을 따라 20여분정도 걸어 천천히 산길을 즐기기 시작할 쯤에 나타난다.



의재미술관

미술관은 지형을 자연스럽게 이용한 긴 슬로프로 자연스럽게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갈라진다. 내부 브리지를 통해 지하층과 전시실 층이 자연스럽게 이동되며 모든 공간이 한눈이 들어온다. 동양화와 자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글라스월과 그에 대비한 미니멀한 느낌을 주는 자재들로 이루어진 벽면들은 수묵화의 여백


의재미술관 단체사진

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투명한 유리를 통한 외경과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 비춰지는 대나무형상은 그 차체가 동양화 같고, 불투명 유리로 만들어진 내부 브리지는 창호지를 스며든 빛과 같아 몽롱한 기분마저 들게 한다. 외부에는 남도임을 느끼게 하는 대나무 조경이 건물과 잘 어우러져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으로 전국에서 온 여성건축사들이 다 모여 이제 버스로 나누어 타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설현장을 견학하게 되었다. 전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현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관

도청의 지하에 건설되는 건물은 국제현상에 당선된 우규승 건축가의 작품이다.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젊은이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바로 그 장소였다.

갑자기 흩뿌리는 이슬비는 아직도 30년 전의 슬픔을 말하는 듯 왠지 숙연해지는 장소에 우리를 내려줬다. 처음 온 장소이지만 낯익은 사진에서 본 듯한 도시 모습이었다. 그동안 광주는 발전되지 않은 것인가 의아해 했지만 이 장소는 그대로 있어줘서 고마운 것 같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도시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형상을 가진 것만이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있는 장소가 광주의 랜드마크이고 광주의 이야기이다.

아픔의 도시 광주에서 광주는 아시아의 중심도시, 예술의 도시, 빛고을 광주로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역사를 기억하고 소중이 생각하는 광주시민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하의 대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건축가의 디자인과 엔지니어와의 긴밀한 협조가 24미터나 되는 긴 보에서 드러나 보였다. 아직 공사 진행 초반부여서 전체적인 공간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완공되기를 기대한다.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비가 흩뿌려서 그런지 날이 일찍 저물어 가고 있었다. 우리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맞은편의 홀리데이인 호텔의 여장을 풀었다. 하루 동안 정말 먼 길을 달린 기분이다. 호텔의 입면은 다양한 크기의 창과 자유로운 형태와 선으로 일번적인 호텔의 외관과는 차별화 되어 있었다. 신도시 개발지역이라 아직 주변의 환경이 다 갖추어 지어져 있지 않아서 인지 건물의 독특한 외형은 창에서 나오는 조명과 함께 이색적인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다.



개회식



대한여성건축사회 총회 단체사진



팝페라 초대공연

1부 만찬에서는 강운태 광주광역시 시장을 비롯하여 박주선, 이용섭, 곽정숙 지역 국회의원과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주신 가운데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매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각 지역의 기관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광주 청소년 서포터즈를 후원하게 되었다.

2부의 총회에서는 고은영건축사가 신임회장이 되었으며, 각 지역들의 회원들의 건의 사항과 회의에서는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임원개선 방식, 신입회원들의 소개로 마무리 되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일찍 아침식사를 마치고 길 건너편의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둘러보았다. 오전이라 그런지 아직 한가로운 풍경이었다. 광주를 이야기할 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광주민주화항쟁부터 컨벤션센터까지 광주의 상징인 것 같다. 컨벤션 공간과 출입부는 커다란 주황색 라운드 구조물이 아트리움 구조체인 도입부와 만나있다.

소쇄원

호텔을 나와 다시 버스에 올라 오늘의 마지막 견학지인 담양으로 향하였다. 어느새 5월이 되어 길가의 나무는 연초록에서 초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담양의 소쇄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민간정원으로 건축사들의 답사 1순위 장소임에 틀림이 없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녹음 속에 이곳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에 기분 좋게 대나무 숲을 올라갔다. 오랜만에 대청에 앉아서 바람소리 들으며 한가한 오후의 일상을 즐길 수 있었다. 다음에는 좀 더 한가한 시간에 책 한권 들고 와서 읽고 가야 할 것 같다. 일정상 아쉬움을 뒤로하고 담양 창평 슬로우시티로 향했다.


소쇄원 대나무숲


오곡문



제월당



〈고재선 고가〉



〈돌담길에서〉



〈슬로우시티 홍보관〉



〈창평문화의집〉

담양 창평 슬로우시티

슬로우시티란 "불편함이 아닌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다림"을 주제로 하며, 급하고 빠르게 사는 것보다 천천히 살고, 자연과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지속가능한 지구를 추구하면서,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내 이웃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창평 슬로우시티는 슬로우시티 국제연맹의 실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곳 중 하나이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펼쳐지는 운치 있는 돌담길과 산으로 둘러싸인 나지막한 마을 풍경이 마음을 느긋하게 만들었다. 커다란 나무가 있는 문화의 집 마당에 모여 마을의 역사와 슬로우시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설자를 따라 마을탐방에 나섰다. 꼬불꼬불하고 한적한 돌담길을 걸어가며 마을을 구경한 뒤 고재선 고가에 들러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예스러움을 맘껏 느끼고 감탄하였다.

동네 길을 둘러 나오는 길에 다른 고택들과 한옥체험 펜션 등을 방문하려 하였으나 대부분 닫혀있어서 제대로 다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항상 바쁘기만 하던 우리에게 슬로우시티 체험은 일상의 여유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을 기약하며

이번 대회의 주제인 "도시! 예술을 품다…" 였다. 광주는 깨어나고 있었다. 이제는 아픔을 딛고 이를 예술로 승화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도시의 역사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며 이제는 세계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너무 거창한 이야기로 들릴수 있겠지만, 다양한 광주의 예술 및 건축 컨텐츠들이 부러웠다. 예술 행사인 광주 비엔날레와 건축과 도시의 만남인 광주 어반폴리 프로젝트는 건축사나 예술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 같다.

1박 2일의 일정은 이렇게 끝나고 아쉬움을 뒤로하며 우리는 다음 행사지인 서울에서 내년에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이제 일탈에서 일상으로 돌아왔다.

홈페이지 리뉴얼!!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www.kira.or.kr

◆ 리뉴얼의 대상

디자인과 컨텐츠 개편

◆ 디자인 개편

가. 메인화면 구성

편안한 블루와 회색을 기본 컬러로 자극적인 색감으로부터 눈의 부담을 줄이고 색상을 절제함으로써 통일감과 세련되고 심플함을 강조

나. 서브메뉴의 메인화면 구성

서브메뉴의 메인화면은 기존 홈페이지에 없었던 메뉴로 총 8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었으며 메인 메뉴의 특성 및 설명, 서브메뉴로의 분기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다. 서브화면 구성

1) 8개의 Main menu와 170개의 Sub menu(2depth : 55개, 3depth : 115개) 및 영문 홈페이지, Scrap, 마이 페이지 등 총 204개 메뉴의 Design이 개편되었음
2) Main Design의 가이드를 따르며 navigation과 본문과의 간격을 최소 화하고 게시물의 가로폭을 기존보다 100pixel정도 넓게 표현하고 화려하지 않으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모든 페이지를 통일 시킴

◆ 컨텐츠 개편

가. 개선방향

1) 신속한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 각계 각층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및 배포
2) 정보의 질 향상 : 각종 법령정보 기술정보 및 법령체크리스트 등 유용한 정보의 확보 및 배포
3) 정보의 제공 대상 확대 : 정회원 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범국민적 정보제공 확대
4) 정보 제공방식의 변경 : 일방적인 정보 제공 방식이 아닌 유기적인 정보제공 방식으로 전환
5) 커뮤니티 기능 강화 : 회원상호 간, 회원과 일반인 간에 의견교환 및 정보교환
6) 새로운 아이템 추가

나. 나만의 메뉴

1) 개요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사용자가 임의로 등록하여 메인화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Contents
2) 기대효과
사용자가 자신만의 메뉴를 구성하므로 서 사용상의 편의성 향상시키고 개인을 위한 개별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의 홈페이지의 활용도 및 참여도 고취

다. 스크랩기능

1) 개요
각종 게시물을 사용자가 생성한 카테고리 별로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의 Contents
2) 기대효과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체계적인 자원관리 및 활용

라. SMS 답변 기능

1) 개요
민원인들이 상담코너에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면 자동으로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답변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하는 Contents
2) 기대효과
민원인이 민원에 대한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를 하고 협회의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 및 민원인의 협회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협회의 위상제고

마. 문서수발

1) 개요
총 5개의 메뉴(받은문서함, 보낸문서함, 내문서함, 문서작성하기, 친구목록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회원", "회원 ↔직원", "회원 ↔협회", "본회 ↔ 시도건축사회", "직원↔직원"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Contents
2) 기대효과
기존 이메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문서의 소실, 스팸, 전송지연 및 전송속도 등)을 개선하고 협회내 정보교환 네트워 시스템 구축 및 협회 홈페이지 활성화, 협회의 위상 제고

바. 파일 멀티업로드

1) 개요
기존 게시판이 게시물당 1개의 파일만을 업로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동호회) 사진첩"에 멀티 업로드 기능을 구현함
2) 기대효과
기존 단일파일 업로드에 따른 불편함 해소를 하고, 동호회 활동상 편의성 제고를 통한 동호회의 활성화 기대도 고취

사. 기술정보서비스

1) 개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자재데이터베이스(www.archidb.com)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사이트 링크방식에서 archidb의 보유 정보 중 시방서와 디테일 일부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Contents
2) 기대효과
본협회 홈페이지의 Contents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건설자재데이터베이스(archidb)의 간접적 홍보를 통한 활성화

아. 회원작품전시관

1) 개요
협회 홈페이지 활성화 및 회원 작품의 홍보, 지식정보의 구축을 통하여 회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회의 위상을 제고 하고자 함
2) 기대효과
회원작품의 대국민 홍보, 지식정보의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공유를 통한 회원 경쟁력 강화 및 협회 위상 제고

자. 그밖의 기능

1) 글씨 돋보기
게시물의 폰트 사이즈를 사용자가 조절토록 하여 게시물에 대한 가독성을 향상
2) 아이디저장
아이디 자동저장 기능을 통하여 홈페이지 활용에 편의성을 제고
3) 방문자카운트
방문자 카운터를 통해 사용자 별 협회 홈페이지 이용 통계 추출 등 활용
4 협회도서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구현(현재 8,703권의 자료 등록)

보고서
Report

미국건축사협회 총회 참관 보고서

신춘규 | 국제담당 이사

2011년 미국건축사협회의 총회는 미국 남부도시인 뉴 올리온즈에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본 협회에서는 강성익 회장 내외분과 류춘수 전부회장(HFAIA) 그리고 신춘규 이사가 대표로 참석을 하였고, 2017년 UIA 서울총회 유치를 위해 UIA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조성중 위원장, 한종률, 김성민, 심재현 위원), 그리고 FIKA 회장인 이상림 회장 내외와 한국건축가협회의 최두호 부회장, 박제유 위원장, 그리고 대한건축학회의 이언구 회장 등이 참석을 하였다. 뉴 올리온즈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막대한 상처를 남기고 간 도시로서 지역적 도시에 맞게 이번 총회의 주제는 'Regional Design: Revolution & Ecology Matters (지역적 설계 & 혁신: 환경적 문제)'로 정했다.

뉴 올리온즈의 어니스트 모리올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미국건축사협회의 총회는 크게 4개 부류의 행사로 나누어져 볼 수 있다. 제너럴 세션으로 불리는 상징적인 행사, 건축분야별 전문 계속교육, 건축자재 전시회 및 각 종 축하 만찬 행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본다면 다음과 같다

제너럴 세션

매일 1회씩 개최하는 제너럴 세션은 참석 전 회원을 대상으로 기조 주제강연 등을 하고 AIA를 대표하는 각종 상을 수상하는 행사이다. 첫 번째 제너럴 세션(GS01)은 총회 개막식과도 같은 행사로서 특이하게 회장(Clark Manus, FAIA)이 별도의 사회자 없이 직접 행사를 주관한다. 개막식에 어떠한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는 것도 미국 총회만이 갖는 특징이라고 사료된다. 첫 날 개막식에는 약 5,000여명의 참석자가 있었다.

첫날은 뉴욕 타임즈의 국제부 칼럼니스트이고 퓰리처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이 "거대 지역; 미래의 세계, Mega-regions: The World of Future" 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그는 그의 책 "Hot, Flat and Crowded"에서 지적한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녹색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들이 거대 지역으로 연계하여 미국을 재생시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올해의 건축사사무소상을 수상했는데, 캔사스 시티에 기반을 둔 BNIM이라는 사무실이 영광의 수상을 하였다. 시상식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파트너들의 인터뷰와 작품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파트너들과 직원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수상을 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한 보기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건축정책행동위원회(ArchiPAC)의 위원장을 회장이 직접 소개하고 올해 총회에서의 기금 조성 목표액이 15,000불 임을 공표하고 협조를 구했다.

금요일 두 번째의 제너럴 세션(GS02)은 1973년도 회장인 스캇 퍼리비 주니어 회장에게 건축계의 공헌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그 증서를 전달하고, 협회의 막대한 공로를 한 건축사에게 주는 상인 에드워드 캠퍼 어워드에는 체스터 위덤(FAIA)이 수상했다. 이어 올해의 가장 영예로운 상인 AIA골드메달은 일본인 후미히코 마키 건축사에게 돌아갔다. 골드 메달 수여식도 마키선생에 대한 젊은 파트너와 주변 건축사들의 인터뷰와 더불어 작품 등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시상식에는 총회에 참석한 역대 회장 18명이 함께 무대와 나와 축하해주는 모습이 아주 특이하고 미국건축사협회의 골드메달이 공히 영광스럽다는 것을 되새기게 해주는 데 충분했다고 본다. 마키 선생도 수상소감에서 건축사로서의 골드메달이 아니고 올림픽에서 골드메달을 받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기조 강연에는 넥스트 프랙티스(The Next Practice)의 창업자이며 지속가능성의 옹호자인 젭 브루그만(Jeb Brugman)이 그의 저서 "도시혁명으로의 환영; 어떻게 도시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가?(Welcome to Urban revolution: How Cities are changing the World)"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실상 폐회식인 마지막 제너럴 세션(GS03)에서는 미국 수출입은행의 명예이사인 비잔 키안(Bijan R. Kian)이 현재의 경제지표에 대해 간단한 강연을 한 후 사회에 공헌을 한 흑인 건축사에게 주는 휘트니 영 주니어 상(Whitney Young Jr. Award)의 시상이 있었다. 이 상의 영예는 샤론 수튼 박사(Dr. Sharon E Sutton, FAIA)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이어 건축사협회와 건축교육협의회가 건축교육에 공헌한 교수에게 공동 수상하는 토파즈 메달(Topaz Medallion)은 오스틴의 텍사스대학 로렌스 스팩 교수(FAIA)에게 영예가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공공 건축에 공헌한 공공건축사들에게 영예를 주는 토마스 제퍼슨 어워드(Thomas Jefferson Award for Public Architecture)는 제임스 브링클리(FAIA)와 데

이빗 버니(FAIA)에게 돌아갔다.

이어 도시의 수장으로 각 도시를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인 악조건 속에서 재건을 하고 저 노력한 시장들을 초청 그들의 정책을 토론하는 세션을 가졌다. 주제는 "정치와 지역사회 그리고 디자인 리더십을 통한 상징적 도심을 변화시키기(Transitioning Iconic Urban Centers through Political, Community and Design leadership)" 로 호놀룰루 시장인 제레미 해리스와 덴버의 시장인 미치 앤드류를 초청하여 토론을 가졌다. 토론 전 호놀롤루의 제레미 시장은 호놀룰루가 기후 온난화로 바다의 수면이 1미터 정도 상승할 경우 호놀롤루가 30%이상이 수면에 잠기게 되므로 그를 대비해 도시의 인프라를 개조하는 작업을 도시계획가처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 후 마지막 행사로 국제 단체장에게 수여하는 프레지덴셜 메달(HAIA)은 유럽연합회 회장, 아카시아 회장, 호주 회장과 코스타리카 회장 4명이 수여를 했다. 내년에는 한국의 회장이 프레지덴셜 메달을 수여받게 된다. 아쉬운 장면은 시장들의 토론이 시작할 즈음 참석자의 90%이상이 자리를 떠 프레지덴셜 메달 수여식이 조금 무색해진 장면이었다.

계속교육: CES(Continuing Education System)

미국건축사협회가 자랑하는 계속교육제도 시스템은 실로 놀라울 정도다. 건축사는 총회를 참석하며 계속교육을 받고 건축사보는 계속교육을 받아야 NCARB(미국건축사등록원)에 학점을 등록 건축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미국건축사협회 회원은 회원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18 계속교육 런닝유닛(LU)을 획득해야만 한다. 또한 이 18유닛 중 8유닛은 HSW(Health, Safety and Welfare)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중 4유닛은 지속가능성에 해당되어야 한다. 면허를 관리하는 각 주의 건축사관리원(State Architect Board)도 면허를 갱신하려면 소정의 계속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각 주마다 기준이 다른 데 오하이오 주의 경우 2년 동안 24유닛을 요구하고 이중 16유닛은 HSW에 해당되어야 한다.

회원으로서 총회에 참석 계속교육을 들으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 데 조기등록을 할 경우 회원의 경우 475불, 나중엔 550불을 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비회원의 경우는 거의 750불을 내야 전체 등록이 가능하고 계속교육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총회기간 동안에 컨벤션 센터에서 제공하는 계속교육은 약 157개로서 종류나 제공자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교육제공자는 협회에 교육자로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건축사, 자재공급자 또는 생산자나 정책 수립가 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될 수 있다. 엑스포장에서의 자재 전시자들이 등록하여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도 인정이 된다.

참여건축사들이 2,000여명으로 볼 경우 다 조기등록이 된다면 950,000불로서 한화 10억 여원이 넘는 수입금액이 발생한다.

아직 일부 세미나의 강의 내용 등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아침 6시반부터 시작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미국건축사들의 열기를 보면 미국의 건축계속교육은 성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기획된 건축투어를 계획하고 이 가이드가 있는 건축투어에 참여를 원할 경우는 별도의 등록비를 내고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소정의 계속교육 이수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전시회

엑스포는 연방정부의 교육제공 장소를 포함한 공공건축사 교육 및 각 종 수상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진다. 이번 뉴 올리온즈에서는 전시장에 주 공간을 에비뉴라는 도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전시회를 구성하였던 점이 독특하다. 약 700여개의 자재부스 등이 전시되어 규모면에서 장관을 이루었다.

연방정부의 특정기관 및 각 종 건설관련 단체 등의 전시 부스에서 올해의 수상 작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점, 브래드 피트 하우스 같은 카트리나 복구 노력(브래드 피트가 카트리나 피해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Make It Righ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 각 국의 유명 건축사에게 주택 설계를 후원 받아 지어주는 사업)을 위한 사회적 참여 프로젝트들을 전시하는 것도 눈을 끌었다.

에비뉴의 한쪽 끝에 AIA Town Hall을 설치, 건축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대화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든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AIA Bookstore and Giftshop

미국건축사협회의 서점 및 기프트 숍은 규모가 있다. 맥그로우 힐이나 윌리 등 굵직한 서점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AIA 마크가 찍힌 건축서적을 발행하고 회원에겐 일정금액 할인혜택(5~10%)을 준다. 특히 총회기간 중에는 기조강연자나 골드메달 등 수상자들이 그들의 책을 지정된 시간에 판매하며 사인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홍보를 한다.

선물 등 기념품 판매점에서는 다양하고 독특한 디자인 품목을 많이 내놓아 소득을 올리는 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기타 축하 부대행사

총회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행사가 이루어진다. 각 지역별 건축사회 모임 및 대학동문회 등이 이루어지고 수상자의 축하 만찬 리셉션이 계획된다.

특히 총회에 초청되거나 참석한 해외단체장을 위한 국제위원회 주최 국제 리셉션 과 국제단체장 포럼, 그리고 FAIA의 수여식(Investiture Ceremony)와 평의원 만찬(Convocational Dinner) 등 상징적인 공식 리셉션 및 만찬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 회원들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단결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 FAIA(Fellow of AIA)는 건축의 다섯 개의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상위 멤버십의 일종으로 전 회원의 약 2%이내에서만 선정된다. 수여식은 일반적으로 총회가 있는 도시의 가장 유명하고

역사가 있는 성당 등을 선택하여 엄숙한 분위기에서 시행된다.

국제위원회 리셉션(International Reception)

국제위원장인 헬렌 해치(TVS Design건축사사무소 대표)의 주최로 열린 리셉션은 말 그대로 선채로 칵테일 리셉션이다. 해외에서 참석한 각국 대표단과 미국협회의 회장 및 국제 활동의 원로들 등 100여명 이상이 대거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국제단체장 포럼(International Presidential Forum)

국제 단체장 포럼은 미국협회가 총회 기간 동안 초청한 해외단체장들을 모아 각 국의 건축적 현안들을 발표하고 나누는 공식적 행사이다. 특별히 올해에는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 뉴 올리온즈의 카트리나 피해 후 복구와 관련 환경변화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각 국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대해 관심 있게 물어보았다.

미국에서의 참석자는 미국건축사협회 현 회장, 차기회장, 수석 부회장, 국제위원장, 미국 등록원(NCARB)의 회장, 차기회장, 교수협의회 회장, 학생협의회 회장이 참석을 하고, 국제단체장으로는 UIA회장, ACE회장, 아카시아 회장, 중남미회장 및 영국, 캐나다, 호주, 코스타리카, 멕시코, 일본, 한국 등이 참석을 공식대표단으로 참석을 했다.

올해 특이한 것으로는 미국협회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도 공식초청을 하고 회장이 참석을 했지만 공식석상에는 앉지 못하고 옵서버로 참석을 했다. 한국은 사협회 회장과 가협회 회장이 나란히 앉아 한국에 대한 보고를 낭독하던 것을 FIKA회장으로 대표성을 주어 작년부터 FIKA 회장이 공식대표가 되고 발표에 참여하였다. 올해는 학회의 회장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다.

평의회 만찬(Convocational Dinner)

평의회 만찬은 미국건축사협회 부대행사 중 꽃이라 불리는 행사이다. FAIA 멤버만 참석을 할 수 있는 이 만찬은 별도로 250불에서 280불 정도의 만찬경비를 내야 등록이 가능하다. 초청된 해외 단체장이라도 예외가 없는 점이 특이하며 이 만찬에 참석하기위해서는 블랙의 드레스 코드를 맞추어야 한다.

평의회 만찬을 통해 새롭게 임명된 FAIA멤버들을 축하하고, 그들이 평의원이 되었음을 자축하고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명실상부한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 행사로 총회의 마지막 공식적 행사이다.

올해의 행사에는 약 100여명이 새롭게 FAIA 멤버로 등록을 했고 전체 약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 AIA 만찬

13일 금요일 저녁 힐튼 리버사이드 뉴올리온즈 호텔에서 가진 한국 AIA 만찬에는 UIA 2017 총회의 서울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경비로 해외단체장을 초청하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다. 김성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만찬에는 ACE 회장과 아카시아 회장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코스타리카, 일본, 싱가포르의 단체장들이 참석 서울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했다. 준비해간 서울 유치를 위한 PPT 설명은 가협회 한종률 위원이 했고 아주 성공적이고 서울을 잘 설명한 것으로 극찬을 받아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맺음

미국건축사협회의 총회를 참석하면서 항상 배우는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가를 적당히 치루더라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요인들을 한 번 열거해보고저 한다.

• 총회를 건축사 회원들만의 축제로 만든다

– 미국건축사협회의 총회에 정치인이나 고위직관료들이 초청 된 적이 없다.

– 별도의 전문 사회자가 없이 회장이 직접 능숙하게 무대를 압도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평의회 만찬의 경우 FAIA의 의장이 직접 만찬을 주도한다.

• 명예로운 수상식을 통해 수상자들의 자부심을 극대화한다

상징적이고 중요한 상들은 상의 역사를 소개하고 수상자들의 활동 등을 상세하게 영상으로 소개하고 직접 소감들을 발표하게 하여 축하를 해주는 분위기가 참 이채롭다.

특히 골드메달, 올해의 건축사사무소, 사회공로자 등의 시상식이 있는 경우는 모든 참여 자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분위기를 연출 참석자들이 수상자에게 경이를 표하는 모습이 볼 만하다. 특히 골드메달리스트나 올해의 건축사무소의 경우는 시상식 후 작품서적을 AIA Bookstore에서 판매하고 일정 시간 사인회를 하게하는 등 다양한 행사로 시너지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 계속교육 시스템의 정착

미국건축사협회의 계속교육 시스템은 거의 완성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다. 회원의 경우 조기등록 시 475불을 내고 전체 등록을 해야 하고 (개별 교육별 등록 도 가능함) 뉴욕에서 뉴 올리온즈를 올 경우 항공료 왕복이 싸면 250불 정도 4박5일 체류를 하려면 호텔비 400불 정도에 식사비 등을 고려하면 약 1500불(한화 1,650,000원에 해당)정도를 예산해야만 가능하다. 약 2,000여명의 건축사가 참석을 한 올해를 보면 이 참석자들 은 1년중 이 기간을 자기의 휴가 기간으로 생각하고 배우자와 같이 오는 등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무료이고 오히려 거마비나 교통편까지 제공해주어야 하는 우리 협회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미국건축사협회의 계속교육은 거의 90년 초부터 시작을 하여 10여년 이상을 거쳐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 미 건축 등록원이나 각 주의 건축원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 협회의 계속교육을 통해 이수된 학점

이 거의 100% 인정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 협회도 등록원의 정착을 반드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계속교육을 통한 회원 자질의 함양 등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식의 재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ArchiPAC(건축정책 행동위원회)의 운영

미국의 경우는 특정단체가 특정정치인을 후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을 중요시 여기는 의원들의 정책수립과정에서의 협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거나, 미래의 정치희망자에게 건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기금을 별도로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협회 외부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협회의 건축사들로만 운영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 올해 총회에서는 15,000불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회장이 독려를 하고 거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위원회는 우리 협회의 경우 회장의 개인역량에 따라 로비역량이 차이가 나고 차기 회장에 가면 단절이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에 많은 도움이 될 시스템으로 사료된다.

• FAIA 제도 운영

FAIA는 Fellow of AIA의 약자로 협회의 평의회에 해당한다. 전체 회원수의 약 2%정도에 해당하는 비율로만 운영하고 저 한다. FAIA의 자격은 AIA 회원중, 설계, 실무, 교육, 공공 등 다섯 개의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가진 회원을 소정의 심의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회원은 총회 기간 중 그 도시의 가장 고풍스러운 성당이나 교회를 임대해 수여식(Investiture Ceremony)을 엄숙하게 시행한다. 이 수여식을 통해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회원 누구나 평의원이 되길 소망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총회의 공식적인 마지막 행사로 평의원 만찬(Convocational Dinner)라고 하여 1인당 280여불씩 상당하는 티켓을 판매하고 600여명의 FAIA 및 가족을 초청 블랙타이의 드레스코드에 맞게 공식적인 만찬을 거행하고, 이 만찬에서 한사람 한사람 호명하여 새로운 평의원이 됨을 축하해주고 시간을 갖는다.

• AIA Bookstore 및 Giftshop 운영

상당한 수의 가치 있는 디자인 상품들을 협회 로고를 부착해 판매함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전문서적은 건축분야별 다양한 서적을 맥그로우 힐, 윌리 등 세계적으로 쟁쟁한 출판사와 손을 잡고 출판 판매하며 회원을 상대로는 5~1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유명한 실무관련 서적인 건축실무를 위한 건축사 핸드북(Architect's Handbook of Professional Practice)가 대표적인 서적이다. 특히 기조강연이 끝난 후 유명 건축사들이 서점에서 북사인회를 열어 판매를 홍보하는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보인다.

• 미래를 위한 제언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건축사협회의 총회는 우리가 배우고 습득할 것이 많은 총회로 여겨진다. 앞으로는 국제위원만이 방문하는 총회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협회에 봉사하는 건축사회원들이 참석하여 다방면의 제도를 보고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미국 총회는 최영집 전회장 때부터 FIKA회장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이번 총회에는 이상림 가협회 회장이 FIKA 회장의 자격으로 국제회장단 포럼에 참석하였다. 미국협회와 MOU가 없는 학회회장이 이상림회장의 독려로 참여하게 되고 앞으로 FIKA회장이 대표로 참석하는 것을 공식화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혀 모든 국제관계에서 FIKA와 우리 본 협회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AIA 2011 주제



컨벤션 홀



총회 제너럴 세션의 무대


총회 제너럴 세션의 참석회원



ArchiPAC(건축정책행동위원회) 홍보



주제



ArchiPAC 기금모금



올해의 건축사무소 상



올해의 건축사무소 상 수상



AIA 골드메달



올해의 AIA골드메달– 후미히코 마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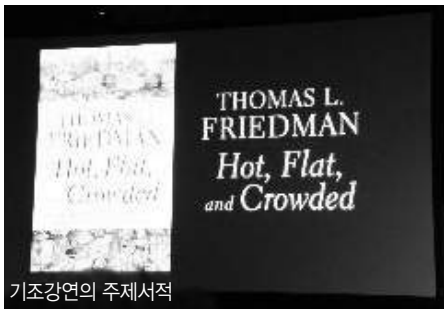

AIA골드메달 수상식



AIA 골드메달(역대회장과 함께)



기조강연자: GS01



기조강연의 주제서적



AIA 에드워드 캠퍼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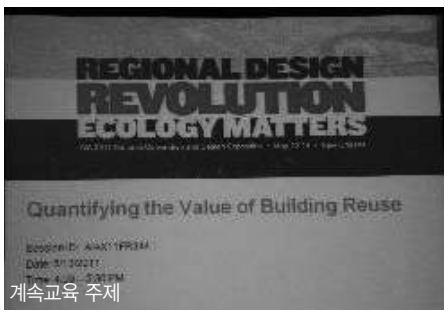
2011년 에드워드 캠퍼상 수상자



기조강연자(GS02)


기조강연(GS02)의 주제: 도시의 관계


AIA CES(계속교육) 등록기



계속교육 주제


계속교육 세미나 장



엑스포 전시장


에스포전시장의 에비뉴



전시장내 계속교육(인터뷰)



브래드 피트하우스 전시판넬


브래드 피트 하우스 모형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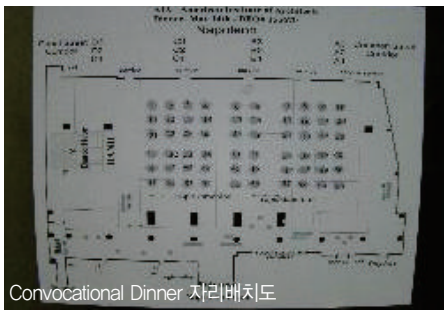
Investiture Ceremony 안내


International Reception


Convocational Dinner-reception


Convocational Dinner


일본대표단과 함께


Convocational Dinner 자리배치도



FAIA 새로운 회원의 환영 스크린


AIA 회장과 함께



Korea AIA Dinner


Korea AIA Dinner 전경


Korea AIA Dinner


Korea AIA Dinner


Korea AIA Dinner


FIKA 단합대회

소식
NEWS

협회소식

제5회 이사회

2011년도 제5회 이사회가 지난 5월 4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구조안전 관련 대응방안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구조안전 관련 대응방안의 건, 2011년도 협회발전 워크숍 개최의 건, 경기도건축사회 특별교부금 지원의 건, 동호회 활동비 지원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구조안전 관련 대응방안의 건
–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구조안전 관련 대응방안의 건
– 구조관련T/F에서 마련한 5가지 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건축물 안전에 대한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충기 이사가 수정 · 보완하여 건축문화신문과 협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함.
▲ 향후 추가적인 성명서나 결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조충기 이사가 작성토록 위임.

• 제2호의안 : 2011년도 협회발전 워크숍 개최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수정 · 보완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경기도건축사회 특별교부금 지원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우선 경기도건축사회에서 결산잉여금(₩5,535,010)을 본협회로 송금한 후 지원키로 함.

• 제4호의안 : 동호회 활동비 지원의 건
– 등산동호회에 대해서만 회원교류T/F에서 결정한 금액(14,000,000원)대로 지원하기로 함.

1. KBS 보도내용 대한 대응 :
– KBS에는 대응하지 않기로 하되, 상근이사가 담당기자를 만나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기로 함.
2. 고발당한 건축사에 대한 대응
– 구조관련 T/F팀에서 고발된 내용의 확인 및 실태파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함.
• 고발당한 건축사중 우리 협회 회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법리적, 기술적 사항 등을 적극 지원
3. 구조기술사회 성명서에 대한 대응
–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함.
4.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 구조안전확인 전수조사에 대한 대응
– 빠른 시일내에 위법 및 부당한 사례를 수집한 후 T/F팀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도건축사회별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시도건축사회에 전달하기로 함.
5.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 및 관리방안 마련
– 구조프로그램 개발 · 보급, 구조안전에 대한 회원교육 강화, 건축구조(국토부 고시) 등 관련규정에 대한 연구 및 검토, 토론회(심포지엄) 개최 등을 구조관련 T/F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 검토하기로 함.
– 서울건축사회 (가칭)건축구조연구소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 등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TF팀에서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협의키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행정위원회

제1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회원 재입회 관련 건의문 접수의 건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부산건축사회에 보낼 답변서를 작성하기로 함.

• 제2호 : 2011년도 행정위원회 운영방안의 건
– 위원회의 운영방향은 회장의 의중이 중요한 만큼 위원장과 회장이 협의한 후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설정하기로 함.

■ 제2회 행정위원회

제2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검토의 건
– 상근이사로부터 협회 운영상의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함.
▷차기 회의는 오늘 논의된 내용과 이와 관련된 협회 지침을 가지

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
– 사무기구 업무분장 및 조직체계의 정관 위배여부는 자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기로 함.
• 제2호 : 자문위원 추가 위촉의 건
–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자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지 않기로 함.

■ 제3회 행정위원회

제3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자재 추천 업무규정중 개정규정의 보완 · 검토의 건
– 이사회에서 이미 개정된 사항으로 추후 협회 제규정 개정 검토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사무기구 조직체계에 대한 질의회신 검토의 건
– 2010년도 제3회 이사회('10. 3.16)에서 의결한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중 상근이사 업무분장부분은 정관 제20조를 저촉한 결정으로 원인무효임에 따라 관련부분은 현 정관에 맞게 재개정하여야 함.
– 원활한 스폰서링을 위해 협찬금 외주계약을 추진하기로 함.
– 정관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임원의 평가규정이 없음. 임원 평가규정(안)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 임원 평가규정(초안) 작성 : 박운천 위원(담당), 김담옥 위원(검토)
• 제3호 : 2011년도 협회발전 워크숍 정관 개정안 논의의 건
– 2011 협회발전워크샵 분임토의 과제로 '정회원 자격'과 '임원(회장) 선출방법'등의 주요내용만 논의키로 함.
–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임토의 주제로 선정하기로 함.

■ 제2회 구조관련 T/F

제2회 구조관련 T/F 회의가 지난 5월 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구조안전 관리 방안에 관한 건
– 구조안전 관련 KBS 보도 및 구조기술사회의 건축사 고발 등에 관하여 대응방안을 이사회 협의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

■ 제1회 회관관리 T/F

제1회 회관관리 T/F 회의가 지난 5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물 하자보수의 건
– 회관 하자보수공사의 진행에 앞서서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에 대한 공사기획안을 준비하여 설명을 들어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키로 함.
• 제2호 : 화장실 타일보수의 건
– 일단 공사는 추진토록 하되 공사금액을 조정하고 접착 및 줄눈에 대한 시방 및 재료를 재검토하여 하자발생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함.
• 제3호 : 외부간판 개선의 건
– 예술계의 대표하는 건축사협회의 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개선시안을 여러 가지 받아보고 결정함.
• 제4호 : 지하 경보장치(정화조, 배수펌프장) 이설공사
– 공사에 대한 객관성을 살리도록 새로운 견적을 받아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함.

■ 제2회 법제위원회

제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구조안전 확인에 대한 건축법 개정안에 관한 건
– 건축법 개정안(김기현 의원 발의)에 대하여.
▷사무처에서 마련한 초안으로 발언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마련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함.
• 제2호 : 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건
– 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구조계산 및 확인을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국토해양부 질의에 대하여 건축물 설계의 총괄자인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법 규정으로 회신하도록 함.(기존 법령이 정확함).
• 제3호 :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건
– 우리 협회 유지관리 연구보고서, 서울시 생애관리 용역수행 연구보고서, 일본 건축기준법, 회의자료 붙임으로 첨부된 제도개선안 등을 참고하여 박순천, 송영규 위원이 5월 25일까지 건축법 개정초안(4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6.3)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축조심의).
• 제4호 : 건축사법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건
– 건축사법 국회통과('11.4.29.)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겨야 할 중요사항 및 논의사항을 사무처는 5월 25일까지 정리하여 각 위원에게 보내주기로 하며, 차기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함.
〈참조 : 논의사항〉
①실무교육시간 ②징계위원회 ③5년제 졸업생에 대한 교육학 인증
④윤리선언 내용 ⑤실무수련자를 위한 사무소 기준
⑥실무수련자 교육 시간 및 교육과정

■ 제3회 사업위원회

제3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한국건축산업대전' 전시방향 기획의 건
– 협회 내부행사도 중요하지만 많은 참가업체를 유치해야 함.
▷참가업체 유치를 위하여 밴더전시기획사와 25%범위로 계약하고, 도서업종 참가업체의 1부스는 50%할인 + 추가부스는 정가로 적용함.

▷위원(회원)의 부스 유치성과금은 15%로 적용함.
▷협회 내부의 홍보가 필요한 동호회의 전시참여는 최대한 지원하겠음.

• 제2호 : 한국건축산업대상 포상제도의 건
– 자세한 협의는 소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키로 함.
▷시상범위를 전시회 참가업체에서 건축전반으로 확대함.
▷국토부 보고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8월 12일까지 신청마감함.
▷심사는 소위원회 및 사업위원회 협의 후 이사회에 승인요청키로 함.

• 기타사항
– 전시회와 건축자재추천제 설명회를 5월 27일과 6월 24일에 개최함.
– 건축문화신문, 건축사지에 전시회 홍보계획을 사전에 협조를 구하도록 함.
▷건축문화신문은 매월 16일자, 건축사지는 5월호부터 광고 계획.
– 자재추천TF팀은 사업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하고, 협회행사 부스디자인은 신임위원, 포스터는 위원장, 포상제도 및 자재추천제 혜택은 기존위원들이 맡아 추진함.
– 강남구청 행사는 산업대전과 별도로 하고, 개최기간만 협의토록 함.

■ 제2회 문화홍보위원회

제2회 문화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홍보사업계획' 방향에 관한 건
– 홍보계획을 붙임과 같이 2011년도 홍보사업 로드맵에 따라 단기, 중 · 장기로 구분하여 담당위원 책임 하에 추진하기로 함.

■ 제1회 정책위원회

제1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정책현안 및 정책위원회 운영방안의 건
– 정책위원회의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 자유롭게 위원들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과제선정을 포함하여 운영방향을 설정하기로 함.

• 제2호 : 2011년도 협회발전 워크숍 프로그램 구성의 건
– 오늘 논의한 대로 아래와 같이 워크숍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위원장 검토 후 확정하기로 함.
▷강연은 회의법 및 외부인사 특별강연 2개로 축소
▷협회발전 구상 발표(회장) 추가
▷상근이사의 주요현안 발표 후 실별 업무보고 추가
▷정책위원장 발표 보고 추가
– 차기 회의는 워크숍 세부계획(주요 현안 보고내용, 분임토의 주제, 특별강연연사 및 주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제2회 정책위원회

제2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실천계획 검토의 건
– 2011년도 실천과제에서 회장공약사항을 포함하여 과제별로 해당 위원장 및 담당이사 보고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중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리하였음.

▷건축사 등록원 설립 준비를 위한 '등록원설립준비추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토록 회장에게 요청
–위원회는 국제, 법제 위원을 포함
▷친환경인증기관 추진 현황을 차기 회의시 보고
▷건축사공제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불편사항 등을 들을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마련토록 요청하고 차기 회의시 현재까지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정리하여보고
▷회원 인증제도는 등록원 업무와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하고 회원에게 실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련 T/F에게 좀 더 심도있게 검토
▷현재 협회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협회발전 소위원회'를 정책위원회 내에 구성토록 요청
–협회 조직체계(상근이사 제도 평가, 직원 역량강화방안 등) 정비 등 논의
–협회발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정관 및 재규정을 행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
▷오토캐드 글꼴(폰트) 관련해서는 저작권 소위원회에서 KIRA체를 만들어 보급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대안을 마련토록 검토 요청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에 건축사의 정의가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으로 정정토록 요청

– 협회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2011~2012년도에 단기적으로 집중하여야 할 과제를 각 위원들이 과제별 우선순위 및 사유, 수정 보완하여야 할 사항 등을 작성하여 6월 10일(금)까지 정책위원회 전용 자료실에 올리기로 함.

• 제2호 : 2011년도 협회발전 워크숍 프로그램 구성의 건
– 워크숍 프로그램 중 특별강연은 회의법, 명사초청, 정책위원장 강연 총 3가지로만 구성키로 하고, 이중 명사 초청 강연 연사 섭외를 의뢰하기로 함.
–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 및 시간일정은 특별강연 연사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1일차 보고사항 및 2일차 결과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늘리기로 함.
– 분임토의 주제는 협회 실천과제중 위원들이 선정하는 2011~12년도 단기 과제 중에서 위원장이 토의주제를 선정하기로 함.
– 이번 협회발전 워크숍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기로 하고, 위원들이 6월 10일까지 주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 전용 자료실에 올리기로 함.
– 워크숍 참가대상에 정책위원회 위원 3명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함.
▷유흥재 부위원장, 길기현 위원, 조익수 위원

■ 제1회 재경위원회

제1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재경위원회 운영방안 협의의 건

– 재경위원회는 주요업무인 차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편성이 시작되는 11월이후 회의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사전에 협회 재정상황과 예산 · 집행현황 등의 파악을 위해 8월말경에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예비비 사용 등) 발생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키로 함.

■ 제1회 리모델링 T/F

제1회 리모델링 T/F 회의가 지난 5월 2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 검토에 관한 건

–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은 무한하나, 그 중 우리 회원들에게 직면한 과제부터 점진적으로 풀어가기로 함.

• 제2호 : 2011년도 리모델링 TF팀 운영에 관한 건

– 지속적 활동을 위해 정기적 회의를 가지고 능동적 대처를 위해 공동주택 부분과 일반건축물부분으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대처하기로 함.

▷리모델링 TF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 구성

– 공동주택(주택법) : 김경록, 박세희, 최재윤

– 일반건축물(건축법) : 서태근, 이정용, 유상미

• 제3호 : 학생리모델링공모전, 리모델링준공전을 우리 협회와 한국리모델링협회 공동 주관에 관한 건

– 리모델링분야도 건축의 한 부분으로 한국리모델링협회와 공동주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를 회장께 건의하여 방침을 받기로 함.

■ 제1회 건축사업역 T/F

제1회 건축사업역 T/F 회의가 지난 5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업역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검토에 관한 건

– 각 위원들은 차기 위원회까지 다음의 건축사업역 관련제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건축사업역 보호 및 확대를 위해 실질적 방안을 개진하기로 함.

1) 지식산업으로써의 건축설계 진흥 및 제도화 추진

–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지원제도 확대

– 건축사 대가 정상화

– 신진건축사 진출기반 마련

2) 감정제도, 건축신고제도 개선 검토

3) 건축사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제2호 : 2011년도 건축사업역 TF팀 운영에 관한 건

– 심도있는 검토와 빠른 대응을 위해 메일과 위원회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안에 대한 검토 및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기로 함.

■ 제1회 저작권 T/F

제1회 저작권 T/F 회의가 지난 5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저작권 T/F팀 운영 및 추진방향에 관한 건

– 저작권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공공부문 대가기준, 저작권, VE 설계 등)를 선정하기 위해 각 위원의 의견을 이메일로 사무처에 보내면 이를 취합하고 위원장이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하기로 함.

■ 제1회 정보교육 T/F

제1회 저작권 T/F 회의가 지난 5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자재정보(ArchiDB) 운영에 관한 건

– 건축자재정보(ArchiDB)를 서비스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건축자재정보(ArchiDB) 운영에 관하여 ArchiDB를 서비스하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정보 · 교육T/F위원과 협회 직원이 함께 수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업체에게 요구하는 자료의 질이 너무 높아 대부분의 업체가 자료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체가 좀 더 쉽게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함.

• 제2호 : 2011년도 건축사연수교육에 관한 건

– 한국건축산업대전과 연계하여 실시하되, 교육장소를 충분히 확보하기로 함.

▷ 한국건축산업대전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연수교육은 건축사법 개정으로 연수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장소를 충분히 확보하기로 하고, 교육과목 및 강사 등을 각 위원들이 검토하여 마련하기로 함.

• 제3호 : 2011년도 건축문화강좌에 관한 건

– 건축문화강좌를 11~12월 중 실시하기로 함.

▷ 건축문화강좌를 11~12월 중 실시하기로 하고, 회원대상/국민대상 강좌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제4호 : 2011년도 정보교육T/F운영에 관한 건

– 정보 · 교육분야를 나누지 않고 운영하며, 매월 4째 월요일 4시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2011년도 정보 · 교육 T/F는 정보 · 교육분야 전문위원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함께 논의하기로 하고,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해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매월 개최하기로 함.

• 제5호 : 기타의 건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사항(회원 비회원 서비스 차별화)

– 현재의 홈페이지 운영방식을 유지하기로 함.

▷ 현재 비회원에 대한 홈페이지 이용 제한(구인등록, 실시간 입찰정보, 동호회 활동, 작품전시관 등록 제한)으로도 충분히 차별화가 된다고 판단됨.

①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에 관한 사항

– 회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이 필요

하며 조속히 개발하기로 함.

▷ 모바일 홈페이지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총 204개의 메뉴 중 14개의 메뉴만 우선 개발하고 회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추후 추가로 개발하기로 함

■ 제4회 국제위원회

제4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국제위원회 활동계획 및 업무분장의 건
  – 국제위원회 업무 별 국제위원 참여 희망 의사를 조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도 추후 파악하여 팀을 구성하기로 함.
• 제2호 : 제32차 ARCASIA 이사회 및 제16차 포럼 참가의 건
  – 전체 국제위원의 참석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우선 대표단 구성(안)을 협의하고 소요예산을 확인하기로 함.
• 제3호 : 제24차 국제건축사연맹(UIA) 동경총회 참가의 건
  – 조속한 시일 내에 참관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관단을 모집하기로 함.
• 제4호 : 제6차 중국 국제건축 EXPO 참가 및 중국건축학회와의 MOU 추진의 건

  – 중국건축학회는 6월에 이사가 교체되고 '11. 10. 20(목)부터 10.22(토)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6차 중국국제건축EXPO에 본 협회 대표단 참석과 MOU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협회의 주요 행사가 10월에 다수 개최되는 관계로 MOU 체결 시기는 본 협회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6월 이후, 10월 이전 중 체결시기에 대해 중국건축학회와 다시 협의하기로 함.
  – 제6차 중국 국제건축 EXPO 참석 여부는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함.
• 제5호 : 2012년도 미국건축사협회(AIA) 컨벤션 발표 신청의 건
  – 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기로 함.
• 제6호 : 유럽건축사협의회(ACE)와의 교류 추진 방향의 건
  – 향후 FTA 및 시장개방 관련 사안은 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국제위원회에서는 논의하지 않음.

건축사공제조합 조합원 1,000개사 돌파

건축사공제조합이 조합원 1,000개사를 돌파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월 24일 사업 개시, 사업시행 4개월여 만에 1,000개사의 조합원을 두게 됐다.
이에 앞서 조합은 조달청과 연계하여 4월 12일부터 전자보증서를 발급, 조합원이 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직접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으로써 발생했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켰다.
또한 200좌 이하인 조합원에 대해 이행보증 8배, 지급보증 4배까지 소액한도거래약정 이용배수를 조정해, 이용배수가 적고 이행보증 밖에 이용할 수 없었던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건축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02-3473-0900

서울시건축사회, 구조안전을 위한 건축사 결의대회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강석후)는 지난 5월 26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안전을 위한 건축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일부 건축사가 구조안전의 정확한 확인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으나,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잘못이 아닌 기술적인 근거와 경험을 과신하는데서 이루어진 오류라고 판단, 서울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 할 것임을 결의했다.
• 문의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02-581-5715

제3기 APEC 등록건축사

제3차 APEC 등록건축사 심사 및 등록 추진과 관련하여 등록 완료된 제3기 APEC 등록건축사의 등록증 수여식이 지난 2011년 5월 11일(수) 14시 본 협회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제3기 APEC 등록건축사로 총 29명이 등재되었다.

KR-00304 오혁근 / KR-00305 강철희 / KR-00306 허경원 / KR-00307 김태호 / KR-00308 하해진 / KR-00309 정영균
KR-00310 이상행 / KR-00311 정미숙 / KR-00312 하진수 / KR-00313 김문열 / KR-00314 이만출 / KR-00315 손민창
KR-00316 전신규 / KR-00317 한장수 / KR-00318 김강수 / KR-00319 전상백 / KR-00320 강태군 / KR-00321 윤재일
KR-00322 김동욱 / KR-00323 정해철 / KR-00324 최삼영 / KR-00325 주병조 / KR-00326 김희창 / KR-00327 강철구
KR-00328 이용익 / KR-00329 안우성 / KR-00330 김미희 / KR-00331 정운근 / KR-00332 천경훈

대구건축사회 봉사단, 달성공원 토요나눔마당 봉사활동 가져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봉사단(회장 이택붕/단장 김은선)은 지난 5월 21일 달성공원 토요나눔마당 무료급식소에 급식비 후원 및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택붕 회장을 비롯한 대구건축사회 회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셋째 토요일 달성공원에서 토요나눔마당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 지역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문의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053-753-8980

경기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지자체와 잇따른 무한돌봄 협약 체결



경기도건축사회와 경기도가 지난 3월 16일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건축사회와 지자체 간의 무한돌봄 협약이 확대되고 있다.

의정부지역건축사회는 지난 5월 13일 의정부시와 무한돌봄 협약을 맺고 비 감리대상인 소형 건축물에 대한 품질관리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로 했고, 수원지역건축사회와 수원시는 5월 17일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특히 수원지역건축사회는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주요 공정마다 현장검측을 통해 구조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술 지도를 하며 건축단계에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1:1로 품질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시흥지역건축사회와 시흥시는 5월 20일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부실을 예방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5월 24일 양주지역 건축사회는 양주시와 명품도시 양주 건설을 위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문의 경기도건축사회, 031-247-6129

경기도건축사회 가평지역건축사회 창립

경기도건축사회 가평지역건축사회는 지난 5월 24일 가평읍 가족회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가평건축사회는 지난 8년간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권역의 동부지역 건축사회에 소속돼 활동하다 2010년 11월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 문의 : 민홍기 회장, 031-581-9700

충남건축사회, 테마건축기행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최종옥)는 지난 5월 31일 회원과 충청남도 및 시군 건축공무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테마건축기행을 개최했다.

기행지는 용인(동백 아펠바움), 성남(윌든힐스), 수원(화성), 동탄(솔리움)으로 회원들과 선진 건축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번 테마건축기행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유관단체와의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기행은 건축문화적 자원을 지닌 한국의 건축이 자연친화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다양한 명소들을 둘러보며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201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인 단합대회



'201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인 단합대회'가 지난 5월 28일 남녕고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단합대회는 제주건축3단체(건축사회, 건축학회, 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고봉규)가 주관하여 회원 및 공무원, 직원 가족 등 도내 건축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 한라산 등반대회 개최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에서는 지난 6월11일~12일 양일간 제주 한라산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건축사협회와 제주건축사등산동호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대한건축사등산동회 박형규 회장과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400여 명의 건축사회원과 가족 내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편 어리목–윗세오름–영실코스로의 산행 중 윗세오름에서는 짙푸른 하늘과 만발한 철쭉은 등산의 흥을 한층 돋우었다.

건축계소식

국토해양부, 권도엽 신임 장관 취임



지난 6월 1일 국토해양부 권도엽 신임장관이 공식 취임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권도엽 장관은 "국토해양부가 통합된 지 4년차로 접어들었다"며 "진정한 국토해양인으로서 우리만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건축물의 67%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은 도시 경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적 그리고 도시미관적 관점에서 주택문제를 새롭게 접근해 신 주거문화를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권도엽 장관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 시라큐스대학교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국토해양부 주택국 국장, 제1차관을 역임했다.

2011 AURI 정책포럼, 제2차 포럼 'SOC시설 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

AURI 정책포럼은 국토환경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바람직한 정책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와 실무자 간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다. 급변하는 도시 · 건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 AURI 정책포럼은 도시 · 건축 분야의 주요한 정책현안들을 중심으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올 한해 총 4회의 포럼을 계획하고, 두 번째 포럼을 연다.
오는 6월 30일 개최될 두 번째 포럼은 'SOC시설 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SOC시설 디자인의 현주소'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구조미학적 측면에서의 SOC시설 디자인' 김남희 서울대학교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책임연구원, 'SOC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김경인 (주)브이아이랜드 대표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또 류중석(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류재영(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 GIS 연구본부) 본부장, 박승기(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과장서현(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임윤묵(연세대학교 토목 · 환경공학과) 교수, 진경호(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 · 경제연구실) 수석연구원, 황인진(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 차장이 토론에 나선다.
• 문 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www.arui.re.kr 031–478–9657, 031–478–9647

제4회 심원건축학술상 공모

심원문화사업회가 주최하고 (주)엠에스 오토텍이 후원하는 '심원건축학술상(Simwon Architectural Awards forAcademic Researcher)'의 제4회 공모요강이 발표됐다. 심원건축학술상은 1년 이내 단행본으로 출판이 가능한 완성된 연구 성과물로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원고(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마친 학위논문은 미 발표작으로 간주함)를 응모 받아 그 중 매년 1편의 당선작을 선정하며, 당선작에 대하여는 단행본 출간과 저술지원비를 후원한다.
심원문화사업회는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한 건축가를 통하여 건축의 세계를 이해하고 애정을 갖게 된 기업가가 그와의 인연을 회억하며 건축의 인문적 토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만든 후원회이다.
• 당선작 : 1편(상패 및 상금 500만원과 단행본 출간 및 인세 지급)
• 응모자격 : 내외국인 제한 없음
• 응모분야 : 건축역사, 건축이론, 건축미학, 건축비평 등 건축인문학 분야에 한함
(단, 외국국적 보유자인 경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한함)
• 접수기간 : 2011년 11월 1일~11월 15일(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 추천작 발표 :2012년 1월 15일(〈와이드AR〉 2012년 1/2월호 지면)
• 추천제 운용방식 : 위원회는 추천인단이 추천한 응모작과 일반 공모를 통해 응모된 연구물에 대하여 소정의 내부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지원함, 그 가운데 매년 1편 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시상함. 최종 당선작 심사에서 탈락한 추천작은 추천일로부터 3년간 추천작의 자격이 유지됨
• 당선작 발표 : 2012년 5월 15일(〈와이드AR〉 2012년 5/6월호 지면)
• 문의 : 심원문화사업회, 02–2235–1960

2011 제6회 한국농어촌건축대전 개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건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6회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이 개최된다.
이번 공모는 우리나라 농어촌의 특성과 전통을 반영한 새로운 건축양식을 발굴하기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및 창작활동을 장려코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재생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회복'이라는 주제로 지역문화를 반영하고 마을의 고유환경을 재구성한 건축양식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는 설계와 모형을 심사하는 계획부문과 준공완료된 건축물을 심사하는 준공부문으로 나뉘며, 오는 7월 6일까지 참가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 홈페이지 http://arch.ekr.or.kr

4대강 살리기 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전 개최

K–water에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지구내 설치될 공공시설물에 독창성과 예술성을 확보해, 창조적인 K–water 이미지와 4대강살리기 사업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다.
디자인에 관심있는 모두가 참여가능하며, 편안하고, 재미있고, 자연과 친화되는 디자인을 주제로 벤치, 의자, 파고라, 안내판, 자전거 보관대 등 디자인 도판 1식을 응모하면 된다.
오는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을 한 뒤, 응모제출품을 K-water 공모전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발표는 7월 22일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당선작 중 일부는 4대강 사업현장의 문화관 등 주요 공간에 설치될 계획이다.
• 문의 : K-water 공모전 운영 사무국 02-322-7005, design.kwater.or.kr

〈바로잡습니다〉
본지 통권 505호(2011년 5월호) 48페이지 상단 사진의 사진설명을 '실내중정'으로 바로잡고, 49페이지 상단 사진의 설명을 '옥상정원'으로 정정합니다.

신간안내

퍼블릭 인티머시_시각예술의 공간적 확장

줄리아나 브르노 저 | 정용도 역 | 248쪽 | 픽셀하우스



미디어 아트의 도래 이후, 현대미술에서 기존의 예술적 경계들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했다. 미디어 아트는 동영상과 사운드 등을 통해 인간의 감각과 좀 더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예술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몰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미디어 아트와 설치작품, 건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각예술의 공간성 확장'을 새로운 예술의 주제로 제시한다. 제인&루이스 윌슨의 영상설치 작품 〈자유로운 익명의 기념비〉, 독일 미술가 레베카 혼의 퍼포먼스, 워홀과 대만의 영화감독 차이밍량의 영화작품 등이 함께 소개된다.
• 문의 : 픽셀하우스, 02-825-3633

건축보다 빛나는 건축사진 찍기

아드리안 슐츠 저 | 김문호 역 | 220쪽 | 효형출판

이 책은 프로페셔널한 건축사진 찍기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실제 유럽과 북미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독일의 프로페셔널 건축사진가 아드리안 슐츠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최고의 건축사진 제작 비결을 낱낱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 환경과 외부적 요인에 따른 다양한 촬영 조건에서 최고의 컷을 만들어내는 촬영 기법부터, 촬영으로 얻은 이미지를 완벽한 사진으로 재탄생시키는 후보정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직접 촬영한 풍성한 사진 자료는 각 기법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부록으로 [건축사진가를 위한 촬영 장비 가이드]를 수록해 목적에 따른 알맞은 장비를 구성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문의 : 효형출판, 031-955-7600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건축이야기

Peter Murray 저, 용갑식 · Steve Y.Sung 역 | 288쪽 | 공간예술사



이 책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건축을 둘러싼 설계경기, 그리고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위한 불굴의 창조적 투쟁 16년사를 담았다.
현재 한강에서는 지속개발이 필요한 수변 생태공원인 노들섬 등에 개발되고 있어 자연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역자는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개발과정을 소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문의 : 공간예술사, 02-737-1020

지속가능한건축의 패시브디자인

이봉 저 | 261쪽 | 도서출판 발언



지구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친환경건축이 차츰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면서, 친환경건축의 구현은 건축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책임이 되고 있다.
지구환경보존의 필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이론과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은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건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기술과 패시브디자인 기법들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자연환경과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인식한 후, 그 기본개념이 존중되는 형태와 공간을 계획하여 건축물에 통합화하는 지속가능한 건축디자인을 실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펴냈다.
• 문의 : 도서출판 발언, 02-929-3546

난 지금 매우 기분이 좋다

I am very happy now!



권병조 | Kwon, Byung-cho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약력
- 육군사관학교, 미국테네시 주 립대 석사, 한양대 도시공학 박사과정 수료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의 직책을 맡은 지 한 달반이 지났다.

건축에 대한 특별한 이해나 관심도 없던 내가 건축과 건축사 문제에 매달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세상사람 모두가 건축물 안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것을 직책을 맡음으로서 새삼 느끼게 되었고 나에게는 매우 다행스런 일이었다. 이것은 내가 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대한 업무철학의 바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삶과 건축물은 서로 떼어놓고 말하기 어렵고, 그래서 인간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내가 맡은 업무의 가치를 말해주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숙제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약 한 달반의 기간 동안 많은 건축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설계업계가 시장상황이 예전같지 않게 많이 위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갈등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앞서 말한 건축과 인간의 삶의 관계를 해석하고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계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존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놓고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번민하고 있다.

사실 난 가끔씩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나라의 ○○○건축가가 설계를 하였고…'라는 내용을 볼 때마다 '왜 우리나라 건축사가 설계를 하였다고 자랑하는 보도는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 내세울만한 건축사가 없는가, 없다면 왜 그렇게 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

내가 만나본 많은 건축사들도 세계 수준의 건축사가 많이 양성·배출되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그래야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건축설계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고 위축되는 국내시장을 놓고 야기되는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 하였다.

맞는 말이라 생각된다. 난 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비롯한 협회 회원 건축사들의 열정과 자기희생적 노력을 옆에서 보고 있다.

분명 나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지만, 현실로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계의 변화·발전을 위한 큰 정신적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건축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 정부정책의 뒷받침, 일반국민의 건축과 건축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마침 2011년 5월 30일 건축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주요내용은 건축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건축사 자격 취득 및 관리를 세계적 기준에 맞추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작은 변화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바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사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일 것이다. 분명 건축사들의 열정과 자기희생이라는 정신적 자산이 있기에 변화에 대한 열망도 클 것이다.

그래서 머지않아 건축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를 누비는 많은 건축사들을 보게 될 것으로 믿는다.

난 지금 매우 기분이 좋다!

‘백결선생’과 ‘떡’

Sir Baek Gyol and Rice Cake



송호섭 | Song, Ho-seob, KIRA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인 S&K

약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 MBC 중장기건설기획단 자문위원 역임
- 건축사지편찬T/F 위원회 위원

요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은 안부전화 하지 않는 게 서로 도와주는 거란다.

“무소식이 희소식 때문이라기보다는, 겉치레 인사로 안부 주고받기가 몹시 껄끄럽기 때문이라네”

지나가듯 던지는 한마디에 그동안 애써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 은연중에 드러나 보이는 게 싫기 때문이다. 무척이나 자존심 강한 우리 건축사님들….

물건을 살 때 대부분은 정가가 매겨져 있어,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부담 없이 정상 거래할 수 있다.

설계를 할 때, 현장 답사도 하고 법적 검토도 해보고 개략적인 사업성검토도 하면서 화기애애 진행되다가도 계약 얘기만 나오면, “아는 건축사사무소 많은데… 가까운 친척이 건축사사무소를 하는데….” 하면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 찾아와 준 것만도 어딘데 아예 용역비 많이 받을 생각 말라는 암시를 준다. 이럴 때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정가처럼 시스템에 기대어 통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실질적인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고, 일거리 많은 것도, 돈 많이 받는 것도 오로지 개개인의 비즈니스 능력으로만 치부되는 사이, 비록 몇몇 예외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서로가 ‘기준’이 되어 버린 비극을 낳고 말았다. 서로서로 비교되면서 자꾸만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치킨-게임 처럼.

일전에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던 어떤 건축주가 이곳저곳 사무소를 돌면서 계획안을 받아 본 것만 40여개가 넘는다는 얘길 듣고, 일거리에 목말라하는 건축사들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소망이 너무나도 헐값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행여 설계 수주로 이어질 수도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 든 독배라 하기엔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아무리 자유경쟁하의 서비스업이라지만 최소한의 회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보호 장치만은 반드시 마련 되어야겠다.

국내 어느 변호사사무소에서 상담과 일련의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해 주는가? 또 어떤 병, 의원에서 종합건강진단, 진료와 처방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몇십 군데를 돌면서….

지금은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고들 한다. 민간 소규모 사업도 활성화 되지 않고 관에 의한 입찰, 현상공모 등에 의존하기엔 제약이 있고 변수가 많기에 여의치 않다. 점증하는 내외적 비용 상승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열악한 계약조건으로 일하다 보니 소싯적 푸른 꿈은 어느새 빛이 바래어,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몰라도 생계형 건축사란 너울을 쓰고, 말 그대로 제 생계 꾸리기에도 급급하며 일상이 짓눌려 있다. 얼마나 더 큰 인내와 희생이 따라야 하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누군들 온전히 버틸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로또식의 일회성 일감 확보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제도개선과 업무영역 확대에 의한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일감 확보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동서고금의 철학, 음악, 미술, 문학, 심리학, 사회학… 최신 전문 엔지니어링 지식에다 디자인센스, 수주를 위한 비즈니스, 관련법규의 섭렵 등등 가히 팔방미인의 경지를 넘나들며 건축 이론을 논하고, 심지어 디자인의 근본을 추구한다며 생명의 신비와 무한의 우주 생성 원리까지도 감히 논하면서,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걷다가 그만 발밑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는 건축사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오늘 따라 문득 옛 신라시대 누더기 옷을 걸친 거문고의 명인 백결선생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

설날을 맞아 마을 이곳저곳 떡방아 소리가 들려오는데, 부인이 “우리는 무엇으로 과세합니까?”라고 근심하자, 백결선생은 거문고로 방앗공이 소리를 대신 내어 위로 하였단다.

정말 우리 살 길 좀 제대로 찾아봅시다.

이젠 진짜 떡방아 소리를 듣고, 진짜 떡을 먹고 싶다. 시루떡이건 인절미건….

건축설계 감정업무에 대하여

Opinion of Appraisal of Architectural Design



박종철 | Park, Jong-chull, KIRA
성공 건축사사무소

약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과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
• 정보교육T/F위원회 위원

건축사(建築士) 고유의 기본업무는 "건축설계"이며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업적인 소명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설계업무는 갈수록 줄어들고,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설계도서들이 법정에 제출되어 설계비 청구소송의 "감정목적물"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비 청구소송의 감정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법정에서 이루어 진다. 즉,

·설계업무가 중단, 취소되거나 제3의 건축사로 교체된 경우
·설계변경업무에 따른 적정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설계업무가 완료 되었음에도, 잔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약정, 합의에 의해 설계업무를 진행한 경우 등등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한 경우 설계비 감정의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설계업무 수행내역에 따른 설계비 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계업무의 특성과 계약내용, 관련법규정 등에서 정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설계도서 작성업무와 더불어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설계업무 진행과정에서 작성된 설계도서와 관련문서들이 증빙자료로써 적합한지의 여부
·설계비 청구소송의 발생원인과 원,피고간의 주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설계업무 수행내역에 합당한 설계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하게 된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불비율에 따른 "설계업무 완성률"을 적용하여 설계비를 산정하거나
·완성률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가기준 등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한 설계비 산정방법을 혼용한다.

그러나 일부 건축사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혼이 담겨져 있는 설계도면을 법정에 제출하면서, 대가기준에서 정한 설계도서의 항목에 따라 "도면의 매수를 헤아려 설계비를 감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설계경험이 부족한 일부 감정인들도 도면 매수를 감정기준으로 삼아 설계비를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마치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의 숫자를 헤아려 값을 정하는 것처럼….

IMF 및 2008년 9월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건설경기는 극도의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던 많은 건설사업계획이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어, 설계비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소송사건의 설계비 청구금액은 수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위해 회원 당사자들은 물론 협회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설계업무에만 충실하면 모든 것은 다 잘될 것이라는 순수하고 단편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설계업무의 시작이며 완성의 척도로 작용하는 "계약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롭게 출범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에서도 보증서 발행에 따른 설계계약서에 대한 검증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설계자와 건축주가 상생(win-win)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시하는 "대가기준과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계약상의 원칙과 합리적 기준, 당사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하는 해법이라 여기며,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가 아니라 건축 관계자들 전체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서로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때이다.



“ 저기 준공식에도 건축가는 안불렀다카데예‥ 우째 그런일이 또… ? ”

“ 원조 건축가는 ‘낙동강 오리알 동동’ 우리들 아잉교? ”

※건축가의 표현은 설계관련인을 포괄하는 작가의 취지임



김진균 | Kim, Jin-kyoon

약력
- 서울공대 졸, 미 MIT대학원, 서울시립대 박사
- 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Hon FAIA
- 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원장
- 전 대학건축학회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1년 4월 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366	5,366	98	196	9	27	5,473	5,589	1,607	1,607	235	470	53	159	24	96	25	161	1,944	2,493	7,417	8,082
서울	843	843	25	50	2	6	870	899	825	825	137	274	34	102	10	40	15	88	1,021	1,329	1,891	2,228
부산	467	467	16	32	2	6	485	505	98	98	19	38	2	6	1	4	3	21	123	167	608	672
대구	439	439	19	38	4	12	462	489	68	68	16	32	3	9	3	12	2	10	92	131	554	620
인천	275	275	3	6	0	0	278	281	65	65	7	14	1	3	0	0	0	0	73	82	351	363
광주	202	202	1	2	0	0	203	204	40	40	7	14	2	6	2	8	0	0	51	68	254	272
대전	245	245	4	8	1	3	250	256	36	36	7	14	3	9	1	4	1	15	48	78	298	334
울산	179	179	5	10	0	0	184	189	17	17	2	4	1	3	0	0	0	0	20	24	204	213
경기	749	749	1	2	0	0	750	751	235	235	19	38	2	6	2	8	1	5	259	292	1,009	1,043
강원	172	172	2	4	0	0	174	176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02	209
충북	217	217	3	6	0	0	220	223	31	31	4	8	1	3	1	4	2	15	39	61	259	284
충남	247	247	1	2	0	0	248	249	49	49	4	8	2	6	2	8	0	0	57	71	305	320
전북	248	248	4	8	0	0	252	256	22	22	2	4	1	3	1	4	0	0	26	33	278	289
전남	199	199	1	2	0	0	200	201	18	18	2	4	0	0	0	0	1	7	21	29	221	230
경북	361	361	5	10	0	0	366	371	38	38	3	6	1	3	0	0	0	0	42	47	408	418
경남	404	404	7	14	0	0	411	418	28	28	3	6	0	0	0	0	0	0	31	34	442	452
제주	119	119	1	2	0	0	120	121	12	12	1	2	0	0	0	0	0	0	13	14	133	135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 건축사회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082	10	8,092	100%	23
서 울	2,228	3	2,231	33.9%	10
부 산	672	1	673	7.9%	9
대 구	620	0	620	7.7%	0
인 천	363	0	363	3.8%	0
광 주	272	0	272	3.7%	0
대 전	334	1	335	3.7%	0
울 산	213	0	213	2.6%	0
경 기	1,043	2	1,045	12.2%	2
강 원	209	0	209	2.6%	0
충 북	284	0	284	3.0%	0
충 남	320	3	323	3.1%	0
전 북	289	0	289	3.0%	0
전 남	230	0	230	1.9%	0
경 북	418	0	418	4.6%	1
경 남	452	0	452	5.0%	1
제 주	135	0	135	1.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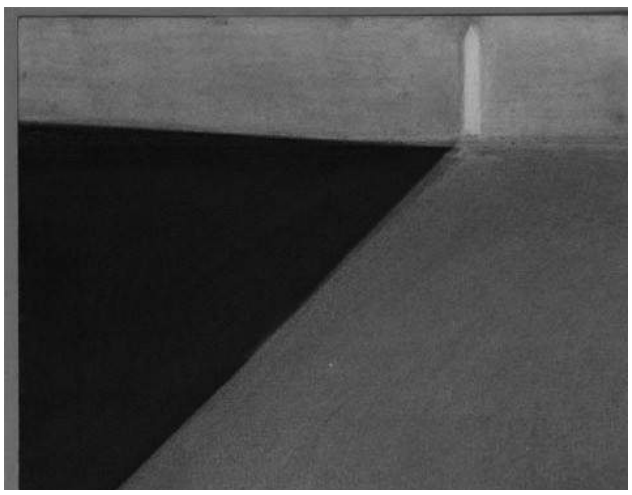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 계	비 고
회원수	5,589	2,493	–	8,082	
비율	69.15%	30.85%	–	100%	
사무소수	5,473	1,944	–	7,417	
비율	73.79%	26.21%	–	100%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은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 Kim, Eunmee |

왜 공개 건축공모전은 건축사에게 좋은가?



마야 린, 베트남 메모리얼 공모전 엔트리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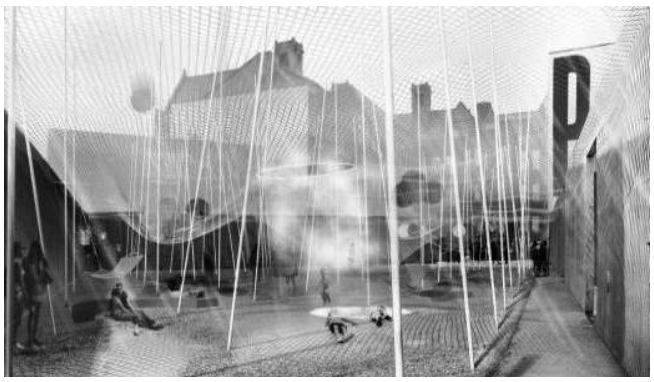
설계공모는 오랜 시간 동안 건축의 특징을 정의 해왔다. 공모전이란 창조적인 배경이 없었다면 젊은, 아직은 학생이었던 여성(마야 린)의 대담하고 우아한 검정 라인으로 표현된 그녀의 디자인을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의 베트남 기념비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건축사들이 그들의 도시에 대한 접근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공모전을 사용하지 않았고, 젊은 건축사들(렌조 피아노, 리차드 로저스 등)이 그들에게 주어진 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 공모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의 퐁피두센터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대를 조금 뒤로 되돌렸을 때, 만약 어떤 이탈리아인의 더 나은 건축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의 초기 안이 그 공모전에 당선되었다면, 우리는 브루넬리치의 돔의 위대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요점은 비록 때때로 공모전이 소모적이고 불공평 할 때도 있으나, 그것을 통해 건축이란 분야가 진화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점으로 왜 설계공모가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본능적인 경쟁심을 고취하고 당신이 계속 공모전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려고 한다.



SO–IL 의 PS1 공모전 엔트리

첫 번째로 우리는 경제적 보상의 쟁점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건축은 '사업'이라 이해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고 건축사가 되는 경우 보다는 이상 추구의 경우가 많다. 만약 우리가 순수하게 돈벌이의 목적으로 건축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건축이란 분야에 붙어 있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에 건축이란 일을 하고 있다.

비록 회사가 이윤이 없을 공모전 프로젝트에 창조적인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경제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공모전이 단지 그것을 통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

종종 "실제 프로젝트"는 고객의 요구사항, 예산 그리고 데드라인 등으로 질식되어진다. 그와는 다르게 공모전의 자유로움은 당신이 진정하고 싶은 디자인을 하게 함으로써 당신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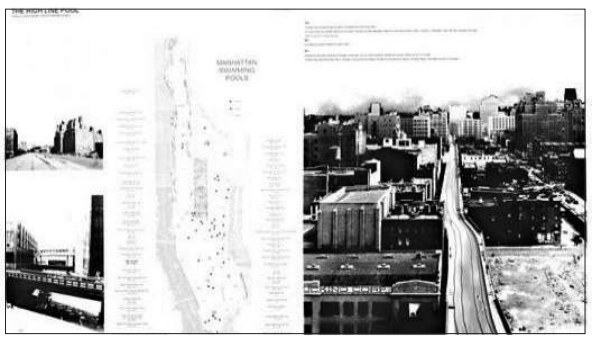
그리고 공모전의 결과는 (당선과 상관없이) 건축이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것이다. 건축이란 왕국 안에서, 건축 회사나 학생들은 공모전에 제시된 다양한 접근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아마도 공모전의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모전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을 알게 되고 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뉴욕 그라운드 제로 공모전을 한번 보자. 수십개의 출품작들이 파이낸셜 센터에 있는 윈터 가든에 전시되었고, 건축과 관련이 없는 대중들은 그 작품들을 둘러보고 그 창의성에 감탄하였다.

아마도 어린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그 전문적인 드로잉을 완벽하게

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참가작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은 '외부인'들이 건축에 흥분할 수 있게 만든다.



나탈리 린의 하이라인 공모전을 위한 프로포절

두 번째 쟁점은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작품이 당선작이 아니라면, 당신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꽤나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완성작을 제출했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이 그것을 통한 엄청난 레슨이 그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공모전 기간은 매우 짧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디자이너는 창조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것을 견뎌 내는 것은 결코 작은 노력이 아니다. 이에 더해, 만약 당신이 공모전을 위해 새로운 렌더링 프로그램을 시도한다거나, 많은 다이어그램들을 그려낸다면, 그 공모전으로 부터의 받게 되는 당신의 보상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배운 것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무 많은 제출작과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쟁점이다. 물론 수십 수백의 참가작들이 있을 것이다. 참가작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해 보일 수 있겠지만, 건축의 묘미는 우리가 몇 달 동안 생각해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그래픽 언어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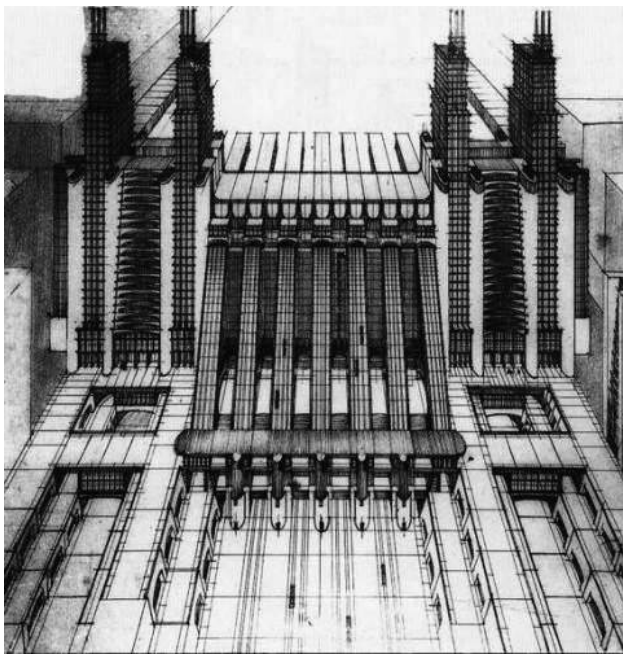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한 시간을 사용하던, 10분 혹은 삼십초를 사용하던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래픽들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강하고 명료하게 표현해 내야만 한다. 공모전은 우리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우리의 그래픽 언어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SANAA의 Rolex Center

마지막은 개념적인 쟁점이다. 공모전의 건축사가 잠시 '실무적 세계'에서 벗어나 왜 우리가 이 건축이란 긴 여행을 시작 했는지 하는 우리의 건축적 뿌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각이 여기에 다다랐을 때, 공모전은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고, 건축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에 대한 시각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가장 강하고 성공적인 아이디어는 실현가능한 무엇인가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자면, 헤르조그 & 드모롱의 'BIRD'S NEST'나 사나의 최근 완성된 롤렉스센터 같은 것들이다. 분명 이러한 제안 안들은 개념적인 생각들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아이디어들은 디자인적 질을 잃지 않고 실질적인 구조체로 발전되어졌다.



안토니아 산텔리아 **La Citta Nuova**

아이디어 자체가 주는 힘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몇몇 공모전들은 순전히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를 방심하지 않게 만들고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 안토니아 산텔리아와 이탈리안 미래주의자들은 그들의 디자인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그들의 드로잉과 그림들은 사상가들이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와 혁명적인 아이디어들은 끌어내는 토양이 되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건축사는 예언자가 되어야만 한다. 시대의 진정한 감각을 지닌 예언가… 만약 그가 최소 앞으로 10년을 내다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를 건축사라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공모전은 우리에게 건축사로서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놀고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희망적으로, 건축사들은 그들의 건축을 위한 동기를 잊지 않을 것이며, 공모전의 가치를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윗글의 일부는 Archdaily.com 의 기사 중 일부를 발췌, 인용 하였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실무를 위한 도서발간!!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 KOREAN ARCHITECTURE 2010」
「건축법령 실무해설 시리즈」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회원 및 건축 실무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도서를 제작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축 업무를 함에 있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건축법령 실무해설 시리즈」를 발간했으며,
반세기 한국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동안 게재된 원고를 발췌해 수록하여 제작한「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현재의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 건축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 KOREA ARCHITECTURE 2009」·「 KOREA ARCHITECTURE 2010」을 발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OREAN ARCHITECTURE 2009」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그린홈 특집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388쪽 / 가격: 35,000원
올컬러



「KOREAN ARCHITECTURE 2010」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468쪽 / 가격: 40,000원
올컬러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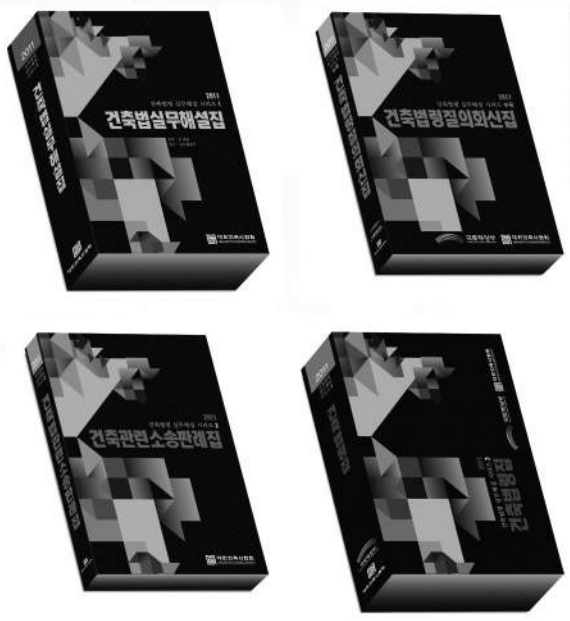
45년간 '건축사'誌에 수록된 칼럼,
시론, 논문 등을 엄선하여 집대성
면수: 695쪽 / 가격: 30,000원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 KOREAN ARCHITECTURE 2010」
2권 세트 구매 시 60,000원(배송비 포함)

※ 구입문의: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02-3415-6862~4)

「건축법령 실무해설 시리즈」

- 건축법 실무해설집, 건축법령 질의회신, 건축관련 소송판례집, 건축법령집 등 총 4권으로 구성
- 건축법해설, 질의회신 및 건축관련 판례를 분석 · 연구 ·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 면수: 건축법 실무해설집(992쪽) / 건축법령 질의회신(542쪽)
건축관련 소송판례집(395쪽) / 건축법령집(1013쪽)
가격: 인터넷 신청 회원 70,000원(4권 세트),
비회원 100,000원(4권 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문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02-3415-6832~4)